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도시를 완한다. 경계를 넘어서...

Global Top10 City INCHEON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요 약 보 고 서

2024.05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제 출 문

인천광역시 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뉴홍콩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5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주형 대표
(주) 건 일	김석환 대표
(주) 유 신	박석성 대표

제 I 장 계획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목적, 위상	3
2 과업의 범위	5
3 과업추진 일정	6

제 II 장 계획여건 검토

1 미래사회 전망과 인천의 입지경쟁력	
1.1 미래사회 전망	9
1.1.1 글로벌 트렌드의 변화	9
1.1.2 미래 신산업의 변화	11
1.1.3 국내여건의 변화	19
1.2 인천의 입지경쟁력	23
1.2.1 국제적 관문기능 보유	23
1.2.2 미래신산업 성장잠재력 확보	24
1.2.3 신재생에너지, RE100/CF100,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 예정	25
1.2.4 다양한 역사·문화·관광자원, 대규모 문화관광 인프라 보유	27
1.2.5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위상	28
2 개발가용지 분석	
2.1 분석방법과 절차	30
2.1.1 권역 내 IFEZ 포함 시 분석방법	30
2.1.2 권역 내 IFEZ 미포함 시 분석방법	31
2.2 개발가용지 분석결과	32
2.2.1 영종권역	32
2.2.2 송도권역	34
2.2.3 청라권역	36
2.2.4 강화·옹진권역	38
2.3 종합의견	39

제III장 기본구상

1 비전, 목표, 전략

1.1 비전 (VISION)	43
1.2 목표 (GOALS)	46
1.3 전략 (STRATEGIES)	47

2 공간구조 설정

2.1 영종권역	57
2.2 강화·옹진권역	59
2.3 송도권역	61
2.4 청라권역	63
2.5 내항권역	65

제IV장 마스터플랜

1 부문별 계획

1.1 글로벌 첨단 신산업 육성계획	69
1.1.1 인천 특화산업	69
1.1.2 성장산업	71
1.2 메가폴리스 형성 계획	74
1.2.1 세계로 웅비하는 인천 공항경제권	74
1.2.2 보물섬 품은 해양도시 인천만들기	81

2 권역별 계획

2.1 영종권역	85
2.2 강화·옹진권역	87
2.3 송도권역	90
2.4 청라권역	92
2.5 내항권역	94

3 핵심사업 개발계획(안)

3.1 영종권역	96
3.1.1 초격차 첨단신산업 플랫폼	96
3.1.2 용유지구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100
3.1.3 중산마린시티	102
3.1.4 글로벌 에코·컬처파크	106
3.1.5 거잠포-무의도 명소화 사업	109
3.2 강화·옹진권역	113
3.2.1 강화 글로벌 K-그린바이오 특화도시	113
3.2.2 강화 글로벌 K-그린바이오 특화도시(그린바이오 파운드리)	116
3.2.3 강화 글로벌 K-그린바이오 특화도시(친수주거단지)	118
3.2.4 강화 글로벌 K-그린바이오 특화도시(해양치유지구)	120
3.2.5 강화평화대교(신도~강화)	122
3.2.6 덕적군도 명소화사업	124
3.3 송도권역	127
3.3.1 GWC(Global Welcome Cluster) 조성사업	127
3.3.2 INEX 및 글로벌 금융타운	130
3.3.3 인천형 신산업 지식기반 플랫폼	132
3.3.4 신행 배후단지 고부가가치화 사업	135
3.3.5 송도마리나 해양레저거점	137
3.4 청라권역	139
3.4.1 청라금융클러스터 및 특화금융집적단지	139
3.4.2 바다이음	142
3.4.3 환경복합 연구단지	144

4 연계사업 개발계획(안)

4.1 영종권역	147
4.1.1 인천국제공항 복합문화시설	147

4.1.2 아이퍼스 힐(IFUS HILL)	148
4.1.3 항공산업 혁신클러스터	148
4.1.4 에어로트로폴리스 기반구축	150
4.2 강화·옹진권역	151
4.2.1 뷰티헬스 클러스터	151
4.2.2 해안관광·해상교통 네트워크	152
4.2.3 바다이음, 돈대 바다조망점	153
4.2.4 영종-강화 철도연결망 구축	154
4.2.5 강화 연결도로 확충	155
4.2.6 바다역 조성	156
4.2.7 백령도 관광기반 조성	157
4.2.8 영흥도 친환경에너지 기반 조성	159
4.3 송도권역	160
4.3.1 남항2단계 항만배후단지	160
4.3.2 교통접근성 강화	161
4.4 청라권역	163
4.4.1 스포츠·문화 복합단지	163
4.4.2 수소혼소발전 에너지선도단지	163
4.4.3 수소특화집적단지	165
4.4.4 UAM 시험장 및 문화·체육시설	166
4.4.5 수소자동차 R&D센터	167
4.4.3 수소특화집적단지	165
4.4.4 UAM 시험장 및 문화·체육시설	166
4.4.5 수소자동차 R&D센터	167
4.4.6 노후산단재생 및 구조고도화	168
4.4.7 해양관광·상업중심 복합단지	169
4.4.8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170
4.4.9 로봇랜드	171
4.4.10 7호선 연장	172

제V장 사업화 계획

1 타당성 검토

1.1 총사업비 배분계획	175
1.2 경제적 파급효과	178

2 사업추진계획

2.1 기본방향 및 사업추진	181
2.2 사업추진시기	182

3 투자유치전략

3.1 투자유치 프로세스	187
3.2 산업별 전략	188
3.3 산업별 투자유치 앵커산업 선정	194

4 제도개선 및 사업 활성화방안

4.1 법·제도	204
4.2 홍보방안	206
4.3 사업추진체계	209

별책보고서

- 본보고서
- 부록(본보고서)
- 부록(국외사례조사)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도시를 원한다. 경계를 넘어서...

제 I 장 계획의 개요

- 1 과업의 배경, 목적, 위상
- 2 과업의 범위
- 3 과업추진 일정

Global Top10 City INCHEON



제 I 장 계획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목적, 위상

» 과업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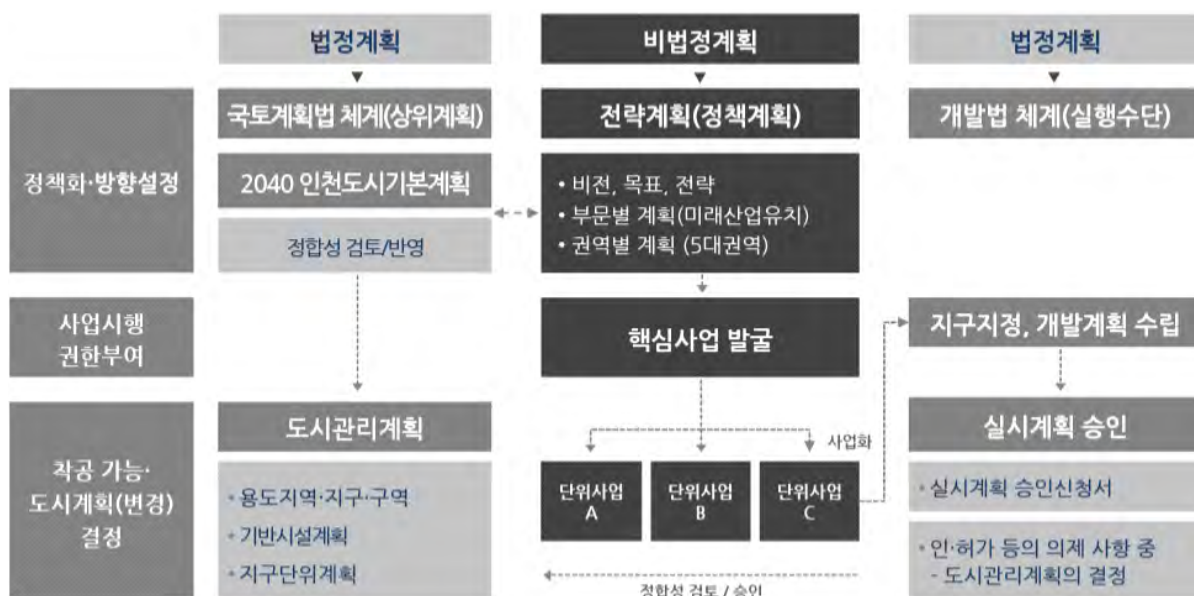
- 인천은 1883년 개항 이후 근대 도시로 출발했으며,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고, 1981년에 직할시로 승격되어 우리나라의 관문도시로써 상공업과 산업·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어왔음
- 2000년대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면서 경제구조가 전통산업에서 신산업과 국제업무 등 고부가가치 지식경제로 전환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던 반면, 경제자유구역 쏠림현상에 따른 원도심의 인구 및 경제기반 약화 등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글로벌 도시들은 신산업 육성과 혁신기반 강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메가시티화를 통해 ‘집적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인천도 초고령화, 출생률 저하, 다문화 인구증가, 문화관광 수요증가, 첨단 산업의 혁신 등 미래변화에 대응한, 2050년 미래 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시점에 서 있음
- 이런 맥락에서 민선8기 인천시는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라는 미래발전 비전을 제시하였고, ‘Global Top10 City, INCHEON’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 성장 동력과 발전전략, 핵심사업을 도출하고자 함
-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이라는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방안’과 도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가치 재창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글로벌 도시들이 각자 생존을 위해 격돌하는 상황에서 인천이 처한 위치와 경쟁력을 토대로 인천의 미래상을 그리는 것이 중요함. 또한 침체한 원도심과의 입지경쟁력 편차를 줄이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연접 지역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통합 발전체계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함
- 인천과 수도권 서남부 도시와의 상생(인구 1000만 메가폴리스)을 고려하고 재외 동포 700만을 고려한 글로벌도시 인천의 미래발전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그간 인천이 국가경제와 도시성장을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미래 인천의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임

»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의 목적은 인천시의 새로운 미래가치 재창조를 위한 비전과 목표, 전략, 핵심사업을 제시하고 실현가능성 검토를 위한 사업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 새로운 시대가 원하는 새로운 도시 인천의 미래발전 방향(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등)을 제시하고 고착화된 경계(인식, 범위)를 넘어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 건설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자 함

» 과업의 위상

- **(비법정계획)** 본 과업은 인천광역시의 미래 도약을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비법정계획의 형태로 수립되며, 목표연도는 2050년임
- **(정책계획)** 본 과업은 민선8기의 비전인 ‘초일류도시 인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계획(정책계획) 성격을 가짐
- **(실행방안)** 전략계획(정책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 상위계획에 부합되는 경우 : 개발법 체계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
(예: ①지구지정→②사업시행자 지정·개발계획 승인→③실시계획 승인 등)
 - 상위계획에 미반영/배치되는 경우 : 상위계획 수립(변경) 후 개발법 체계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



가치재창조를 위한 비전, 목표, 전략, 핵심사업, 투자유치 계획 수립



2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위 치) 영종, 송도, 청라*, 강화·옹진**, 내항***
 - * 청라경제자유구역, 수도권매립지 및 SK에너지 일원
 - ** 강화(강화남단), 옹진(백령도·대청도·소청도, 덕적군, 영흥도)
 - *** 중구·동구, 계획내용은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과업결과 수용
- (면 적) 300km²(인접지역 일부 포함)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3년
- (목표년도) 2050년
 - 단기(집중적 실행기간) : 2026년
 - 중·장기(유연한 실행기간) : 2027년~2050년
- (과업기간) 2023.03~2024.05(14개월)

» 내용적 범위

- 대상지 여건조사 및 분석, 국내·외 사례분석
- 비전 및 추진목표 설정, 기본구상(안) 수립
- 마스터플랜(부문별/권역별 계획, 핵심사업 선정, 로드맵)
-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홍보전략 포함)



3 과업추진 일정

» 착수/중간/최종보고 및 의회보고

- 시장보고(착수보고 2023. 4.11, 1차 중간보고 2023. 7.24, 2차 중간보고 2023.11.21, 최종보고 2024. 4. 2), 의회보고(2023.11. 6)를 통해 인천의 미래 발전 비전과 목표, 전략, 핵심사업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 등 전문가 자문회의

-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 : 분과위원회(바이오, 신산업·창업, 금융산업, 항공·항만, 도시계획, 문화·관광)별 9차례 자문과 토론 결과를 기반으로 과업내용을 보완하였음
- 전문가자문단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반도체, 항공물류, 문화관광, 도시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자문, 토론을 진행하면서 계획을 수립

» 유관기관 및 시 관련부서 협의

- 유관기관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연구원, 중구청, 강화군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음
- 시 관련부서 : 실국장 보고, 산업국, 교통국, 항공과, 도시개발과, 항만연안과, 섬해양정책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였음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도시를 원한다. 경계를 넘어서...

제II장 계획여건 검토

- 1 미래사회 전망과 인천의 입지경쟁력
- 2 개발가능지 분석

Global Top10 City INCHEON



제 II 장 계획여건 검토

1 미래사회 전망과 인천의 입지경쟁력

1.1 미래사회 전망

1.1.1 글로벌 트렌드의 변화

» 코로나19의 반작용 : GVC 다변화, 지역화, 융복합화 움직임 강화

- (GVC 재정의) 코로나19로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의 취약성과 국가 간 산업 경쟁력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임
 - 코로나19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GVC 구조와 역할 재편 및 국제분업 구조의 '거리'를 재조정하는 계기로 작용
 - 탈세계화 움직임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공급망 성숙과 보호 무역주의 심화로 가시화되었고, 코로나19 이후 더욱 강화되는 추세를 보임
- (다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요인은 글로벌 공급망의 다각화와 자국 내 생산 거점화의 움직임이며, 이는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한 미래 도약을 계획 중인 인천에 위기로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세계는 '공급망의 거리가 멀고 한 나라에 집중될수록 국가안보에 위협이 커진다'는 판단 하에, 위협요인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맥킨지가 정의한 넥스트 노멀(Next Normal)은 '세계화에서 지역화로'이며,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에서 아시아 내 타 지역으로 급속히 이전할 것이라 전망
- (지역화)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 과정에서 베트남 등 신남방 지역과 미국 및 인접 국가*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인천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 신산업에 대한 글로벌 생산거점화 전략을 마련해야 함
 - * 미국은 '18년부터 멕시코를 중국의 공급망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시화 현상을 보임
 - 코로나19 대처과정에서의 강력한 방역체계와 투명성, 신뢰성은 첨단제품의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한국이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 것임
- (융복합화) 선진국은 향후 다가올 팬데믹 상황에 대비해 글로벌 공급망 전 과정에 AI, 빅데이터, IoT, 로봇, 3D프린팅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관리 시스템 구축과 생산 자동화를 위한 공급망의 디지털화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신산업을 통한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이 준비해야 할 미래임

» 도시성장의 원동력 : 메가시티, 도시브랜드화, 신산업 수요 증가

- (메가시티*) 지역성장 패러다임이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경제로 전환되는 무한 경쟁시대에 들어서면서 지식 근로자들이 집중된 메가시티가 국부창출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등장
 - * 인구 1,000만명 이상 도시권으로써 핵심 도시와 생활, 경제, 문화 등이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일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주변 도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 미국 10대 대도시권은 GDP의 75%, 고용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도시의 발전방향은 ①R&D 등 혁신산업 육성, ②인재 육성, ③기반시설 확충, ④정주환경 개선임
- (도시 브랜드화*) 도시의 새로운 가치창조 수단이자, 시민들이 도시의 미래 핵심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도구이며,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향점 역할을 담당함
 - * 런던 'Creative London', 뉴욕 'I♥NY', 팔츠부르크 'Stage of the World', 비엔나 'Now. Forever' 등
 - 매력적인 도시브랜드는 기업의 인지도와 판로 확대, 관광객 유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수인력과 자본유치를 위한 도시마케팅의 핵심요소임
- (신산업) 핵심 키워드: ①AI혁신, ②친환경·건강, ③GVC공급망 재편, ④새로운 표준·제도, ⑤원자재·에너지산업
 - 친환경 및 건강에 대한 관심,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신산업 : 화이트바이오·헬스케어, 신 모빌리티(수소차, 자율주행, UAM 등), 지능형 반도체 파운드리 등
 - GVC(Global Value Chain) 재편정책에 따른 산업생태계 변화 : 전기차·이차전지(IRA), 지능형 반도체(파운드리 내재화, 반도체지원법), 첨단소재 등
 - 디지털 기술(AI 등) 발전과 확산에 따른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혁신이 가속화되고, 친환경과 건강관리 요구 증대가 시장수요로 전환

» 모빌리티 환경변화 : 신모빌리티 산업의 성장

- (신모빌리티) 핵심키워드: ①자율주행, ②IoT, ③전기차, ④MaaS, ⑤Personal Mobility, ⑥인공지능(AI), ⑦스마트 인프라, ⑧빅데이터, ⑨AR/VR
 - 교통분야에 ICT와 혁신기술이 융·복합되면서 수요자 관점에서 노선과 시간이 맞춤형으로 이루어져 이동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양상의 모빌리티 시대*
 - *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 '17년 4,400조 → '30년 8,700조원 규모까지 성장 전망(맥킨지, '19년)
 - * 무인택시, 공유차, 차량호출 시장: 약 3,275%('17년 80조 → '30년 2,700조원) 성장 전망
 - 자율차, 차량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UAM 등 미래 서비스 등장과 더불어 기존 서비스가 혁신기술을 만나 자동·플랫폼화되면서 이동 서비스 질도 개선



1.1.2 미래 신산업의 변화

» 반도체 산업 : 시장규모 확대

- 반도체 산업 내 밸류체인은 Design - Fabrication - Assembly, Packaging & Testing으로 구분되며, 반도체 제품은 크게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기타 소자(광소자·센서·개발소자 등)로 분류
- 국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4위 기업이 존재하여 반도체 산업에서 높은 역량 보유
 - 2023년 1분기 매출액 기준, 글로벌 D램 분야는 삼성전자 1위(42.8%), SK하이닉스 3위(24.7%), 글로벌 낸드플래시 분야는 삼성전자 1위(34.3%), SK하이닉스 4위(15.1%)의 시장점유율 기록
- 다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 및 향후 반도체 수요 분야를 고려할 때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 전략’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 육성 추진 중
 -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22년 기준 약 6,000억 달러(약 780조 원)로, 이중 메모리 비중은 23.88% 및 비메모리 비중은 76.12%로 집계
 - 이 분야에서 '22년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3.3%에 불과하여, 메모리 반도체 분야와 격차가 매우 큰 상황
 - 정부는 이에 '23년 3월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 전략’을 발표하고, ❶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❷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생태계 경쟁력 업그레이드, ❸ 차세대 반도체 대규모 핵심기술 개발 지원, ❹ 세제·재정, 우수인력 등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❺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해외 기술협력 및 수출 지원 등의 전략 수립
- 이외에도 국내 다수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 관련 기업이 대규모 반도체 생태계 형성함

[국가별 비메모리 매출액과 점유율, 한국기업별 매출액('22년 기준)]



자료 : Market Share: Semiconductors by End Market, Worldwide 기반 재구성, Gartner(2023. 3)

» 바이오 산업 : 성장속도 증가

- 바이오산업은 RED BIO(보건·의료), GREEN BIO(식량·자원), WHITE BIO(화학·에너지)로 구분되며,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속화가 예상
 - 바이오산업 시장은 연평균 10.1% 성장해 '19년 2,378억 달러에서 '28년에는 약 5,609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Adroit Market Research)
 - 바이오 산업은 과거 레드바이오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향후에는 화이트바이오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OECD: '30년 세계 바이오 시장에서 화이트바이오의 총 부가가치 비중을 레드, 그린바이오보다 높은 39%로 예측)

[레드·그린·화이트 바이오 시장 내 9가지 핵심시장 현황 및 전망]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① 바이오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 신약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을 주도, '17년부터 연평균 8.4%로 성장 ② 바이오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약품 개발 및 제조를 위한 제조·연구 수탁활동이 증가하면서 바이오 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12.8%로 성장 ③ 바이오 인포매틱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드 바이오 시장 중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연평균 성장률은 18.0%로 가장 높은 편 	④ 마이크로바이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시장으로 각광받아 연평균 8.7% 성장 중 ⑤ 대체식품·메디푸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자원 고갈 및 고령화에 따라 연평균 13.1% 성장 ⑥ 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드 분자 육종, 디지털 육종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연평균 9.5% 성장 ⑦ 동물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학적 제제 중심의 동물약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연평균 8.2% 성장 전망 	⑧ 바이오 연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바이오 에너지 생산량 '11년부터 연평균 6.5% 성장 국내 바이오 에너지 생산량 2011년부터 연평균 16.8% 성장 ⑨ 바이오 플라스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시장 성장률 '20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21.7% 성장

자료 : 레드·그린·화이트 바이오 시장의 부상과 기업의 대응 동향(삼성 KPMG Business Focus)

- 인천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세계 유수의 바이오 의약품 기업이 존재하고 바이오산업에서 뛰어난 성과와 혁신이 지속되고 있음
 - 인천 송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바이오 캠퍼스, SK바이오사이언스 R&PD센터 및 롯데바이오의 메가플랜트 구축 중
 -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의 생산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20년 말 88만 리터(미국 샌프란시스코 34만 리터, 싱가포르 21만 리터)를 기록한데 이어,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공장이 완전 가동을 시작하면서 100만 리터 돌파
 -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바이오 캠퍼스의 72만 리터, 롯데 바이오 캠퍼스의 36만 리터까지 더해지면 추가 생산 역량만 108만 리터로, 총 208만 리터의 생산 역량 확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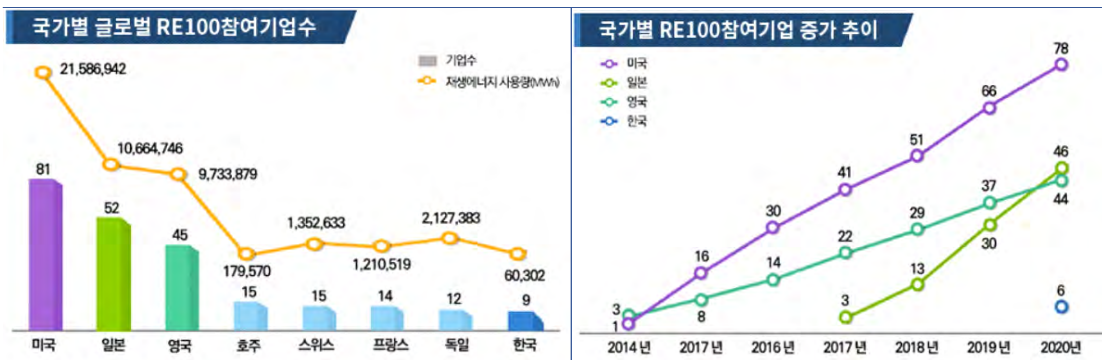


- 정부는 ‘첨단재생바이오 2025 발전전략, R&D 중장기 투자전략’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인천 또한 송도권역 바이오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관련 기관과 기업들의 유기적인 협력과 성장 도모
 - 정부는 2019년 8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첨단재생의료분야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 및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이 법에 근거하여 ‘첨단재생바이오 2025 발전전략(제1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21)’ 수립, ❶신뢰받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❷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치료접근성 확대, ❸혁신생태계 구축 등 3대 전략과제 발표

» RE100/CF100 :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한 참여

-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나 조직이 2050년까지 100%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 세계 RE100 참여기업은 421개사('23년 12월 현재)로 Google, Apple, MS, BMW, GM 등 주요 글로벌 기업과 국내 현대자동차, 기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등이 가입
 - RE100 참여기업은 2050년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하며, 연도별 목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되, 2030년에 60%, 2040년까지 90% 이상의 실적 달성을 권고(RE100 참여기업의 평균 재생에너지 100% 달성 목표연도는 2028년임)
 - RE100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이 있으며, 녹색 프리미엄·REC·자가발전·제3자/직접 PPA·지분투자 등의 방식을 통해 RE100 달성 가능
-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이행 선언으로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천 공항·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인천 소재 기업 또한 RE100 이행을 선언
 - 자체적인 에너지 소비뿐만 아니라, 거래관계가 있는 원료나 부품 제공기업에 대해서도 RE100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RE100 가입 기업 외에도 재생에너지 100% 달성이 필요한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
 - 이러한 환경변화는 재생에너지 공급이 용이한 지역에 글로벌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주요 기업들이 입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며, 재생에너지 공급 용이성이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이나 글로벌 기업 유치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

[국가별 RE100 참여 현황('21.7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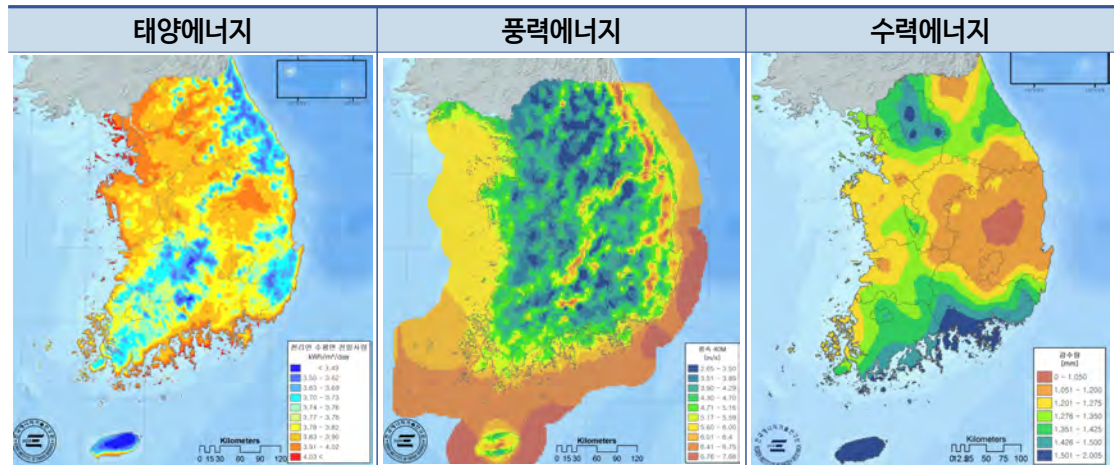
자료 : RE100 정보플랫폼(<https://k-re100.or.kr>)

- 정부는 RE100 이행을 선언한 기업들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 중
 - 정부는 REC 구매, PPA, 자가설치 같은 이행 수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가 이루어지면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운영 중
 - RE100 이행을 위해 중요한 점은 수요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전력 소비 상위 5개 기업의 전력소비량은 약 48TWh 이나, 동일기간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약 43TWh에 불과(2021년 기준)
- 반면 CF100은 Carbon Free 100%의 약자로 UN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뿐만아니라 원자력, 수소, 연료전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무탄소 전원을 100% 활용하는 것을 의미
 - 실시간 사용하는 전력을 모두 무탄소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RE100과 차이가 있으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RE100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장
 - 2018년 Google이 'Moving toward 24x7 Carbon-Free Energy at Google Data Center' 보고서를 통해 24시간 일주일 내내 무탄소 에너지만 사용하는 글로벌 무탄소 운동 24/7 CFE(무탄소에너지 실시간 수급)을 처음 발표하면서 등장하였으며 CF100 참여단체는 148여개('24년 5월 현재)로 MS, Google 등의 기업이 참여
-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후 및 지형조건 등으로 인해 일조량, 풍량, 수량 등이 부족하여 RE100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여건을 가지고 있음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20년 7월에 국가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연구 데이터를 공개하였으며 태양에너지(일사량), 풍력에너지(풍속), 수력에너지(강수량) 등의 에너지 데이터를 공개



- 일부 지역은 재생에너지 생산이 양호한 여건을 보이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계절변화, 장마 등 기후여건이 불리해 지속적인 에너지 생산에 어려움 예상

[재생에너지 자원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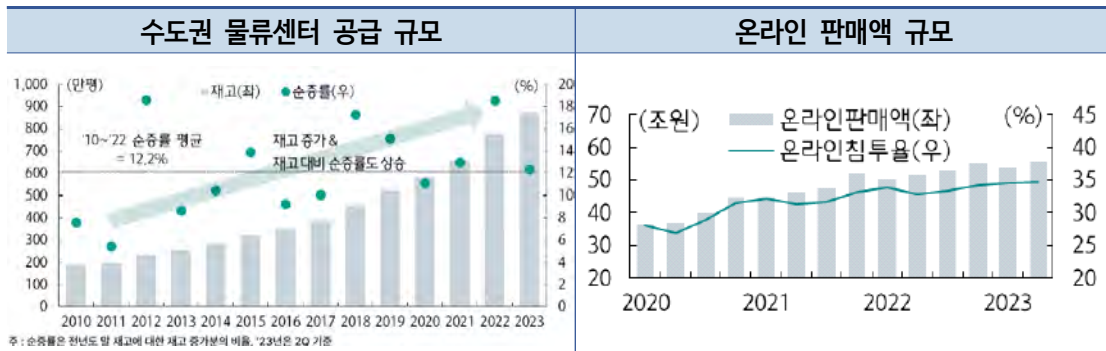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er.re.kr/main>)

- 따라서 글로벌 여건과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하여 RE100과 CF100을 선택적으로 참여 필요
- 재생에너지 100% 사용, 무탄소에너지 100%사용에서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목적을 가짐

» 물류 산업 : 도심형 물류센터, 온라인 기반 스마트 물류공급망 구축 필요성 증가

- 물류업은 화물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서비스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화물운송업은 육상·해상·항공운송으로 상세 분류 가능
- 물류시설 운영업은 창고업·화물 터미널 운영업으로 분류되며, 물류서비스업은 화물취급주선업·임대통관업 등으로 구분 가능
- 최근 물류산업은 스마트·친환경·신속·안전 기반의 물류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커머스 시장 확대 등이 물류산업 성장을 견인 중
-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가 핵심 키워드로 대두되었으며, 이전 대비 국제운송이나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
- 또한, '18~'22년의 온라인쇼핑 판매액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과거 지방 중심 대규모 물류센터에서 도심형 물류센터로 변화하고 있으며, 물류처리 효율성, 공간 활용 극대화 및 라스트 마일 등을 위해 공유플랫폼이나 AI 등의 신기술 활용 확대

[수도권 물류센터 공급 규모 및 국내 온라인 판매액 추이]



자료 : 국내 물류시장 동향 및 전망(하나금융연구소, '23. 9.)

-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외의 관문 인천항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에서 물류산업은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주요 산업이자 연관 산업으로 확장이 용이한 산업에 해당
 - 인천항은 2023년 역대 최대 물동량인 약 346만TEU를 처리했으며, 인천국제공항도 2021년에 약 300백만톤을 돌파하여 국제항공물동량 순위 2위를 유지함
- 인천은 '제4차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통해 '디지털 물류 선도, 글로벌 물류 성장 엔진 인천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디지털 및 친환경 물류 사업 등에 약 1,360억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임
 - 인천시는 '제4차 지역물류 기본계획('23)'에서 ❶단절 없는 물류거점 및 연계 체계 구축, ❷스마트 기반 디지털 물류체계 구축, ❸생활밀착형 물류체계 구축, ❹지속가능한 물류산업 육성, ❺인천 특화형 물류산업 육성 등 5대 추진전략을 제시

» 관광 산업 : K콘텐츠, 자연, 건강헬스 관련 관광수요 증가

- 관광 산업은 타 산업 대비 부가가치창출 수준이 높고, 숙박, 음식, 교통, 문화, 쇼핑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 산업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 산업에 해당
- 코로나 이전 :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5.7% 수준인 데 반해, 대표적인 관광 관련 산업인 골프장은 26.3%, 테마파크는 18.5%, 카지노는 12.6%, 특급 호텔은 7.8%로 대부분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 기록(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년)
 - 관광산업 취업유발계수가 21.7명으로 전 산업 평균 12.6명보다 월등히 높으며(2013년 기준),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5~2015년 중간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직업군 대부분이 일자리가 크게 줄었지만 호텔과 레스토랑 등 관광 관련 분야는 오히려 빠르게 성장해 고용 증가율이 해당 기간 동안 45% 가까이 증가



- 코로나 이후 :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던 관광산업은 엔데믹 이후 코로나 이전으로 빠르게 회복 중이며, 수도권 중심의 K콘텐츠와 자연관광 추세가 확대되고 있어 인천이 해외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
- 2023년 연간 외래관광객수는 약 1,103만명을 기록했으며, 2023년 12월 외래관광객은 104만명을 기록하여 코로나 이전 대비 71%까지 회복
- K-Pop, 한식, K콘텐츠 등 한류의 영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힐링, 치유 등 자연자원 중심의 관광수요 증대

[2023년 월별 외래관광객 추이]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s://know.tour.go.kr/>)

- 인천은 근거리·단기간 관광을 선호하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써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인천관광진흥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인천시는 '20년 10월 '인천관광발전계획'을 발표하고, ①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②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발굴, ③인천관광 브랜드 마케팅 강화, ④관광객 친화 환경조성, ⑤지속가능한 관광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 또한, 효과적 전략이행을 위한 5대 선도사업으로 ①핵심관광명소 육성, ②시민 관광 육성, ③뉴노멀 시대 콘텐츠 강화, ④관광산업 재건 및 생태계 구축, ⑤데이터 기반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을 제시

» 수소에너지 산업

- 수소에너지 밸류체인은 수소생산 및 도입, 유통·수송 및 사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향후 수소시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 수소에너지는 산업·전력·교통 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한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로 주목을 받으며 급성장 중
- 정부는 2022년, 수소경제 활성화 3대 전략으로 ①발전·수송 생태계 성장을 위한 대규모 수요 창출, ②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을 위한 인프라·제도 구축, ③수소산업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 육성 제시

- 특히, 2030년 청정수소 발전 비중을 7.1%까지 증가시키는 계획에 따라 2030년에 약 30만톤의 수소(수소혼소)와 300만톤의 암모니아(암모니아 혼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수소차는 2030년 약 30만대(승용차 18만대, 상용차 12만대)를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매보조금 확대나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마련
- 인천은 SK인천석유화학·인천 LNG 항만 등 수소 관련 기업과 생산시설, 수출입 인프라가 많아 수소에너지 산업의 성장여건을 보유하고 있음
 - 인천항은 수소에너지 소비가 많은 수도권 항만으로써 향후 수소·암모니아 도입을 위한 지역으로 적극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 인천에는 인천 신항 LNG 인수기지 뿐만 아니라, E1 가스터미널 등 향후 수소암모니아 도입기지로 활용 가능한 항만지역 다수 존재
 - 또한,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의 LNG복합발전소가 다수 위치해 있고, 수소·암모니아의 대량 소비처도 입지
-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현대자동차, SK E&S, 플러그파워와 ‘수소 대중교통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22년 3월)하고, 2030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겠다는 계획 발표
 - 인천시는 2030년까지 인천시 시내버스 약 2천대를 모두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며, 2024년까지 수소버스 700대를 우선 보급할 예정
 - 국내 기업인 ‘SK E&S’와 미국의 연료전지 제조업체인 ‘플러그 파워’는 수소 충전소 구축·운영 역할을 확대할 계획
 - 환경부는 액화수소 설비(플랜트) 가동을 고려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액화 수소충전소 시범 구축운영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

[수소경제 활성화 목표]



자료 :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산업통상자원부, '22.11.)



1.1.3 국내여건의 변화

가. 사회·경제적 측면의 변화

» 인구·지역 격차 : 혁신적 해법이 필요

- (저출산·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이 지속되어 '25년에는 전체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비율이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천도 예외가 아님
 - * '22년 합계출산율 0.78명(OECD 국가 중 최하위) → '24년 0.68명 추계(통계청)
-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34.5%('22년 현재)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소멸*, 고립감 증대 등 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창의적 정책 요구
 - * 법정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85개 비수도권, 수도권에 총인구 절반 이상 거주
- (지역격차) 세대·소득·교육 격차가 여전하고 지역 간 격차 심화로 일부 침체지역의 경우 자생력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인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연수구·서구와 원도심인 중·동구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한류 : 문화의 상품화로 도시 정체성 강화

- (생성형 인공지능) 상용화 단계 진입, AI시대 주도권 경쟁 가속화로 예술, 콘텐츠 제작의 개념과 과정, 서비스 등에 광범위한 변화 예고
 - * AI시장 규모 전망치('24년) : 글로벌 5,543억 달러, 국내 3조 662억원 규모로 성장 예상(삼성SDS 인사이트리포트, '23.8.)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 문화, 신기술 융합 콘텐츠 지원 확대 필요
- (글로벌 문화플랫폼) 영화·공연 등 K-콘텐츠 세계화가 음식, 한글, 문화, 한국에 대한 관심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임
 - 한류의 산업화 관점에서 콘텐츠 다양화, 타 산업과의 융복합, 지식재산권 등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

» 섬·해양공간 : 선제적 투자를 통한 자원화 필요

- (어촌소멸) 도시와 농촌에 비해 낮은 소득과 한정된 일자리, 부족한 생활서비스 등으로 섬·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 심화
 - * 인구 증감률('15년 대비 '21년) : 전체 1.0%, 농가 △7.3%, 어가 △26.9%
- (해양·해변) 세계관광기구(UNWTO)가 선정한 '미래 10대 관광 트렌드*'의 대부분이 해양이나 해변에서 활성화될 레저 및 관광활동과 관련되며, 미래 국제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새로운 기능으로 검토 필요
 - * 해변, 크루즈, 도서, 생태, 농·어촌, 스포츠, 문화, 모험, 테마파크, 국제회의

» 관광 : 뉴 노멀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 6가지 확산

- (로컬의 시대) 지역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자원과 콘텐츠를 선호하는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로컬 힙(Local Hip)’이라는 용어 등이 사용됨
 - 관광객들의 지역상품 구매가 지역경제를 선순환하고 인천의 글로벌 도시화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잠재력이 높은 옹진군 내 군도 등 매력적인 자원 발굴 및 상품화가 필수적
- (K-컬처) 드라마, K-Pop 등 한류가 한국 문화와 관광을 대표하는 분야로 세계적 위상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문화·관광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음
 - 한류 관광의 미래가치를 고려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천의 국제관문(인천공항, 인천항)과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입할 필요성이 있음
- (양극화) 엔데믹 이후 보상여행이 증가하면서 여행형태가 해외와 근거리 여행으로 양극화되고 있어 인천이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해양관광을 전개할 수 있으며, 소비 측면에서도 럭셔리 여행과 가성비 여행상품 등 다변화 현상을 보임
 - 소그룹 여행과 혼자 하는 여행이 정착하면서 개인별 맞춤 여행을 선호하게 되었고, 미식관광, 야간관광, 캠핑과 차박 등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
- (워케이션) ‘일과 여가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워라벨’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기기 이용으로 장소 제약이 사라져 젊은층을 중심으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로 대표되는 ‘워케이션’ 관광시장이 급성장
 -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IT기업을 중심으로 일과 여가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확산되고 있어 옹진권역의 새로운 테마로 등장
- (치유여행) 자연을 기반으로 심신 건강과 행복의 가치를 중시하는 힐링여행과 웰니스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산업도 급성장
 - 웰니스 개념이 ‘스파’와 ‘명상’에서 ‘자연치유’로 확장되면서 숲캉스, 팜캉스, 해양치유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웰니스 관광지, 해양수산부의 해양치유지구 등이 추진 중임
- (생활밀착형 관광) 인파와 교통체증 대신 거주지 인근의 좋은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어반힐링(Urban Healing)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관광시장도 학생 중심의 교육체험에서 직장인과 가족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생활밀착형 관광이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천시민을 고려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천만의 지역 정체성(identity)를 구축하기 위한 색상, 디자인 등의 요소를 발굴하여 매력적인 공간으로 전환하여야 함



나. '초일류도시 인천' 관련 정부 정책*의 변화

* 각 부처 업무보고('24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국토교통부, '20)'을 참조하여 작성

» 신산업 :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바이오, 반도체, 탄소중립 등)

- (첨단바이오) 첨단바이오 강점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합성생물학 핵심기술을 개발하며,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사업 등을 추진(2025~2029년)
 -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국제공동 바이오R&D 프로그램' 등 바이오 선진국과의 글로벌 협력 확대
 - 의과학자 육성을 위해 (가칭)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추진
- (차세대반도체) AI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차세대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해 투자 확대 및 반도체 선진국과 국제협력 강화
 - AI반도체 : ①국산 저전력·고성능 AI반도체로 데이터센터 구축, ②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실증, ③관련 HW·SW 고도화 등 K-클라우드 생태계 본격 가동
 - 화합물반도체 : 산·학·연 R&D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주/국방·통신·전력·센서 등 4대 전략분야에서 선도적인 성과창출을 지원
 - 첨단패키징 : 3D 적층, 이종접합, 미세피치 공정, 차세대 인터포저, 고밀도 기판 등 첨단 패키징 원천기술 추진 및 관련 인프라 지원
- (탄소중립) R&D 단계부터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술지원단을 구성하고 탄소감축 실증 프로젝트 추진
 - 수소 : 개별 연구기관을 잇는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운영하여 국가 R&D 역량 결집을 통한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추진
 - 디지털 탄소중립 : 디지털 인프라 저전력화*, 6개 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인프라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사회 촉진 등 지속가능 성장 기반 조성
 - * 저전력 기지국 구현을 위한 AI 알고리즘 개발 및 국산 AI반도체 적용 등
 - ** 6대 분야 : 에너지, 수송, 건물, 농·축·수산, 자원순환, 국민생활 탄소배출
- (글로벌 R&D허브 조성)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기관과 국내 대학·연구소 간 공동 연구 및 인력교류 사업 추진
 - 3대 특례 : ①성공·실패 평가등급 폐지(심층적인 정성평가 병행, 3월), ②혁신 도전형 R&D 예타면제 적극검토, ③연구장비 조달특례(약 120일 → 약 50일)
 - R&D혁신3법 제·개정 추진 : ①한국형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미국 국방고등연구기획국) 기반구축, ②이공계 우수인재 육성 강화, ③국제협력R&D 기반조성

» 국토계획: 혁신과 포용, 미래 환경의 수용

- (지역주도 혁신성장) 분권화 기조에 따라 향후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사업은 지역 주도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 ①지자체 : 다부처묶음사업 기획→ ②부처-지자체: 협의·조정→ ③수평적 협약체결
- (신산업공간) 혁신거점 연계와 신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거점 육성
 - 신산업거점 :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여 산·학·연 협력 플랫폼의 구심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혁신공간 조성 및 이전 공공기관 협력 유도
 - 캠퍼스혁신파크 : 도심·대학을 신산업 입지와 창업, 일자리 창출 거점화
- (미래형 교통체계) 2027년 주요도로에서 자율차가 상용화(Level 4*)될 수 있도록 법·제도와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정비
 - * 지정된 조건에서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운행이 가능한 조건부 완전 자율차
 - 자율주행을 위해 통신시설, 정밀지도, 관제시설 등 인프라를 주요도로에 구축
- (접경·도서지역) 접경지역과 도서의 특수성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포용적 균형발전 유도
 - 접경지역: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생활SOC 확충, 주민주도 소득창출 등
 - 도서지역: 관광활성화, 섬의 가치 제고, 교통개선, 주민정주여건 개선 등

» 문화·관광: 연관업종과의 융·복합, 주변 기능과의 연계

- (융복합 관광) 문화·관광과 산업의 연계를 통해 목적지향형 관광상품 개발과 이를 통한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및 파급효과 극대화
 - 뷰티의료+관광 : K-뷰티·패션·의료 융합 대규모 페스티벌 개최, 치유관광지 확대 등 치유·의료관광 육성
 - 국제회의+관광 : 대표 융·복합 국제회의 육성지원, 지역 이색회의명소 활용 컨설팅 지원 등으로 국제회의 유치·개최 활성화
-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예술), 쉴거리(리조트), 먹거리 등 다양한 융·복합 해양 콘텐츠를 원스톱 제공하는 지역거점 조성*
 - * “기반시설(정부) → 관광·숙박·쇼핑시설(민간) → 도시 확대”의 선순환으로 도시 자생력 확보
 - K-마리나 루트 : 주요 연안에 해양레저를 지원하는 대규모 마리나를 확충하고, 도서지역에 바다역(驛)을 구축하여 마리나 루트 형성
 - 해양산업 연계 : 마리나비즈센터(예: 부산 해양산업클러스터 내)를 코어로 한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도시와 기업의 동반 성장 유도



1.2 인천의 입지경쟁력

1.2.1 국제적 관문기능 보유

» 물류산업 성장 잠재력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신항이 있는 물류거점도시 인천은 국가 수출입 물류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치적 이점과 기반을 활용하여 물류 산업 발전 촉진 가능
- 인천은 아시아와 미주/유럽을 연계하는 물류 허브 역할에 적합한 도시로서 글로벌 기업의 입지요건 충족
- 또한, 인천은 Sea & Air 모델을 효과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도시임
 - 예) 인천공항을 통해 유럽이나 미주에서 제품을 수입하고, 인천항을 통해 이 제품이나 가공품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Sea & Air 형태의 물류가 가능

» 반도체 수출 용이성

- 인천에는 국제공항이 위치해 있어 항공화물 운송에 유리하며, 특히 인천의 항공 화물 운송이 반도체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중요한 경제적 이점 제공
 - 반도체의 경우 2021년 기준 전체 국내 수출액 중 20%에 해당하는 1,280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였으며, 인천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1위 수출 품목
- 국내 항공 화물 운송은 대부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이루어지며, 반도체는 대부분 항공운송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물량은 대부분 인천을 통해 수출

» 높은 관광객 접근성

- 인천은 외국인의 국내 방문 시 처음과 끝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다른 국가로 가는 중간 경유지로 활용되는 경우도 다수. 따라서 인천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더라도 1박 2일 정도의 스톱오버 수요 창출 가능
 - 외국인 국내 방문장소는 서울(81.8%), 인천(6.2%), 새로운 관광거점 육성필요
 - 코로나19 사태 이전 2019년 인천방문 외국인 관광객 140만명, 외국인 의료 관광객수 2.5만명, 2024년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 예상
- 인천은 국내 방한 관광객 1위 국가인 중국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중국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로 더욱 부상할 수 있음
 - 인천공항은 풍부한 국제 노선을 고려하였을 때, 국제회의나 전시회 등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는 데 유리한 여건 보유

» 서울과 수도권 교통접근성 향상, 소비시장과 산업단지 공존

- GTX-B(착수), GTX-D(진행 중), 인천발 KTX(공사 중) 등 교통인프라 확충 예정
- 인천은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한 수도권과 제1, 2, 3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어 교통 편의성을 제공(인천항 배후에 290개의 산업단지 입지)
 - 서울과 수도권은 국내 핵심 소비시장이자 경제 중심지로서, 상품과 서비스 활동의 중요성이 높은 지역이며, 산업산출액은 국내 전체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어, 인천의 성장에 있어서 서울과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인천이 향후 수소 등 미래에너지 생산 거점이 되는 경우, 다수의 수도권 산업단지와의 인접성을 활용하여 RE100/CF100을 이행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에도 이점 제공 가능

1.2.2 미래신산업 성장잠재력 확보

» 반도체 산업, 소부장기업 생태계 형성

- 인천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연계된 지역으로, 세계 2위 기업인 애플테크놀로지 코리아, 3위인 스태츠칩팩코리아, 글로벌 장비 기업인 한미반도체를 포함한 1,200개 이상의 반도체 기업이 인천에 입주
 - 후공정 반도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음
- 송도권역 등에 위치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반도체 생태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크레셈, 탑에이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소부장 제조에 특화된 기업들 존재
- 인천은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기존 반도체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

» 바이오 클러스터,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성장 가능

- 인천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송도지역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어 관련 기업 집적화가 가능하며, 국내 기업들의 공장 증설 및 합류 계획으로 클러스터 확장 예상
 - 삼성바이오로직스, 역대 최대 규모로 1-4공장 가동 중
 - 셀트리온, 20만 리터 규모의 4공장 건설 계획 중
 - SK바이오사이언스, 2025년에 송도 합류 예정
 - 롯데바이오로직스, 2030년까지 메가플랜트 3개 구축



» 송도지역 대형병원 활용, 바이오 기업 및 인프라 구축·예정

- 송도지역에는 대형 규모의 병원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의료 연구와 개발, 바이오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바이오 성장 지원 가능
- 특히, 송도지역에 집적한 바이오 기업, 국내외 대학, 연구소, 제약사, 바이오 기업들과 연계하여 산·학·연·병 협력 시너지 모델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바이오 분야에서의 혁신과 발전 촉진 가능

» 다양한 물류 관련 기업 입지, 물류거점으로 성장 가능

- 다양한 물류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인천을 중심으로 물류 서비스 및 운송 활동을 수행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
 - 인천항 및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만 터미널 운영사업자, 항만 하역회사, 물류창고업자, 공항 터미널 운영사업자, 조업사, 3PL/4PL 업체 등 입지
 - 인천에는 물류 서비스뿐만 아니라 물류 장비 및 시스템 등과 관련된 기업들도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이러한 기업들은 물류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물류 산업 발전에 기여

1.2.3 신재생에너지, RE100/CF100,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 예정

» 태양광 및 해상풍력 발전산업 육성에 유리한 여건

- 인천은 태양광 및 해상풍력 발전산업 분야에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로 주목받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혁신과 인프라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
- 인천은 인천공항 내 태양광 발전단지를 구축하고 시 차원에서 관공서와 주택 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는 중
- 또한, 해안선 및 다수의 섬을 보유하고 있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강화에 주력 가능

» 다수의 항만 및 LNG 인수기지 보유

- 인천은 수소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도시로써 수소경제 확대와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필수적인 역할 수행 가능
 - 다수의 항만과 LNG 인수기지를 보유하고 있어, 수소 암모니아를 활용한 발전과 연료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가능

- 이와 같은 인프라는 해외에서 수소를 수입하거나 현지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수도권 지역의 산업 단지로 대량의 수소를 공급하는 데 활용 가능

» 수소연료전지 연구생산시설 구축 예정

- 인천은 수소연료전지 연구 생산 시설을 구축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와 같은 계획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수소 분야의 경제적, 기술적 발전을 실현할 것으로 판단
- 현대모비스가 1조 원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연구 및 생산 시설을 인천 청라에 구축할 예정
-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해당 부지에 대한 ‘수소연료전지 연구생산시설 투자유치 계획’을 마련하여 수소에너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지원 도모

» 화력발전소 기반 부생수소 활용

- 인천에는 화력발전소 기반 부생수소 생산 생태계가 형성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소에너지 산업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서구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연관 기업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음
 - 이를 기반으로 연관 기업은 연간 최대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액화수소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이며, 플랜트 시설이 완공되면 SK인천석유화학에서 발생하는 혼합가스에서 수소를 분리·정제한 부생수소를 생산할 예정임

» 청라 수도권매립지 바이오가스 활용

- 수도권매립지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신규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가능
 - 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대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 이와 연계된 신규사업 기회 창출 가능
 -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전력을 공급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효과 창출 가능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전경



1.2.4 다양한 역사·문화·관광자원, 대규모 문화관광 인프라 보유

» 관광자원

- 인천은 168개 보물섬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관광 산업에 적합한 지역
 - 코로나19 이후, 자연환경과 개별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안과 도서지역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써 부상하고 있음
- 또한, 인천에는 아직 개발 수준이 낮은 강화도, 석모도 등 잠재력 높은 관광자원이 다수 존재하며, 이러한 지역들은 앞으로 관광 산업의 발전과 확대를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 가능

» 역사·문화 관광인프라

- 인천은 서울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다는 이점과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관광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 서울 및 수도권과의 높은 접근성으로, 인천은 당일 여행 또는 1박2일 여행에 적합한 지역, 특히 1박 이상 국내 여행이 감소하는 현재 추이를 고려할 때, 인천은 국민의 국내 여행 스타일 변화에 적합하며, 짧은 기간에도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장소 다수 보유
 - 또한, 인천은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장소, 다양한 먹거리, 우수한 교통 여건 등 준수한 수준의 관광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편의성과 다양한 활동 옵션을 제공하여 관광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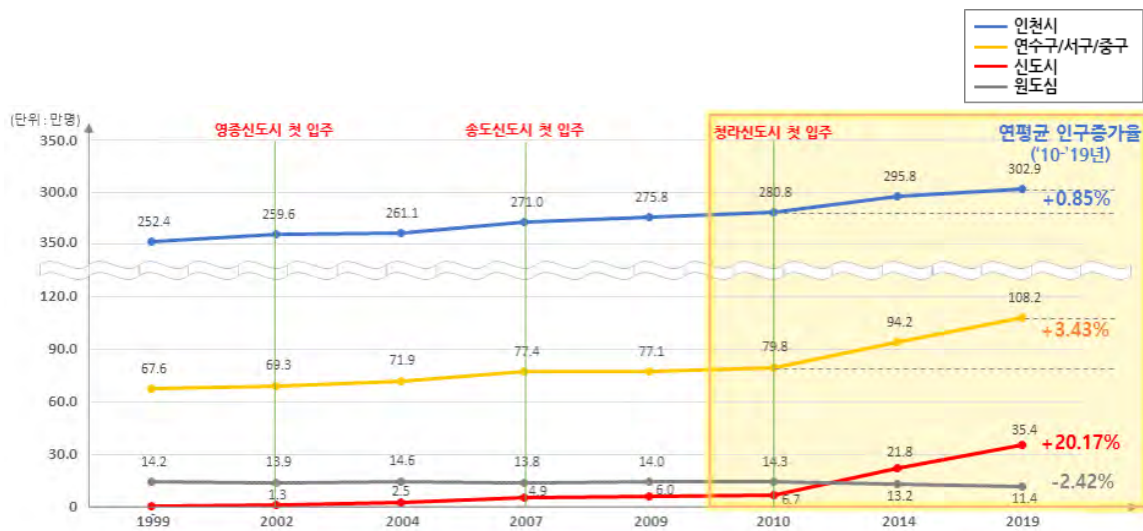
» 대규모 문화관광시설 개발 프로젝트 추진 중

- 인천은 대규모 문화관광 시설 개발 프로젝트(인스파이어 리조트 복합개발사업 등)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많은 관광객 유입 예상
 - 인천 내항 재개발, 스타필드 청라, 영종 주요 지역 개발(한상드림아일랜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문화관광 시설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로 인하여 연계 관광 수요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 수요를 담기 위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매력적인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관광객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콘텐츠를 확충할 필요성이 있음

1.2.5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위상

» 경쟁력 지표

- (고용자 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연평균 4.6% 증가(2017년 80,728명 → 2021년 96,641명 : ‘부산진해’ 고용자의 1.7배), 고용자 수 중 송도 비중 64.1%(61,922명)
 - 외국인투자 : IFEZ 외투기업의 연평균 16.2% 증가(2017년 1,299개 → 2021년 2,369개, ‘부산진해’는 6.6%), 투자액 연평균 8.3% 증가(2017년 277천억원 → 2021년 381.4천억원, ‘부산진해’는 -5.9%) 증가
- (FDI 신고액) 송도국제도시 연평균 20.8% 증가(2013년 1,834백만\$ → 2022년 8,293백만\$), IFEZ 연평균 14.0% 증가(’13년 5,054백만\$ → 2022년 14,424백만\$)
 - 특화산업 : 송도(LQ: 바이오 19.9, 스마트제조업 1.7, 지식관광서비스업 2.7)
- (R&D인력) IFEZ 연평균 9.0% 증가(2017년 4,670명 → 2021년 6,559명: ‘부산진해’ 인력의 4.4배)
- (인구 수) ’10년 이후 원도심 인구감소(연평균 -2.42%)에도 불구하고, IFEZ에서 창출하는 일자리와 양질의 정주환경으로 인해 인천시 인구 증가추이 유지(연평균 0.85%)



[인천시 인구변화 추이]

- ①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대비 높은 성과*, ②외투 유치실적은 높으나, ’17년 이후 증가율 감소, ③대형 잔여블록 재고감소, ④신산업을 보완할 새로운 성장동력 필요

* ’19년부터 FEZ성과평가(산자부)에서 S등급,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클러스터로 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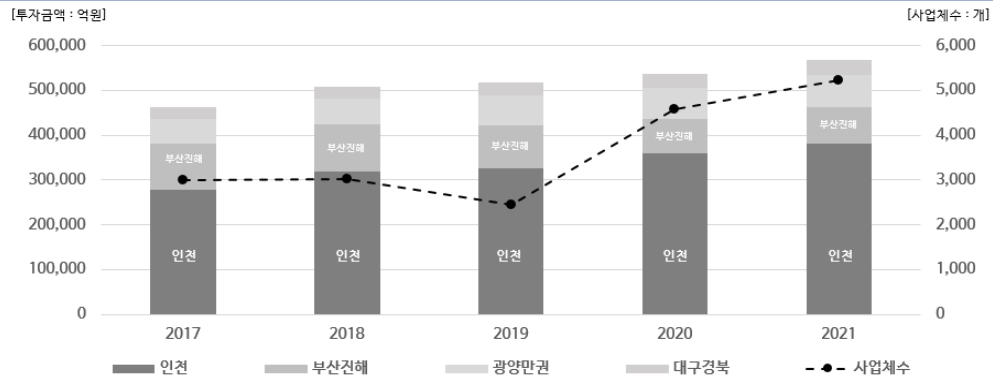


» 투자유치

- 전국 경제자유구역의 투자규모는 2017년 46조원에서 2021년 58조원으로 약 25% 증가하였으며 전체 투자금액 중 인천시의 비중은 60%에서 65%로 상승함

[경제자유구역 투자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투자금액 (억원)	전체	464,929	509,572	518,923	549,013	583,876
	인천	277,001	319,781	324,953	359,077	381,449



자료 : 투자유치현황(KOSIS 국가통계포털)

» 6·8공구

- (INEX) 랜드마크타워(103층), 테마파크, 주거·상업, 골프장(18홀)
 - － 우선협상대상자 (주)블루코어PFV가 「경제자유구역법」 상 인·허가 진행 중*
 - * 부지 1,281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기본협약 체결('23.5)
 - － 주변 잔여부지 : ①6·8공구: 대부분 주거용지(R2블록, 주상복합 일부 포함), ②1공구: 미조성 상태의 대규모 상업용지
 - (입지적 상징성) '국제도시 송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부지
 - － 기타부지: 신산업·물류(2·4, 5·7, 9, 10, 11공구), 시가지(4공구), 국제업무·복합단지·대학(1·3, 7공구)
 - (성장 메카니즘) 지역성장을 이끌어온 신산업의 지속적 확대(파운드리 포함)가 초래할 '수확체감'에 대응하기 위해, 6·8공구를 신성장공간으로 인식해야 함
 - － INEX: 도시성장을 이끄는 3요소(테크놀로지, 인재, 아이디어)를 갖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
- ☞ ①송도의 대표적 랜드마크 기대, ②2017년 이후 외국인투자 및 고용효과 침체를 되살릴 동력 역할 기대, ③신규수요 창출 시 1공구 잔여블록 활성화 기대(과잉공급 시 1공구 잔여블록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

2 개발가능지 분석

2.1 분석방법과 절차

2.1.1 권역 내 IFEZ 포함 시 분석방법(영종권역, 송도권역, 청라권역)

» Step1) 가용토지(국·공유지) 검토

- (검토방향) 국·공유지 중 사용가능 부지를 선정(규제지역 및 개발완료지역 제외)
 - 규제지역 : 도시계획시설 등 기반시설 부지, 보전산지, 문화재보호구역 등
 - 개발완료 : 건축물 조성 완료 또는 건축물 조성 예정 부지

» Step2) 관련계획 검토

- (검토방향) 관련계획 상 전략산업 도입이 가능한 부지를 선정
- (검토내용1) 경제자유구역계획
 - Step1의 사용가능한 부지 중 전략산업 도입이 불가능*한 부지 제외
 - 개발예정지** 중 전략산업 도입이 불가능한 부지 제외
 - * 토지이용계획 상 주거(단독, 공동주택 등)기능, 상업(주상복합 포함)기능 등
 - ** 지번이 없으며, 조성 중이거나 부지조성 계획이 수립된 부지
 - 경제자유구역 해제 부지 추가
 - 공공기관(인천항만공사, 인천공항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소유토지 검토 보완 필요
- (검토내용2) 항만관련 계획 등
 - Step1의 사용가능한 부지 중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기본시설* 제외
 - 개발예정지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개발이 예정된 부지 제외
 - 개발예정지 중 기본시설로 사용계획인 부지 제외
 - * 수역시설(항로, 정박지 등), 외곽시설(방파제, 호안 등), 임항교통시설(도로, 교량 등), 계류시설(안벽, 부두, 잔교 등)

» Step3) 개발가능지 설정 및 이용가능 시기 검토

- Step 1·2 중첩을 통해 개발가능지 설정
- 관련계획 등 검토를 통한 개발가능지의 이용가능시기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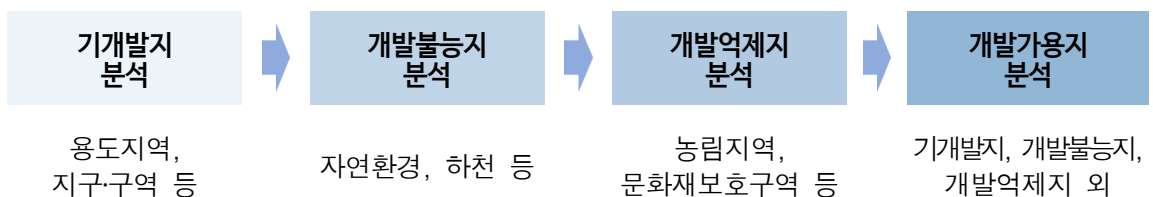
2.1.2 권역 내 IFEZ 미포함 시 분석방법(강화·옹진권역)

» Step1)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개발불능지) 검토

-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사전에 개발가능지에서 우선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 개발 도모
 - 개발 불능지 : 토지 특성상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개발 대상지에서 제외하여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적 개발 도모

» Step2) 개발가능지 토지특성 검토, 유형구분

-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토지의 특성을 파악하여 토지의 적정용도 부여 및 개발 방향 설정, 개발사업에 대한 시설의 적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강화권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여 기개발지, 개발억제지, 개발가능지로 구분한 후 중첩 분석을 통해 추출
 - 개발가능지 : 현재 토지이용 상 개발이 완료된 지역과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을 제외한 지역
 - 개발 억제지 :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 기개발지, 개발불능지, 개발억제지를 제외한 개발가용지를 소유자 별로 구분



[개발가용지 분석기준]

기개발지	지구, 구역 등	•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사업구역 등
	도시계획시설	•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개발불능지	자연환경	• 하천 및 소하천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지, 임상도 5등급이상 지역
	표고·경사	• 표고 65m 미만 (도시지역) • 경사 17도 미만 (도시지역), 20도 미만 (도시지역 외)
개발억제지	보호·제한지역	•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2.2.1 영종권역

○ (개요) 영종권역 내에서 장래 활용이 가능한 개발가능지*는 「경제자유구역법」, 「항만법」을 적용받는 지역과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및 기타 지역으로 총 4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개발가능지) 약 11,111천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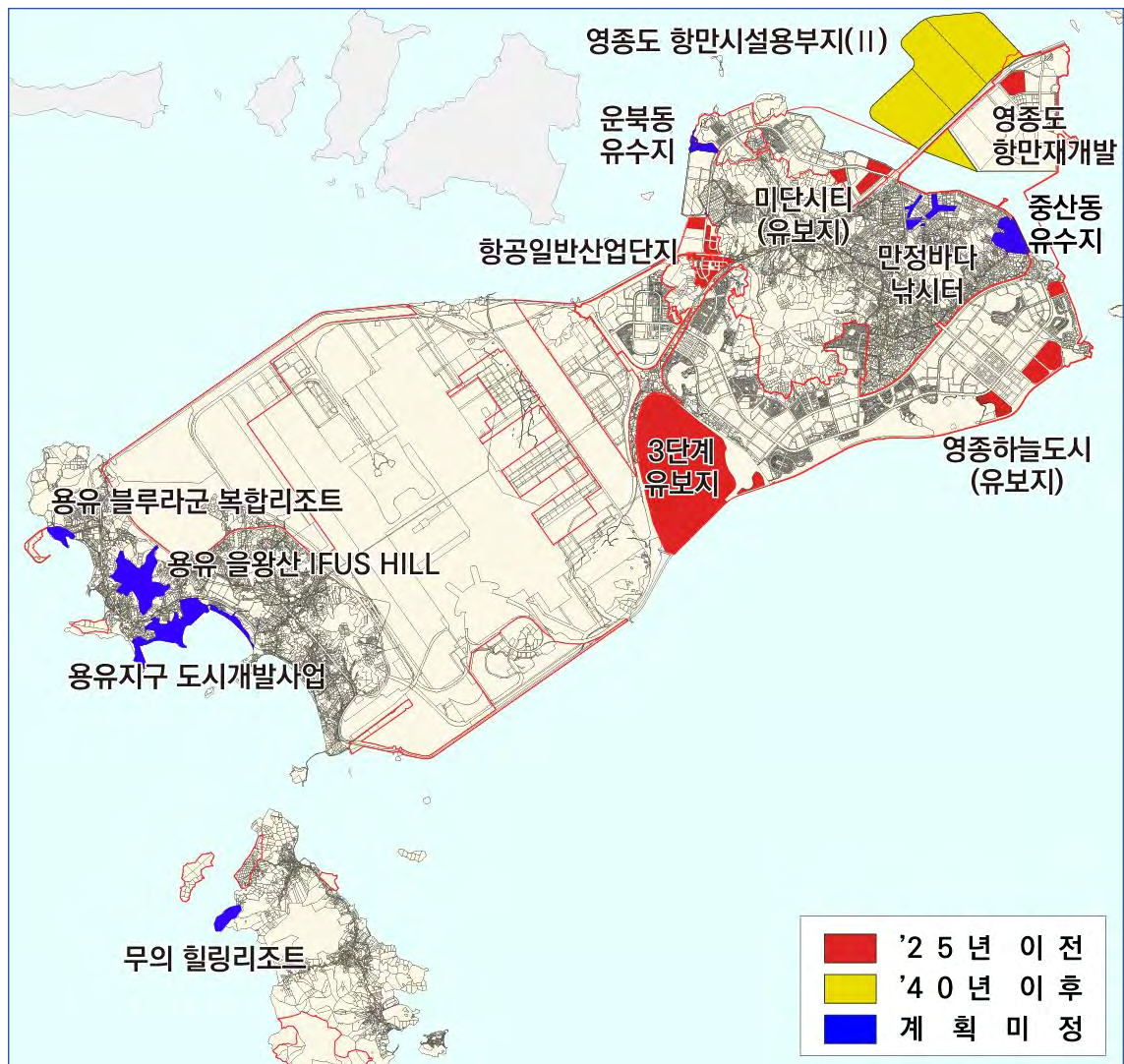
-

32



» 개발가능지에 대한 이용가능 시기 검토

- (2025년 이전) 송도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용지 및 유보지, 영종하늘도시 3단계 유보지, 영종도항만재개발(교육문화지구)
- (2040년 이후) 영종도 항만시설용부지(II)
- (계획 미정) 경제자유구역 해제 지역(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 을왕산 IFUS HILL, 블루라군 복합리조트, 무의힐링 리조트), 국·공유지(운북동·중산동 유수지, 만정바다 낚시터)



[영종권역 이용가능시기]

2.2.2 송도권역

» 개발가능지 설정

○ (개요) 송도권역 개발가능지*는 「경제자유구역법」과 「항만법」을 동시 적용받는 지역과 개별 법령을 각각 적용받는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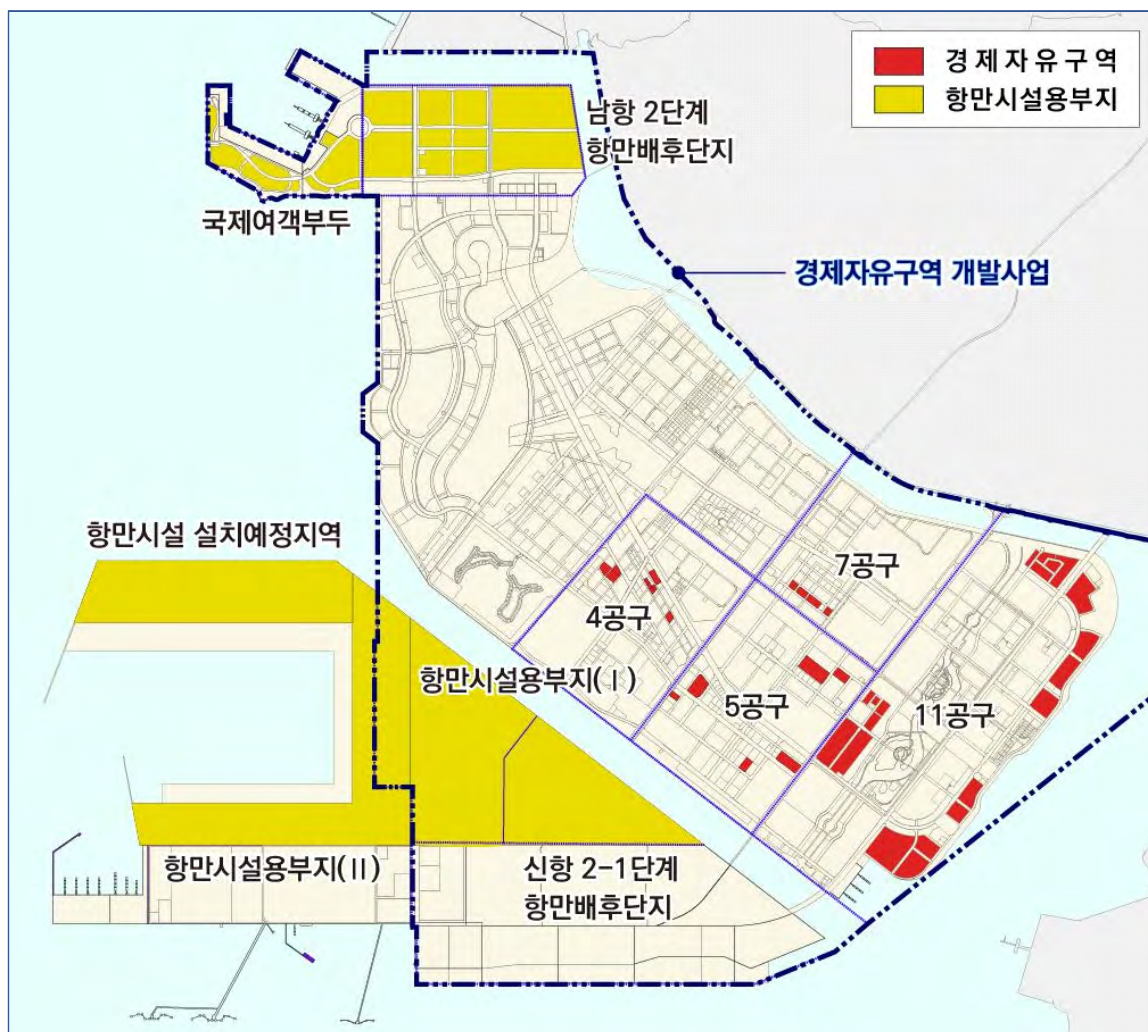
* 토지소유권 및 관련계획 검토를 통해 개발이 가능한 부지 선정

** 'Step 2) 관련계획 검토'는 '2.4 관련계획 및 법·제도' 검토에서 시행한 결과 활용

○ (개발가능지) 약 11,289천㎡

－ 개발가능지는 경제자유구역(4,5,7,11공구) 약 1,090천㎡와 항만구역(항만시설용부지 등) 약 10,199천㎡로 구성

－ 남항 2단계 항만배후단지, 항만시설용부지(Ⅰ), 항만시설용부지(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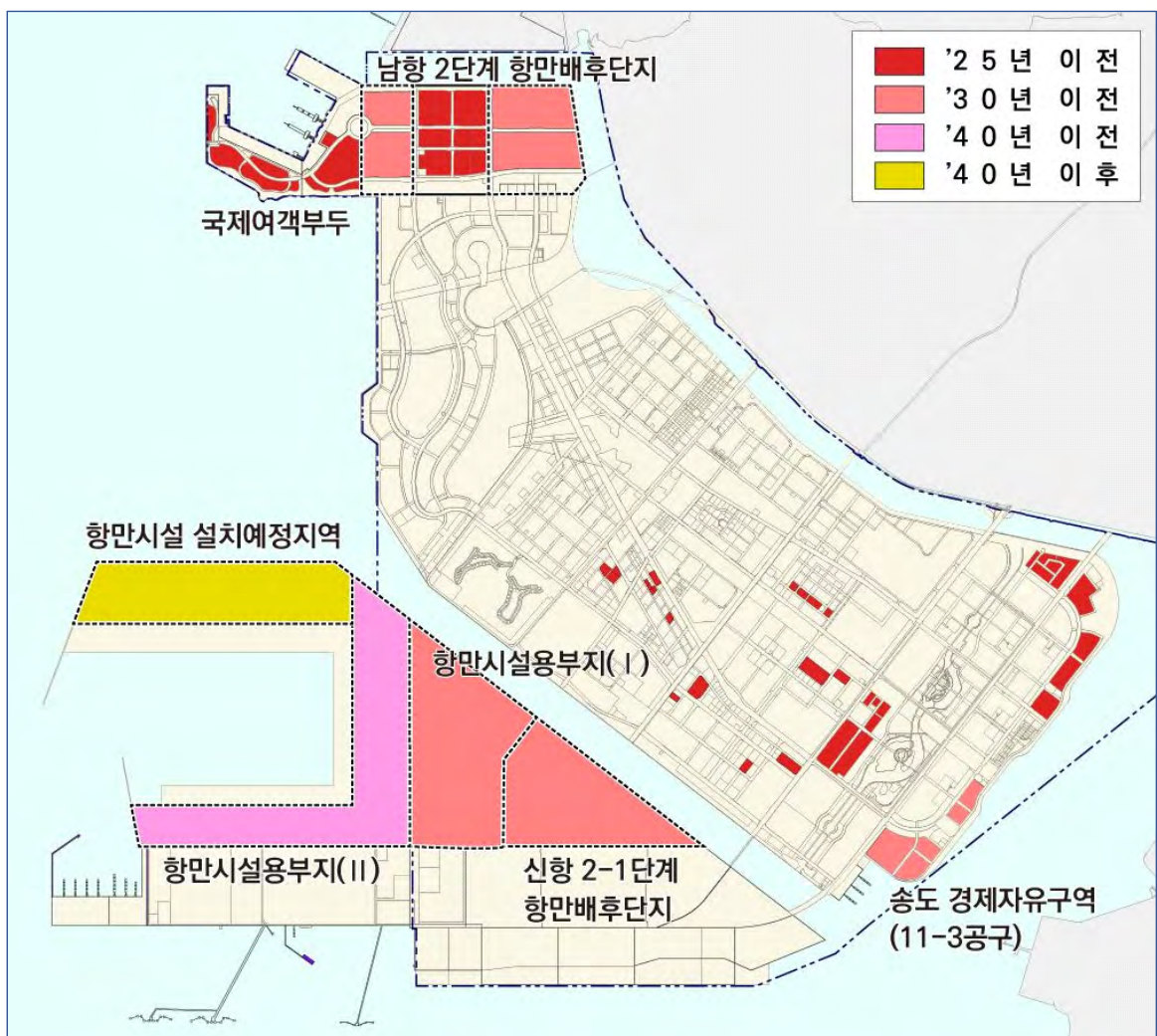


[송도권역 개발가능지]



» 개발가능지에 대한 이용가능 시기 검토

- (2025년 이전) 송도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용지(11-3공구 제외), 남항 2단계 항만배후단지 일부, 국제여객터미널 투자유치용지
- (2030년 이전) 남항 2단계 항만배후단지 일부, 송도 경제자유구역(11-3공구) 투자유치용지, 신항 2-1단계 항만배후단지, 항만시설용부지(Ⅰ)
- (2040년 이전) 항만시설용부지(Ⅱ)
- (2040년 이후) 항만시설 설치예정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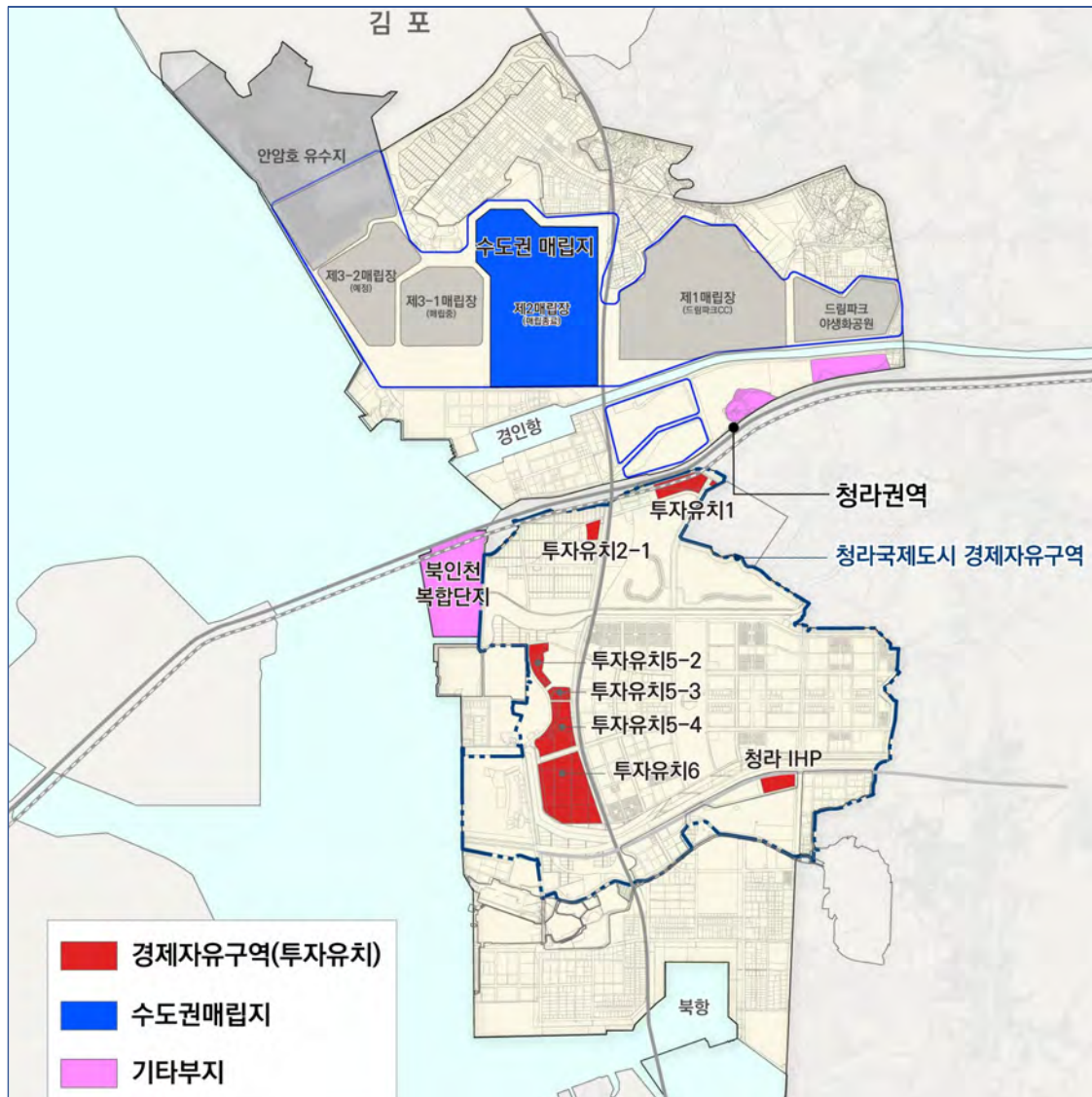


[송도권역 이용가능시기]

2.2.3 청라권역

» 개발가능지 설정

- (개요) 청라권역 개발가능지*는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용지와 수도권매립지(제2매립장), 기타부지(나지)로 구분됨
 - 수도권매립지 : 매립완료 후 시설조성이 완료된 지역(제1매립장 및 드림파크 야생화공원) 및 매립중이거나 매립이 예정된 지역은 제외
- (개발가능지) 약 5,725천m²
 - 경제자유구역(투자유치용지) 약 901천m²와 수도권매립지(2매립장) 3,779천m², 기타부지 1,045천m²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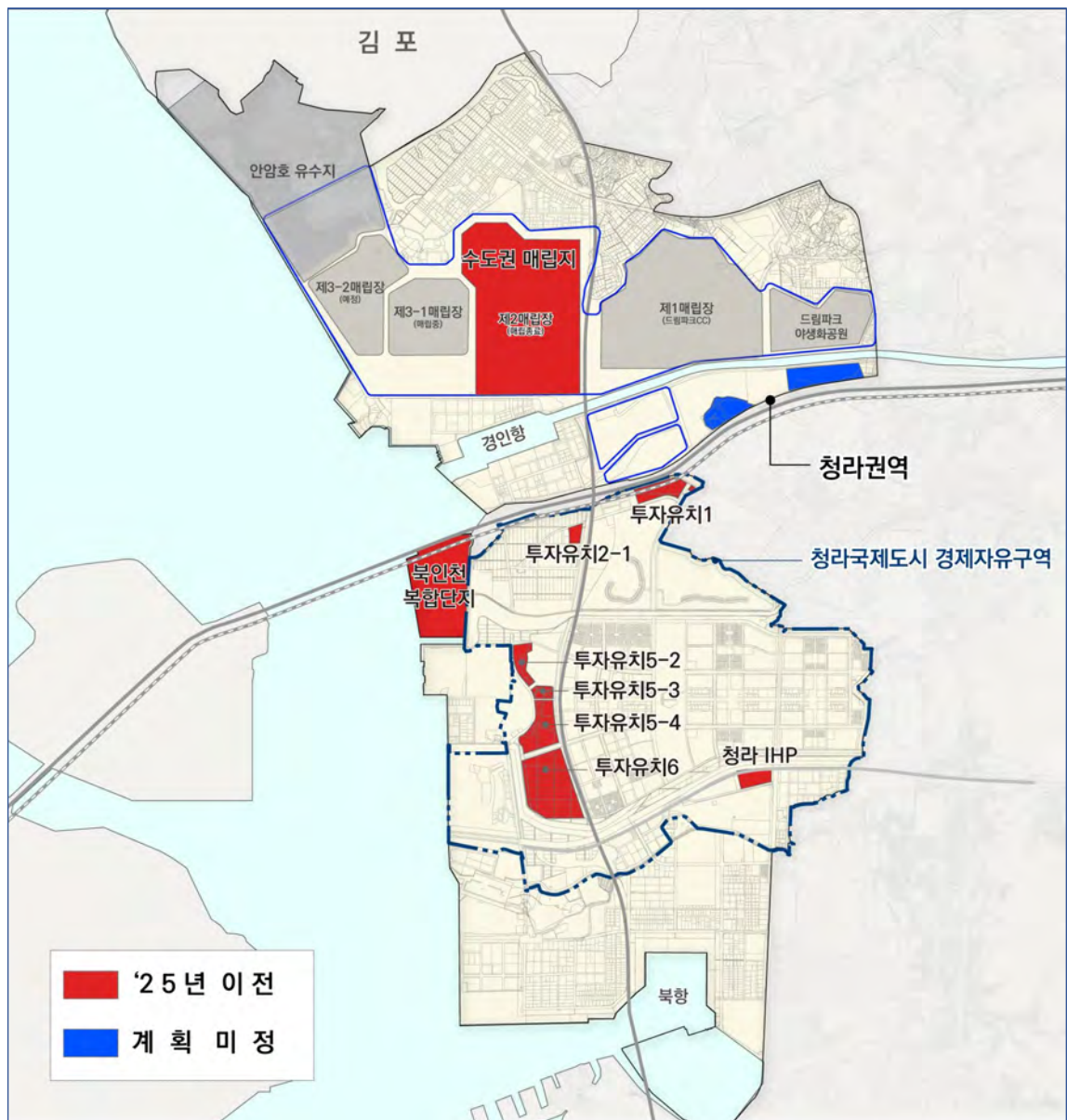


[청라권역 개발가능지]



» 개발가능지에 대한 이용가능 시기 검토

- (2025년 이전) 수도권매립지(제2매립장), 북인천복합단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용지
 - 수도권매립지 :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으로만 이용가능(사용 종료 후 30년간 토지이용 제한)
 - 북인천복합단지 : 부지조성 후 10년간 매립목적 외 토지이용 제한(항만시설)
- (계획 미정) 기타부지



[청라권역 이용가능시기]

2.2.4 강화·옹진권역

» 개발가능지 설정

- (개요) GIS 분석결과 개발불능지와 개발억제지를 제외한 대부분이 개발가능지로 분석됨
 - 개발불능지 : 마니산, 길상산, 진강산 일대 등
 - 개발억제지 :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등
- (개발가능지) 약 18,772천㎡
 - 개발가능지는 대부분 사유지이며 농경지로 사용 중으로 건축물 등 지장물이 적어 비교적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
 - 개발가능지 내에 일부 자연환경이 양호한 부지는 공원, 녹지 등으로 활용

» 개발가능지에 대한 이용가능 시기 검토

- (2025년 이전) 공유수면매립, 항만부지조성 등 별도 인허가 필요하지 않아 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즉시 사용이 가능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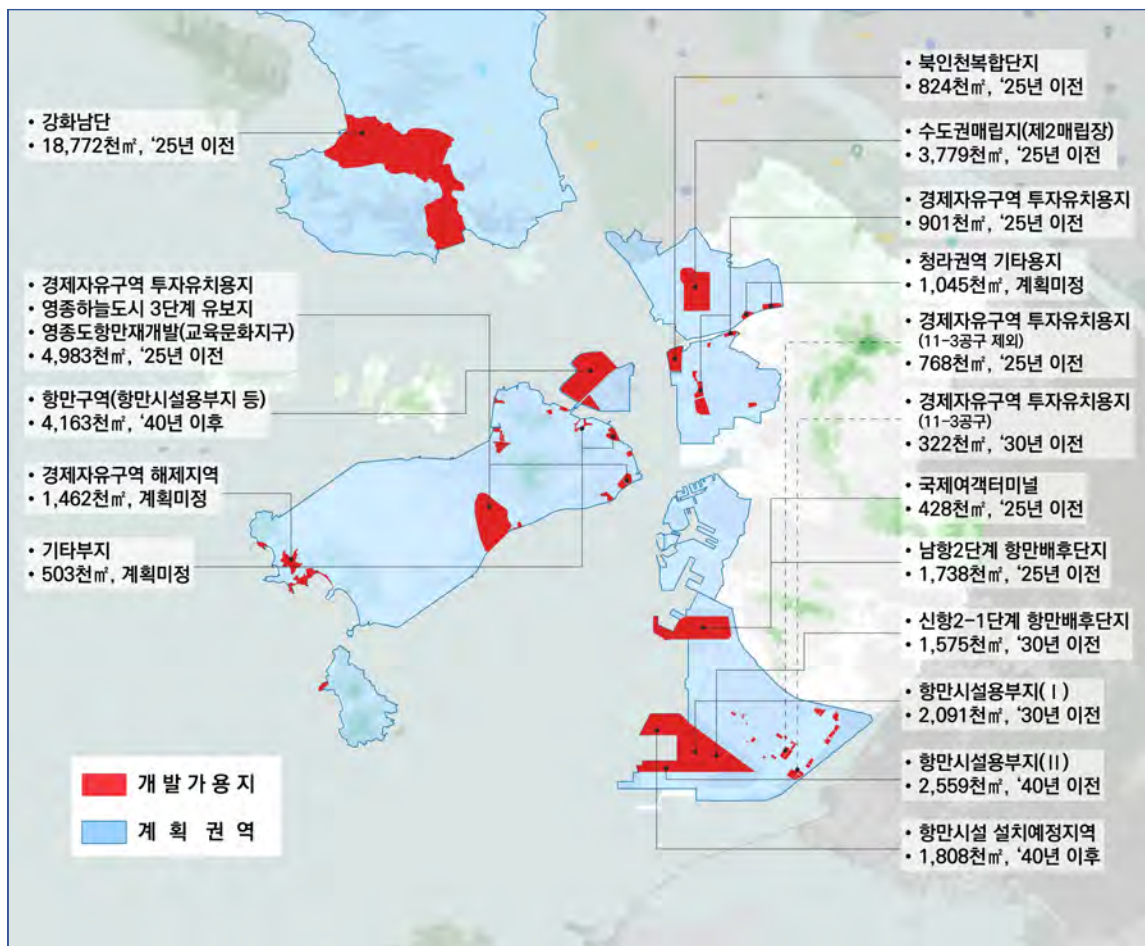
[강화옹진권역 개발가능지]



2.3 종합의견

» 개발가능지 종합

- 경제자유구역(투자유치용지, 유보지 등)으로 계획되어 부지조성이 완료되었으나 민간투자 유치중인 부지
 - ☞ 권역별 경제자유구역 현황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미래전략기능 도입 필요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 등 국가계획에 따라 신규로 조성되는 부지
 - ☞ 현재 매립중이거나 토지사용을 위한 인허가 진행중인 지역으로, 장기 비전을 고려해 현실여건에 맞는 기능 확장에 중점
- 경제자유구역 외 지역으로 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부지
 - ☞ 사업성 확보를 통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개발가능지 총괄도]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도시를 원한다. 경계를 넘어서...

제III장 기본구상

- 1 비전, 목표, 전략
- 2 공간구조 설정



제III장 기본구상

1 비전, 목표, 전략

1.1 비전 (VISION)

“ Global Top10 City, INCHEON ”

- 본 과업은 “Global Top10 City, INCHEON”이라는 새로운 미래 비전(VISION)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의 기본철학과 방향성(NEW INCHEON, GREAT INCHEON)을 제시함

» 글로벌 Top10 도시, 인천(Global Top10 City, INCHEON)

- 인천은 개항을 통해 새로운 산업도시, 문화도시, 정주도시, 미래도시로 성장하고 있음. 특히 인천은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 국내 최대 경제자유구역을 가진 도시로서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인천개항1.0(개항, 산업화), 인천개항2.0(인천공항, IEFZ), 인천개항 3.0의 역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 개항 1.0 : 개항, 산업화, 근대도시의 출발점
 - － 개항 2.0 : 인천국제공항 건설,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현대도시의 출발점
 - － 개항 3.0 :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초일류도시, 미래도시의 출발점

[인천 개항의 역사(1883 - 현재)]



- 인천은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미래첨단 산업과 대기업을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인구 고령화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잃고 있어 상황의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함
- 이러한 맥락에서 민선8기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의 꿈,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Global Top10 City, INCHEON’ 프로젝트와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인천 원도심(중구, 동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임
- ‘Global Top10 City, INCHEON’ 프로젝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청라, 영종)과 주변지역(인천내항, 강화남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혁신 프로젝트임. 글로벌 첨단산업유치, 기반시설 확충, 수도권규제 완화,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 변화와 혁신을 위한 미래발전 계획임

» 인천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인천, 그레이트 인천(NEW INCHEON, GREAT INCHEON)

- 인천은 정부의 수도권규제법으로 인해, 도시 발전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음. 특히 강화와 옹진, 구도심은 인구감소, 일자리 감소, 시설 노후화 문제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첨단 산업 유치, 4년제 대학 유치, 대기업 유치 등을 할 수 없었음
- 그리고 환경규제 강화, 시설노후화 등으로 인천을 떠나 외국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은 대부분 아파트 용도로 재개발되고 있음. 이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지고 생산성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산업구조 고도화, 글로벌 첨단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산업, 공간, 일자리 등)이 필요함
- 2003년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내 최고의 외자유치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글로벌 기업(삼성, 현대, LG, SK, 네이버, 카카오 등)에게는 넘어설 수 없는 제약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인천 INCHEON



대동여지도에 그려진 인천입니다. 해양 도시 인천은 1883년 개항, 산업화, 현대화를 시작된 곳입니다. 남동공단, 인천항, 송도, 청라, 영종 경제자유구역, 인천공항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해소, 첨단산업 육성, 강소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인천 가치 재창조를 위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 본 연구의 목표는 과거 인천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깨고, 물리적·공간적 경계를 넘어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의 미래가치를 재창조하기 위한 ‘Global Top10 City, INCHEON’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임. 연구는 “새로운 인천(NEW INCHEON), 그레이트 인천(GREAT INCHEON)”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었고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① 새로운 인천(NEW INCHEON) : 과거 노후 임항도시, 수도권 베드타운 등으로 인식되던 인천의 경계(산업적, 경제적, 문화적)를 넘어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미래 첨단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큰 틀과 원칙을 제시한다는 의미임
- ② 그레이트 인천(GREAT INCHEON) : 인천의 공간적 경계를 넘어서 인구 1000만, ‘글로벌 광역 대도시, 인천’의 미래발전 방향과 핵심사업을 제시하는 것임
 - 글로벌 첨단산업도시, 안전한 역사문화도시, 친환경 스마트 녹색도시, 고품격 정주매력도시, 글로벌 지속가능한 도시 관점에서 인천의 문제점과 잠재력을 진단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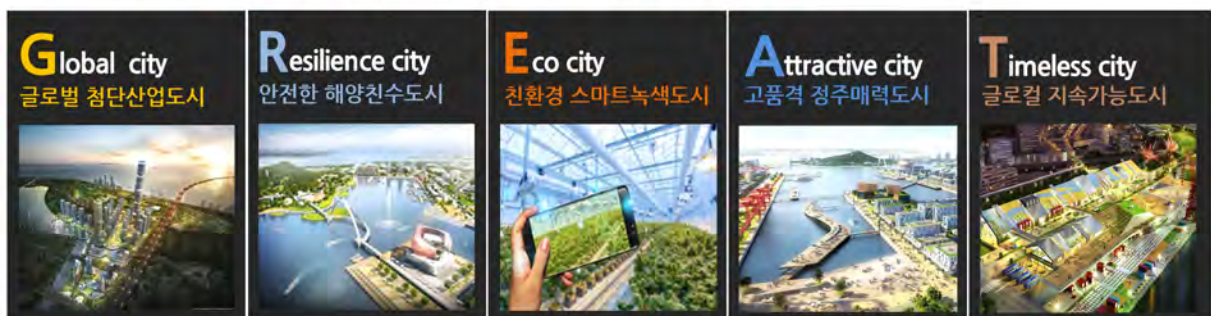
[비전 실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개념]

Global Top10 City, INCHEON

경계를 넘어서 글로벌도시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산업구조, 도시계획, 거버넌스의 혁신

대한민국의 꿈,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NEW INCHEON, GREAT INCHEON



1.2 목표 (GOALS)

◆ (3대 목표)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글로벌 도시공간 창출, 글로벌 추진기반 마련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송도, 청라, 영종, 강화·옹진, 내항을 중심으로 미래도시 인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치를 재창조하고자 함

» 목표1_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WORK)

- 바이오, 반도체, RE100/CF100, UAM, MRO, 모빌리티 혁신클러스터 육성
- 첨단물류, 문화관광, 특화금융 거점구축

» 목표2_ 글로벌 도시공간 창출(PLAY)

- 공항경제권, 글로벌 성장거점, 메가시티 인천 조성
- 보물섬, 바다1번지, 바다조망점, 바다이음, 바다역, 친수거점 구축

» 목표3_ 글로벌 추진기반 구축(LIVE)

- 행정구역 개편, 도시공간 재구조화,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 법제도 개선, 신설법/제도 활용

3대 목표글로벌 첨단산업(WORK) + 글로벌 도시공간(PLAY) + 글로벌 추진기반(LIVE)

미래도시 인천의 경쟁력 강화, 가치 재창조 (송도, 청라, 영종, 강화·옹진, 내항)



01.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02. 글로벌 도시공간 창출



03. 글로벌 추진기반 구축

[Global Top10 City, Incheon Project_ 3대 목표]



1.3 전략 (STRATEGIES)

◆ (9대 전략) 아래와 같은 9개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통해 3대 목표(첨단산업 육성, 글로벌도시공간 구축, 글로벌 추진기반 구축)를 달성하고자 함

목표1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 전략 1_ 바이오, 반도체, RE100/CF100 혁신 클러스터 구축

» 전략 2_ UAM, MRO, 모빌리티 산업클러스터 육성

» 전략 3_ 첨단물류, 문화관광, 특화금융 거점 구축

목표2 글로벌 도시공간 창출

» 전략 4_ 세계로 웅비하는 인천 공항경제권(Aerotropolis) 육성

» 전략 5_ 글로벌 성장거점, 메가시티 인천(3대 회랑, 광역교통 네트워크) 조성

» 전략 6_ 보물섬을 품은 해양도시 인천 만들기

목표3 글로벌 추진기반 구축

» 전략 7_ 행정구역 개편, 도시공간 재구조화

» 전략 8_ 5-Star 글로벌 성장거점, 인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 전략 9_ 법·제도 개선, 신설법·제도 활용

01	02	03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글로벌 도시공간 창출	글로벌 추진기반 구축
바이오, 반도체, RE100/CF100 혁신클러스터 구축	세계로 웅비하는 인천 공항경제권(Aerotropolis) 육성	행정구역 개편, 도시공간 재구조화
UAM, MRO, 모빌리티 산업 클러스터 육성	글로벌 성장거점, 메가시티 인천 (3대 회랑, 광역교통 네트워크) 조성	5 Star 글로벌 성장거점, 인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첨단물류, 문화관광, 특화금융 거점 구축	보물섬 168개를 품은 해양도시 인천 만들기	법·제도 개선, 신설법·제도 활용

[추진전략 9개]

» 전략1_ 바이오, 반도체, RE100/CF100 혁신 클러스터 구축

■ 바이오

- 인천의 바이오산업 육성, 타 산업과의 연계 시너지 강화, 산·학·연 협력모델 구축,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

☞ 국내 바이오 분야를 선도하는 K-바이오 종합 클러스터 구축

■ 반도체

-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분야의 강점과 지능형 반도체 융합, 글로벌 캠퍼스 기반 연계, 글로벌 기업 및 관련 분야 스타트업 유치를 통한 기반 확장

☞ 반도체 분야 토탈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글로벌 수출 선도

■ RE100/CF100

- 기업의 RE100/CF100 달성을 위한 Industrial Complex 조성, 풍력/수소/바이오 가스 제공, 신재생에너지 제조 및 유통 업체 유치

☞ 국내 RE100/CF100 달성을 상향할 위한 산업기반 특화

☞ 탄소중립, 친환경 스마트 녹색도시 인프라 구축

바이오	반도체	RE100/CF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시밀러 생산용량 세계 1위(56만 l) • 삼성 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60개 기업 밸류체인 형성 • 글로벌 기업과 격차(화이자 1천억\$, 셀트리온 2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시스템반도체수출 1위 • 후공정 세계 2, 3위 기업포진 • 반도체 관련 기업 1,300개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지역 소재 글로벌 기업들의 RE100/CF100 달성, 필요성 증대 • RE100 가입 인천 지역 소재 기업 증가 • 국제 물류 인프라 보유, 대규모 물류/포워딩 기업 존재
		
육성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드(의약품) + 그린(해양생물자원) + 화이트(플라스틱) 바이오클러스터 • K-Bio랩 + 글로벌 기업 + 대학병원 + 인재양성 • 글로벌 바이오 앵커 기업유치, 밸류체인 형성 	육성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후공정 (OSAT), 지능형 반도체 • 글로벌 캠퍼스(연구센터+생산시설), 인재양성(인하대, 인천대, 서울대) • 글로벌 반도체 기업, 첨단 벤처, 앵커, 스타트업 기업 유치 	육성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수도권 기업의 RE100 달성을 위한 Industrial Complex로 발전 • 공급지 역할, 풍력/수소/바이오 가스 제공가능 • 신 재생 에너지 제조 및 유통업체 유치

[바이오, 반도체, RE100/CF100 산업 육성전략]



» 전략2_ UAM, MRO, 모빌리티 산업클러스터 육성

■ UAM(Urban Air Mobility)

○ 실증사업(서울/수도권 시범 운행사업), 공항 연계로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며, 인재 양성과 성과 모니터링,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UAM 상용화 추진

- 서울/수도권 중심의 시범 운행 후 후속사업 시행
- 공항 연계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여 인재 양성

☞ 정부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 및 클러스터형 산업기반 육성

■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모빌리티

○ 인천공항과 연계한 MRO 클러스터 육성, 앵커기업 유치, 화물기 개조 및 리스 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장

- 인천공항과 연계한 MRO 클러스터 육성
- 앵커기업 우선 유치를 통한 클러스터 기반 구축
- 화물기 개조 및 리스 사업 분야로 중장기적 확장 도모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안정화를 위한 MRO 분야의 확장 도모

UAM	M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과 서울/수도권 간 효율적, 유기적 연결성 강화 필요성 증대 • 포스트 코로나, 국제이동 재개 및 지속적 확대 전망 • 인천은 여객과 무역의 대표적 글로벌 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항공운송업 급성장 및 ESG 강화로 친환경 부품, 설비 수요 증대 • 정부정책: “인천공항 해외 복합MRO업체 유치” • 글로벌 리딩 공항인 인천공항 연계 모델 구축
	
육성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접근: 실증사업(서울/수도권 시범 운행사업)우선 추진 •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공항 연계), 인재양성 • 성과 모니터링, 관련기업 유치를 통한 상용화 	육성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RO 클러스터(인천공항 연계) • 단기적: 앵커기업 유치를 통한 클러스터 기반 구축 • 중·장기적: 화물기 제조 및 리스 사업 등으로 확장

[UAM, MRO, 모빌리티 산업 육성전략]

» 전략3_ 첨단물류, 문화관광, 특화금융 거점 구축

■ 첨단물류

- RFS(Roader Feeder Service) 인센티브 제공 및 통관/관세 유보 등 제도적 완화, 부가가치물류 조립·가공, 보험·금융 연계, 항만 배후단지활용 글로벌 물류센터(GDC: Global Distribution Center) 유치로 통한 글로벌 경제 특구화

☞ 입지적 장점과 기존 인프라 활용 물류산업 부가가치 창출 다각화

■ 문화관광

- 인천 : 개항장 중심의 원도심 관광권, 섬·해양 관광권*, 인천공항 연계 복합리조트 관광권 등으로 구분하여 거점 특화

* 섬·해양 자원성 : 인천 섬, 자원, 갯벌 등의 해양치유 자원성 보유

☞ 복합리조트형 관광거점과 원도심, 섬지역 활용한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다각화

■ 특화금융

- 특화금융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녹색금융, 첨단물류, 반도체, 바이오 등 인천시 전략산업 연계 특화금융 산업생태계 구축

☞ IFEZ, 청라 하나금융타운 등 기존 거점 기반의 특화금융 플랫폼 확충

첨단물류	문화관광	특화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배송, 로봇배송, 쿨드체인 증가 • 특수화물 보관, 자동화기능 스마트물류센터 등장 • 인천의 고부가가치 수출품목 제조업체, 소비시장, 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이나타운, 개항장 등 다양한 관광자원 보유 • 인천섬해양관광자원근거리 여행수요 증가 • 세계최고의 항공·항만여객 인프라 보유 • 700만레이스탑오버관광객보유(인천공항) • 송도, 인천내항, 스타필드 청라 등 인프라 다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도 GCF, 청라 금융타운 입지를 활용한 인천 특성에 맞는 금융 자원 필요 • 전통적인 자금의 Financing을 넘어선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성 강화 필요 • 특화금융에 대한 니즈 증대
 <p>육성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 UAM, 로봇배송 미래형 배송 시스템 구축 • 바이오의약품, 반도체 특수화물 배송 네트워크 구축 • 자동차 시설 확대, 스마트물류센터 건립 	 <p>육성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산 활용(보물섬, 인천내항),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발굴 • 인천공항 스타오버 관광거점, 테마파크 조성 • K-컬처 복합리조트, 복합해양레저도시 조성 • 글로벌 공항도시, 항구도시, 첨단도시 거버넌스 구축, 홍보 마케팅 강화 	 <p>육성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전략산업 연계, 특화금융 산업클러스터 육성 • 단기적 : 녹색금융, 첨단물류, 반도체, 바이오 관련 금융 특화 • 중장기적 : 지역연계, 금융 고도화(에안천은행설립)

[첨단물류, 문화관광, 특화금융 육성전략]



» 전략4_ 세계로 웅비하는 인천 공항경제권(Aerotropolis) 육성

■ 1단계_ 송도, 청라, 영종, 강화, 인천내항을 연결, 인천 공항경제권 성장기반 구축

- 송도권역, 청라권역, 영종권역, 강화웅진권역, 인천내항권역의 앵커산업 육성, 도시경쟁력 강화 (첨단지식산업 육성, 글로벌 기업유치, 문화관광산업 기반구축)
- 초격차 공항화와 직접영향권의 입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 병행 추진

■ 2단계_ 인천과 수도권 서남부 도시를 연결, 초광역 공항경제권 육성

- 인천, 김포, 시흥, 안산, 화성, 부천, 서울 서남부의 상생발전 협력체계 구축
- 주변지역의 특화기능과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새로운 미래 일거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

■ 3단계_ 세계7대 글로벌 공항대도시를 연결, 글로벌 공항경제권으로 발전

- 세계 7대 공항경제권과 인적·물적 교류 강화를 통해 'Global Top10 City'로 도약할 수 있는 활동기반 구축
- 공항경제권 성장전략을 통해 인천을 세계 거점공항 도시와 연계하는 메가폴리스로 육성하고, 세 개의 성장회랑 형성으로 공항경제권 성장동력 확보



[인천 공항경제권 3단계 육성전략]

» 전략5_ 글로벌 성장거점, 메가시티 인천(3대 회랑, 광역교통 네트워크) 조성

■ 3대 회랑(Corridor) 육성, 연관산업 네트워크 구축

- 국제교류 회랑: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여의도, 강남을 연결하여 글로벌 금융, 관광,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거점조성
- 신산업 회랑: 강화, 영종, 송도, 안산, 시화, 용인을 연결하여 첨단바이오, 반도체, 부가가치 물류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 거점조성
- 친수문화관광 회랑: 강화, 청라, 내항, 송도를 연결하여 역사문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친수문화관광 거점조성

☞ 연관산업의 거점화, 물류·유통 네트워크 구축, 상호 시너지효과 극대화

☞ 인적·물적 연결성 제고, 산업간 연계효과 극대화 도모,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창출

■ 광역교통 네트워크 구축, 대중교통 연결성 강화

- 광역교통시설(GTX, KTX, 공항철도, 도시철도 등)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메가시티 인천의 경쟁력 강화, 인천공항과 인천 원도심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연결성 확보
- 국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의 체계적 확장과 연결, 기존 도시 철도역과 간선도로 등의 도시교통 연결성 강화
- PAV, UAM,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연계 교통망 구축(Verti Port 등)



[성장축, 연관산업 네트워크 구축전략]

[광역교통네트워크 구축전략]



» 전략6_ 보물섬을 품은 해양도시 인천 만들기

■ 보물섬 : PLAY, WORK, LIVE 사업추진

- PLAY 보물섬 :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와 정책적 변화*에 대응한 지역특화 자원에 기반한 즐길거리 제공

* 「관광진흥법」에서 최근 각광받는 위케이션 등의 관광시설을 ‘일·휴양 연계 관광산업’으로 정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 정책화

- WORK 보물섬 : 섬의 자연자원과 마을의 역사, 사람들의 인문적 이야기를 덧입혀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 LIVE 보물섬 : 해양도시로서 새로운 이미지 구축과 섬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서해 도서가 보유한 매력과 해양활동에 대한 관심을 접목하여 새로운 활동공간으로 정비

■ 바다1번지, 바다조망점, 둘레길, 바다驛, 친수공간 조성

- 인천대교, 영종대교, 영종도, 내륙으로 둘러싸인 수변공간에 바다1번지(65.34 km²) 가꿈사업, 바다주권 회복, 바다조망점, 바다이음길 조성사업 추진
- 수변 접근성/연결성 강화를 위한 바다역, 하늘역, 철도역, 자전거역 사업 추진

섬 정주여건 강화 고령화 대응, 청년층 유입을 위한 섬 정주여건 개선 사업	섬 일자리 창출 섬 개발, 자원 활용, 소득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섬 관광·문화 강화 섬과 섬의 연계, 자원 관리 효율성,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주택건축, 도시재생, 주거복지, 도시개발, 자산관리 등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연계	도시개발, 도시재생, 자산관리, 주거복지, 사회공헌등 해양수산부, 인천관광공사 연계	도시개발, 도시재생, 사회공헌, 자산관리 등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연계
단재개발 : 주거, 관광·레저, 의료 재생사업 : 빈집·폐교, 물양장·창고 주거복지사업 : 집수리, 임대주택	예술 : 음악, 문학, 미술·조각 레저 : 요트·낚시·트레킹·생태, 숙박 상품개발 : 특산품, 기념품	여가 : 전망대·산책로·카페 조성 문화 : 공연장·전시관, 홍보관 복지 : 마을회관·보건소, 경로당

[보물섬 : PLAY, WORK, LIVE 전략]

» 전략7_ 행정구역 개편, 도시공간 재구조화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사업 추진 : 2군·8구 ⇒ 2군·9 구

○ 역사·문화적 동질 지역이 행정구역상 분리되어 주민 불편사항 다수 발생,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권 통합 등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 31년 만의 행정구역 개편 (2026년 7월1일 시행), 제물포구, 검단구, 영종구 신설

☞ 행정구역 개편(안) : 2군(강화군, 옹진군), 9구(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연수구, 미추홀구, 서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 유희공간 활용, 맞춤형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 추진

○ 노후항만, 폐공장, 빈집, 유희공간을 재생, 활동거점 조성, 공간 재구조화 사업추진

[도시공간 재구조화 전략]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불편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점 : 역사·문화적 등질지역 행정구역 분리 생활권 활성화 및 도시관리의 효율성 저하 행정구역 개편(안) : 2군·8구 ⇒ 2군·9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행정구역 경계부 미시행 사업 효율적 추진(만석부두 등) 공간통합 : 생활권 규모 조정, 유희공간 활용방안 필요

활동거점(CAZ) 재구조화, 가로연결성, 가로활력 개선사업 추진

	문제점	공간 재구조화 방향
행정구역 경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구, 동구 개발방향 불일치 예) 북성포구 매립지 		
파편화된 생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질지역(동구/중구) 이질지역(영종구/중구) 		
가로단절, 활력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연결성 단절 보행수요 창출요소 부재 		



» 전략8_ 5-Star 글로벌 성장거점, 인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 5-STAR 글로벌 성장거점 육성

- 개발 가용지부족, 5개 구역(송도, 청라, 영종, 강화, 내항)으로 확장·지정, 국제적 수준의 경제자유구역 성장기반 구축

☞ IFEZ 조성사업 20년 경과, 향후 100년을 위한 ‘기회의 땅’ 준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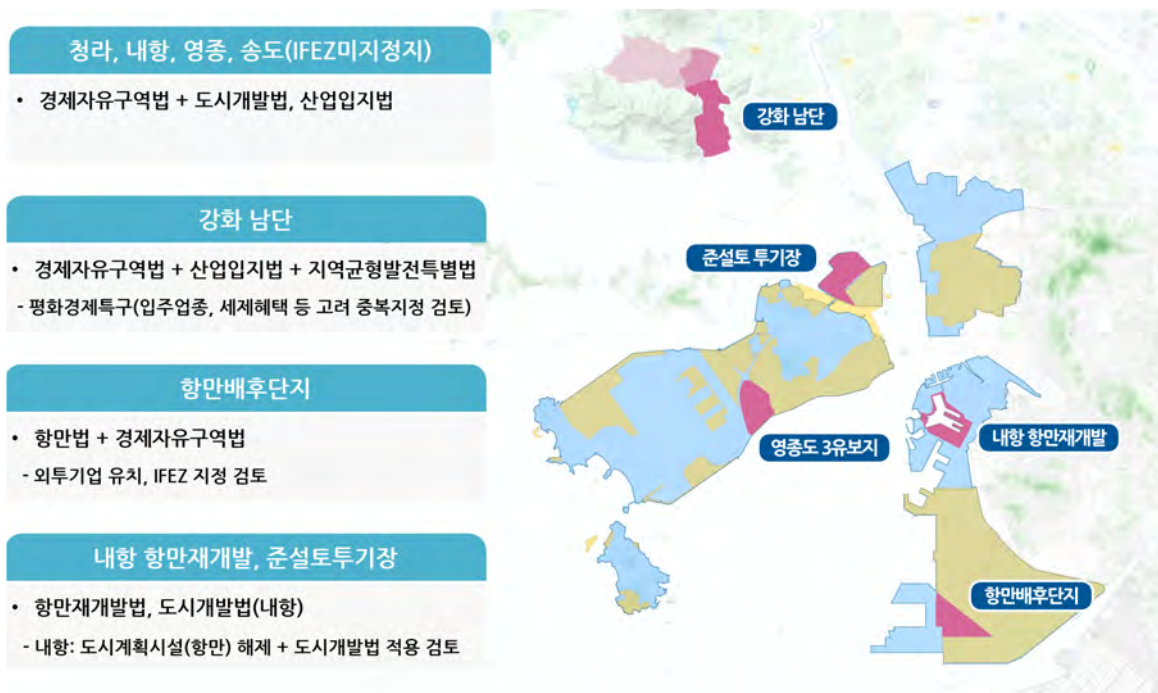
■ 신규 개발법 특성고려, 개발가용지 사업화 방안 검토

- 수도권 정비계획법 한계극복, 투자유치 사업의 효율적 시행, 효과 극대화 방안 필요

☞ 경제자유구역법, 평화경제특구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고려 사업화 방안검토 필요

[5-Star 글로벌 성장거점, 인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

3-Star : 국내최고 경제자유구역	5-Star : 세계 최고를 위한 새로운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기반시설, 정보화 여건 등 경쟁력 보유 수요에 비해 부족한 가용토지 • 다음 100년을 위한 ‘기회의 땅’ 준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의 프론티어를 신규 개발하는 5-Star 전략 추진 - 3(IFEZ) : R&D 융복합, 지식산업 집적도 강화 - 2(신규토지) : 강화·옹진, 인천내항
3-Star : 송도 + 청라 + 영종	5-Star : 송도 + 청라 + 영종 + 강화 + 내항



» 전략9_ 법·제도 개선, 신설법·제도 활용

■ 수도권정비계획법, 경제자유구역법 한계 극복방안 검토

- 첨단산업육성,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감면, 개발밀도 완화 등 인센티브 필요
- 평화경제특구, 기회발전특구 적용방안 검토

■ 새로운 법·제도 적용방안 검토

-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혁신방안(2023.01.)』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신설되는 새로운 법·제도 적용방안 검토 필요

[법·제도 개선, 신설 법제도 활용전략]

경제자유구역법	평화경제특별구역법 (평화경제특구)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기회발전특구)
다양한 혜택, 입주기업 제한	다양한 혜택, 업종 규제	다양한 혜택, 개발관련 조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규제: 없음 • 입주허용: 외투기업, 국내복귀기업 • 입주불허: 첨단기술 등 투자기업 • 세제감면: 국세, 지방세 • 특례: 도시기본계획 의제, 개발밀도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규제: 북한과 교역, 협력사업 • 입주허용: 남북경협 관련 기업 등 • 세제감면: 지방세 • 지정지역: 강화·옹진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규제: 없음 • 입주허용: 제한없음 • 세제감면: 국세, 지방세 • 지정지역: 강화·옹진권역 • 기타: 별도의 개발법 중복지정 필요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계 극복 방안 필요 초일류도시 실행수단 중점 검토	사업의 효율적 시행, 효과 극대화 측면에서 개선방안 검토	

법·제도 적용방안 검토 _ 항만재개발, 도시계획혁신(국토부, '23.01.06)

항만재개발: 「국토계획법」 체계로 추진 검토		
<p>현행: 「항만재개발법」으로 시행</p> <p>도시기능으로 재개발시 「항만법」 체계 적용은 부적절</p>	+	<p>검토(안): 「국토계획법」 체계로 재개발</p> <p>Step1) 도시계획시설(항만) 해제</p> <p>Step2)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등으로 시행</p>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나 건축의 용도제한 없이 지자체가 개발밀도 등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역 존치, 타 용도시설 설치 - 용적율: 용도지역 범위 내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 융·복합: 기능 고도화 - 용도지역별 제한 기반시설 허용
		
창의적 개발이 필요한 곳 인천역, 내항1·8부두 등	사업성이 낮은 곳 소래포구, 내항권역(원도심) 등	도시계획시설 연계지구 화수부도, 인천대로 상부, 유수지 상부 등



2 공간구조 설정

2.1 영종권역_ Attractive City Incheon

◆ (세계와 교류하는 고품격 매력도시 인천) 노마드(Nomad) 시대에 인재들이 모여드는 관문도시, 글로벌 자본과 물류가 흘러넘치는 거점도시로 육성

- Attractive 전략 : 공항경제권 성장판 + 항공관련 산업 집적지 + 해양관광 활성화

»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체계

○ (성장판) 인천공항의 세계적 지명도를 활용하여 영종권역을 항공대도시권의 성장을 견인*하는 공항경제권의 성장판으로 육성

* 인적·물적 국제교류와 자본이동에 있어서 시간거리 단축과 글로벌 거점도시 간 네트워크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

○ (항공산업 집적) 공항구역 및 인근 가용지는 MRO산업 및 인재육성, 부가가치 물류 등 공항 친화적 산업기능 유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

○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여가 목적지로서 저평가되었던 영종·무의도를 수도권 거주자, 공항 입국자 및 환승객의 해양레저 거점으로 재편

- 공항구역 내 호텔·복합리조트, 용유도 내 해수욕장·마시안해변과 연계



» 동선체계

- **(광역교통)** 공항경제권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교통체계 연결노선 강화
 - 국제교류축 : ‘영종·용유-인천-서울’을
잇는 철도, 간선도로, 연육교 등
동서축 교통체계 확충
 - 신성장산업축 : ‘강화-영종·용유-송도-
수도권 남부’를 잇는 간선도로, 철도 구축
 - 신 모빌리티(UAM 등)를 활용하여 수도권
및 도서 접근수단 다양화



[동선체계]

- (연계동선) 생활권 활성화와 권역 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인프라 구축
- 영종권역 순환도로(하늘도시-공항신도시-미단시터), 용유-무의 간 케이블카*
- * 무의도 내 열악한 도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수단으로 계획

» 녹지축

- **(영종)** 보전대상 산지와 도시 녹지공간을 잇는 ‘금산-하늘도시(송산공원)축’은 거주자들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활용
- **(용유·무의)** ‘왕산-오성산-호룡곡산’ 축과 해양레저 배후 녹지축으로 보전

수변축

- **(해변)** 용유·무의도의 자연해변은 인천의 해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여가 및 해양레저공간으로, 인공해변은 조망공간으로 정비
- **(친수공원)** 지역특성 활용, 다양한 친수활동공간 조성



[녹지축]



[수변축]



2.2 강화·옹진권역_ Timeless City Incheon

- ◆ (인천다움을 지키고 가꾸는 인천) 강화·옹진권역의 특성인 그린(농지)과 블루(바다), 전통(역사자원)을 신산업·정주공간에 재구성하여 미래 성장동력화
- Timeless 전략 : 신산업공간 특화 + 해양관광 연계 + 접근체계 조기 확충

»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체계

- (신산업공간 특화) ①강화: 친환경농지·갯벌을 그린바이오산업의 소재로 특화하고, 송도의 레드바이오 파운드리 생산기술과 연계, ②옹진: 안보·자연을 소재로 한 특별목적관광, 군도(群島) 내 위케이션, 해상풍력 등 도입
 - 휴양, 그린·레드바이오와 연계한 해양치유, 뷰티·헬스케어, 특화금융 기능 유치*
 - * 수도권 및 영종도와의 접근성 개선 및 여가·휴양기능 접목을 통한 목표시장 확대
- (역사·문화자원 연계) ①강화: 강화남단은 강화둘레길로 이어지는 돈대와 마니산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연계한 웰니스 단지로 개발, ②옹진: 백령3도·덕적군도 내 항·포구를 활용한 관광활동 및 관계인구 확충 추진
- (지역특화형 정주공간) ①강화: 길정저수지와 수로에 물순환체계를 도입한 ‘물의 도시’ 구현, ②옹진: 해수·갯벌·도서 등을 연계한 여가·휴양 공간화



» 동선체계

- (광역교통) ①강화: 영종·송도와의 연계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②옹진: 백령공항, 버티포트 확충, 군도 내 연계강화 등이 강화·옹진권역 활성화의 선결조건임
 - 신성장축: 평화도로(신도-강화), 백령공항
- (연계동선) ①강화: 강화남단-초지대교 간 도로 확충, 해안선을 따라 역사·문화자원을 체험하는 강화둘레길, ②옹진: 용기포항 항만시설 확충, 덕적도·백령도 버티포트, 백령도 두무진 연계 및 바다조망점 설치



[동선체계]

» 녹지축

- (산) ①강화: 진강산, 마니산, 길상산 등 500m 이내 산들이 보전대상지로 설정되어 강화남단 개발계획 수립 시 토취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②옹진: 대부분 보전용도의 산지임을 감안 보전적 활용방안 검토가 전제되어야 함
 - * 마니산의 구릉지 전체가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22.12)'상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

» 수변축

- (문화자원·해안경관) ①강화: 강화둘레길 이용객의 매력요인 제고를 위해 항포구와 해수욕장 등 해안자원을 잇는 바다이음 사업을 강화하고, 바다조망점도 정비, ②옹진: 백령의 지질과 생태자원, 덕적군도 내 생활공간과 삶의 터전 등의 보전적 특화정비 모색 필요



[녹지축]



[수변축]



2.3 송도권역_ Global City Incheon

- ◆ (신산업 초일류도시 인천) 송도권역은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초일류도시 인천의 미래를 실현할 글로벌 거점공간으로 육성
- Global 전략 : 교육·연구기능 강화 + 신산업 클러스터링 + 국제교류 거점화

»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체계

- (지식기반 플랫폼 강화) 송도국제도시 내 교육·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천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갈 신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관한 연구, R&D·창업, 네트워킹·협력 역할을 담당하는 인천형 신산업 지식기반 플랫폼 설치 및 육성
 - 정부 공모사업* 등을 통한 예산 등 실행력 확보 및 기존 연구·R&D 기능 강화
 - * 예)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산업통상자원부)
- (신산업 클러스터링) 레드바이오, 후공정 반도체 등 지식기반산업의 R&D 기능 집적 및 클러스터화를 통해 미래 융·복합 산업 육성 기반 마련
- (국제교류 거점화) 송도컨벤시아를 중심으로 호텔, 쇼핑, 전시공간 등 MICE기능의 밀도를 높이기 위한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집중 육성
 - 인천공항의 글로벌 관문기능과 연계한 인적 교류와 비즈니스 중심지로 활용



» 동선체계

- (광역교통) 인천시 신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기반 플랫폼 네트워킹 확대 측면에서 접근
 - 국제교류·신산업육성축: GTX복합터미널과 신교통수단 연계*, 도시철도 종점 연장** 등을 통한 타 권역과 연계성 강화
 - * 자율주행, UAM 등 환승체계 구축
 - ** 연장구간: 여객터미널→지하철 인천역



» 녹지축

[동선체계]

- (남북축) '문학산-청량산'과 연결되는 3개 축, 송기천과 남동유수지로 이어지는 2개 축을 통해 송도국제도시와 기존 시가지의 녹지공간을 연결
- (동서축) '글로벌파크-미추홀공원-센트럴파크-인천타워대로'를 잇는 1개 축 설정
 - 송도국제도시 중앙부를 관통하는 선형 공원형태로 거주자 및 근무자를 위한 여가 및 휴식공간 역할을 담당

» 수변축

- (순환수로) "물의 도시. 송도"를 위해 4개 테마공간으로 계획된 워터프런트 활성화
 - * 6·8공구 선셋호수, 북측수로의 수변레저, 11공구 내 문화·여가, 남측수로의 해양문화 체험
 - 남측수로의 수공간과 워터프런트는 생활형 해양레저 및 여가공간으로 특화
- (해변) 습지보호지역(동측·서측 습지)은 완충을 통한 생태·교육 공간으로, 기타 구역은 여가 및 남측수로와 연계한 해양레포츠 공간으로 활용



[녹지축]



[수변축]



2.4 청라권역_ Eco City Incheon

- ◆ (친환경 스마트 녹색도시 인천) 청라권역은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탄소중립 사회와 녹색성장 도시의 비전을 실현할 스마트 거점공간으로 육성
- ECO 전략 : 저탄소 인프라 정비 + 녹색산업 기반강화 + 녹색교통 활성화

»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체계

- (저탄소 인프라 정비) 발전소 연료를 LNG에서 수소혼소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소발전을 통해 탄소배출을 하지 않음으로서 장래 CF100, RE100 사회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
 - 기후위기 대응 등 거시적 차원은 물론 미래 탄소중립사회가 요구하는 에너지 생산 방식으로의 전환
- (녹색산업 기반강화) 기존시설 재편을 통한 화이트바이오 환경복합연구단지, 신 모빌리티 R&D 및 실증단지(수소차, UAM 등), 수소특화집적단지 수용 및 특화금융 등 녹색산업 고부가가치화 기반 마련
- (그린 네트워크) 공촌천과 심곡천을 통해 정주공간과 해안 프롬나드(promenade)를 연결함으로써 바다접근성 강화 및 산책, 자전거 이용 등 녹색교통 확대에 기여



» 동선체계

- (광역교통) 청라권역은 井자형 간선가로의 중심에 위치해 교통접근성 양호
 - 제3연육교 및 GTX-D·E 신설
 - 지하철 : 7호선은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인천2호선 고양까지 연장



[동선체계]

» 녹지축

- (동서축) 공촌천, 심곡천변의 2개 녹지대가 해변으로부터 '청라호수공원 연장축'을 가로질러 '계양산 보전축'에 연결
 - 도심 속의 인공적 생물 서식공간(biotope)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단절된 부분은 연결 녹지,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내 녹지공간 형성 등을 통해 보강
- (남북축) '가현산-계양산-원적산'을 잇는 보전축과 정주공간 내 여가기능을 담당하는 권역 중심부의 '청라호수공원 연장축'이 청라권역의 간선녹지축을 형성
 -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22.12)'상 산림경관축으로 지정

» 수변축

- (아라뱃길·하천) 계양산 보전녹지축과 해변을 연결하는 3개의 수변축을 형성하며, 수변은 휴식 및 여가공간과 보행 및 자전거길 등으로 구성
 - 공촌천과 심곡천을 통해 청라신도시, 주변 산업단지 등 정주공간과 해변을 연결
- (해변) 장기적 관점에서 해안변 경계철조망 철거사업을 단계적 추진하며, 이와 연계한 해변 보행환경 개선, 바다조망점 조성 등 바다이음 추진사업 지속 추진



[녹지축]



[수변축]



2.5 내항권역_ Regeneration City Incheon

- ◆ (역사적 가치를 재창조하는 인천) 통합 브랜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원도심, 문화·관광, 산업·경제, 내항의 4개 테마로 가치 재창조
- Regeneration 전략 : 원도심 기능재편+문화관광 르네상스+산업경제 혁신도시화

»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체계

- (원도심 기능재편) 제물포 원도심을 핵심거점으로 육성하며, 내항 재개발과 10분 생활권 형성을 통해 해양도시의 다양성을 갖춘 미래 정주환경 조성
 - 원도심 재생사업,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선도사업으로 추진
- (문화·관광 르네상스) 항만도시에서 친수도시로의 전환을 통해 시민에게 열린 문화·관광 기반을 구축하며, 자원 간 연계성을 통해 이용권역을 확장
 - 근대도시의 출발점인 인천 원도심이 가진 역사적 가치를 활용한 글로컬 문화·관광의 앵커지역으로 재편
- (산업·경제 혁신도시) 임해공업지역의 정비를 통해 전통·뿌리산업을 고도화하며,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 추진



» 동선체계

- [illegible]

[동선체계]

» 녹지축

- **(동서축)** ‘월미도-소월미도-문학산’ 녹지축 중 ‘인천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해양수산부, 2018)’에 포함된 구간은 공원·녹지로, 기존 시가지 구간은 연결 녹지나 완충녹지 등으로 보강
- **(남북축)** ‘가좌천-송현근린공원-자유공원-내항-축항대로변’으로 이어지는 남북 방향의 녹지축도 인천내항 구간은 공원·녹지로, 남항 일원은 워터프런트, 기존 시가지 구간은 연결녹지나 완충녹지 등으로 보강

>> 수변축

- (해변) 북성포구와 남항 구간은 해양수산부의 항만기본계획과 연계하며, 월미도를 포함한 해변측 전체는 시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및 정비사업 등을 통해 정비함
- (내항 인공수변) 항만재개발 단계별 사업과 연계하여 바다 보듬길로 정비



[수변축]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도시를 원한다. 경계를 넘어서...

제Ⅳ장 마스터플랜

- 1 부문별 계획
- 2 권역별 계획
- 3 핵심사업 개발계획(안)
- 4 연계사업 개발계획(안)



제IV장 마스터플랜

1 부문별 계획

1.1 글로벌 첨단 신산업 육성계획

1.1.1 인천 특화산업

(기본방향) 글로벌 미래전략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인천의 특화산업(송도 바이오 CDMO*, 반도체 후공정 등)을 육성하고 도시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로 확대

*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위탁개발생산)

» 바이오 산업

- (범위의 경제) 레드(의약품)+그린(해양생물자원)+화이트(플라스틱) 바이오 클러스터 : 인천 지역의 해양 및 농식품 자원을 활용한 그린 바이오 및 매립지를 연계한 화이트 바이오로 확장하여 바이오 분야를 총망라하는 종합 클러스터로 육성
- (역량강화) K-Bio랩+글로벌기업+대학병원+인재양성 : 인천소재 병원·대학, 바이오기업(연구소 포함)을 중심으로 한 R&D 및 인력양성 기능 집적화, 특히 그린 및 화이트 분야 R&D 산업에 집중
- (사업화) 글로벌 바이오 앵커기업 유치, 밸류체인 형성 : 바이오시밀러 외 레드 바이오 글로벌 기업, 그린 및 화이트 바이오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해 바이오 전 분야의 밸류체인 생태계 구축

» 반도체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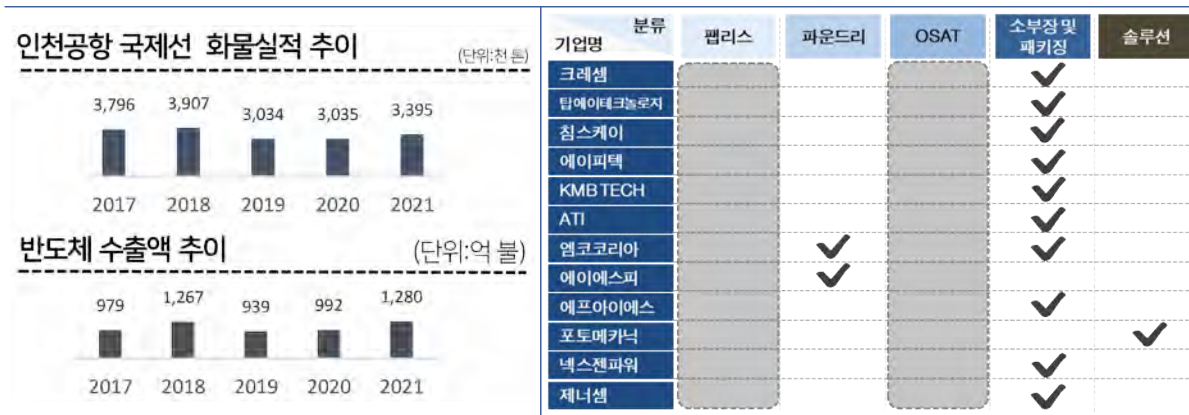
- (미래경쟁력 강화) 반도체 후공정(OSAT)*, 지능형 반도체 산업단지 : 반도체 후공정은 기 입주한 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밸류체인을 연계·집적화함으로써 후공정 생태계 구축 도모, 지능형(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디자인 및 R&D 기능을 집중으로 육성하고, 공향 인접성을 고려한 생산 집적화 단지 구축 고려

* 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 (역량강화) 글로벌 캠퍼스(연구 센터+생산시설), 인재양성 거점조성(인하대, 인천대, 서울대) : 주로 시스템 반도체 개발 및 디자인과 관련된 R&D 시설과 수출을 위한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주요 대학과 연계하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사업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첨단벤처, 앵커, 스타트업 기업유치 인센티브 확대 : 반도체 후공정 및 지능형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관 글로벌 기업을 타겟하여 유치함으로써 시너지 창출 도모

[기존 반도체 관련 통계]



인cheon공항 화물실적 및 반도체 수출액 추이 기존 송도권역 소재 반도체 주요 기업 분류

» UAM(Urban Air Mobility) 산업

- (육성계획) 실증사업을 우선 추진 : 인cheon국제공항 주요 입출국 지역인 서울 및 주요 수도·도시와 인cheon 간 시범 운행을 시작하고, 이후 타 지역으로 확대
- (역량강화) 공항 연계를 통해 산업생태계 및 인재양성 기반구축 : UAM 산업생태계 구축*하고, 인cheon지역 대학 등과 연계하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 인cheon공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UAM 개발 및 생산, 유지보수, 운행 서비스, UAM 운행 관련 시설(버티포트 등) 구축
- (사업화) 성과 모니터링,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한 UAM 상용화 : 시범운행을 통해 공항과 도심 간 이동시간 단축 및 이용자 편의 창출 수준을 평가하고, 유망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

»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산업

- (육성계획: MRO) ①단기(인cheon공항과 연계한 MRO 클러스터 육성: 인cheon공항에 기항하는 다양한 항공사의 MRO수요 흡수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 추진, 클러스터 내에서는 친환경 부품이나 설비 R&D 및 생산업체,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업체 등 항공기 MRO 관련 전후방 기업 유치
 - ②중기(앵커기업* 유치로 클러스터 기반 구축) : 항공기MRO 전후방 생태계 구축을 위해 유관 기업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앵커기업을 목표로 하되, 우선 국적사의 MRO시설을 유치하고 점차 글로벌 항공사나 MRO 전문업체로 확대
 - * 기체 개조, 중정비 등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항공사 혹은 KAL 통합엔진정비센터 등



- ③중·장기(화물기 개조 및 리스사업으로 확대) : 항공기 MRO 역량을 기반으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화물기 개조 사업이나 개조 후 리스사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
- (육성계획: 항공MRO + DX교육 거점화)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관련 대학 학과, MRO업체, DX(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전환)업체 등을 중심으로 한 R&D 클러스터화를 통해 전통적 MRO산업을 4차산업으로 전환
 - 항공MRO DX교육 : 대학 협업으로 DX, Computer SW 및 AI, UI/UX(User Interface/User Experience) Design 인력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산학연 연계 : 대학 관련학과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DX 전문인력과 항공MRO 산업을 위한 융합 인력양성

» 문화·관광 산업

- (국내관광) ①지역자산(인천내항, 덕적군도 등 인근도서) 활용,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발굴, ②대중교통 접근성과 연결성 향상, ③글로벌 관광거점의 조성, SNS 홍보 마케팅 강화
 - 문화관광산업으로 인천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거점 발전, 인프라 육성 및 이를 통해 인천의 정체성 부각 및 집객력 강화
- (해외관광) ①인천공항을 스타오버 관광거점, 테마파크로 조성, ②K-컬처 복합 리조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③글로벌 공항도시, 항구도시, 첨단도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홍보마케팅 강화

1.1.2 성장산업

(기본방향) 미래 성장산업으로 국제적 트렌드에 따른 기업의 RE100/CF100 달성 지원, 인천 경제 및 산업 구조 확장을 위한 특화금융 산업 클러스터 육성

» RE100/CF100 산업

- (육성계획) 대상기업의 RE100/CF100* 달성을 위한 Industrial Complex화: 재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기반으로 RE100/CF100 달성이 가능한 기업들을 집적화하는 RE100/CF100 산업단지 육성

* Renewable Electricity 100(재생에너지 100%) / Carbon Free 100(무탄소에너지 100%)

- (단계적 접근) 풍력/수소/바이오 가스 제공: 지형적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해상 풍력이나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바이오 가스 활용, 친환경 에너지 생산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인천 및 인근 수도권 지역에 공급 가능한 인프라 구축
 - (사업화) 신재생에너지 제조 및 유통업체 유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나 관련 장비업체 및 유통업체 등을 유치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기반 마련
- * 화력발전소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산업통상자원부, '23.1)' 상 석탄화력발전 기능 폐쇄 등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대책을 수용함

[미래성장산업 RE100/CF100, 특화금융]



RE100 참여기업

» 특화금융 산업

- (육성계획) 인천의 미래전략사업을 지원하는 특화금융체계를 구성하되, 초기에는 특정산업 위주로,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산업 전체를 지원하는 형태로 고도화
 - 단기적 : 바이오, 반도체, 친환경에너지 등 인천의 미래전략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신산업, 첨단물류, 녹색금융 등 특정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금융 프로그램 및 상품 마련·운영
 - 중·장기적 : 지역에서 추진하게 될 전략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주도적 금융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금융주체(예 : 인천 지역은행 등)를 설립하고, 송도·청라 등에 입주한 기존 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인천지역에 특화된 금융체계로 발전 유도

» 글로벌물류 산업(Sea & Air)

- 부가가치물류단지* 구축 : 단순 물류단지에서 벗어나 외국에서 컨테이너 화물로 운송된 부분품을 면세구역에서 조립·가공, 라벨링, 검측, 재포장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부가가치물류단지 조성
 - * 신항 배후단지: 바이오 생산클러스터, 부가가치 물류단지 확대 추진 필요
 - * 물류기업의 유치 가능성 증대를 위해 보험이나 금융 측면의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 필요



- 항만배후단지에 글로벌 물류센터(GDC) 유치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자상거래 물동량을 확보하고 연계 운송모델(Sea & Air)* 활성화를 위해 인천 신항 등 항만배후단지에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단지를 구축하여 경제특구화 함으로써 유망 글로벌 기업을 유치

* 예 : 항공운송(유럽→인천공항) 후 해상운송(인천공항→인천항→중국 등 인근 국가)

- (사업화) RFS(Road Feeder Service)* 인센티브 제공 및 통관/관세 유보 : 항만과 공항 간 효율적 연계 및 연계 물동량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통관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 트럭으로 화물을 공항까지 운반하여 항공기로 환적 후 최종목적지로 운송하는 복합운송 시스템

** 항만과 공항 간 연계 관점에서의 차별화된 제도 수립

» 도시첨단물류 산업

- (육성계획) ①드론, UAM, 로봇 배송 등 미래형 배송 시스템 구축, ②바이오 의약품, 반도체 특수화물 배송 네트워크 구축, ③자동화 시설 확대, 스마트물류센터 건립

- ①미래형 배송 시스템 구축 : 전자상거래 및 생활 물류 시장 성장과 인천 및 서울 지역의 개인 소비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드론이나 로봇배송 도입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선 인천 지역 내에서 시범 사업 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예: 드론, UAM, 로봇 배송 등)
- ②특수화물 배송 네트워크 구축 : 콜드체인 보관시설과 특수포장 및 무진동 운송 등이 필요한 화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유치 및 집적화 도모 (예: 바이오 의약품, 반도체 등)
- ③자동화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 향후 인천 도심, 공항 및 항만 주변에 구축될 물류센터나 창고의 경우 자동화 확대 및 스마트물류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거나, 지자체 공동 투자 등 추진

[첨단물류산업 Sea & Air, 고부가가치물류]



부산항만공사 로테르담 물류센터



미국 아마존 스마트물류센터

1.2 메가폴리스 형성 계획

1.2.1 세계로 웅비하는 인천 공항경제권(Aerotropolis)

(기본방향) 공항경제권 성장전략을 통해 인천을 세계 거점공항 도시와 연계하는 메가폴리스로 육성하며, 세 개의 성장회랑 형성으로 공항경제권 성장동력 확보

가. 공항경제권의 기본 틀

- (개념) ‘공항경제권(Aerotropolis*)’이란 공항 자체의 기능(수송능력, 효율성 등)을 강화하고 공항을 통해 일어나는 산업활동(여객, 화물운송)과 연계되는 다양한 국내 및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가 형성되는 지역

* 존 카사르다(Aerotropolis : The Way We'll Live Next, '12)

- (계획범위) 인천 공항경제권을 직접 및 광역 영향권으로 구분하며, 존 카사르다 교수가 제시한 세계 7대 에어로트로폴리스*를 글로벌 연담권으로 설정

* 암스테르담(네덜란드), 디트로이트·멤피스(미국), 두바이(UAE), 하이데라바드(인도), 충칭(중국), 송도(인천)

[계획범위 설정]

구 분	직접 영향권	광역 영향권	글로벌 연담권
공간범위	5대 권역을 포함한 인천시 전역	인천 및 수도권 서남부지역	세계 7대 Aerotropolis
규 모	300만명	1,000만명	58개국 189개 도시 연계

나. 공항경제권 구상

1) 공항경제권 확산방안 : 영향권 확산

» 1단계) 직접영향권

- (공간적 범위) 5대권역(영종, 강화옹진, 송도, 청라 및 내항 권역)을 포함한 인천시 전역
 - 공간특성 : 국제공항 및 공항의 입지 경쟁력에 힘입어 성장한 도시형 산업 생태계가 집적
 - 특화업종 : 바이오 CDMO, 반도체 패키징 등 신산업, 항공지원 및 물류, 국제 업무 등 서비스업
- (계획방향) 초격차 공항화와 직접영향권의 입지경쟁력 강화 유도사업 병행 추진
 - 인천국제공항 : ‘초격차 공항’의 구현을 위해 공항구역 내 MRO·물류 단지 확장 사업 및 랜드마크 프로젝트(T1 주차장 부지) 등 시행



- 공항경제권 : 인천시와 정부 부처, CIQ(세관·출입국·검역) 등 관련 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직접영향권 중심권역 내 입지경쟁력 강화 유도
- 영종권역 : ①항공 운송·물류, MRO 관련 산업·교육 및 부품 등 직접 산업군과 공항 접근성이 중요한 신산업 육성, ②이를 위해 공항구역 및 인근지역에 항공 정비시설·장비센터와 유보지 등을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 ③공항 이용객을 위한 관광시설, 마이스 산업, 복합리조트 등을 조성
- 청라·강화권역 : 신산업 파운드리 확장부지, RE100/CF100, 특화금융, 모빌리티 산업, 신생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송도권역 : 공항경제권 미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인천형 신산업 지식기반 플랫폼’을 육성하여 인재양성과 연구·R&D의 거점 역할을 담당토록 하며, 국제 교류와 국제금융 등 공항경제권의 핵심기능을 부여

» 2단계) 광역영향권

○ (공간적 범위) 김포, 시흥·안산, 화성, 서울 서부권

- 공간특성 : 인천공항 및 인천항 등 국제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경부축 및 수도권외곽-서해안축에 의해 상호 교류가 용이하며, 기능적으로도 연계 및 경쟁을 통한 상호 발전관계에 있음
- 특화업종 : 국가성장을 이끄는 신산업, 국제 비즈니스, 연구·R&D, 행정 등 국가의 간선기능이 집중된 지역임

○ (계획방향) 직접영향권의 성장요인이 주변지역의 특화기능과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새로운 미래 일거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 연계체계를 모색

- 구체적 계획대안 : 3대 회랑 구체화 등 광역적 발전방향을 검토하되, 주변 기능과의 연계나 차별화방안과 광역 기반시설 공유방안 등을 고려함

» 3단계) 글로벌 연담권

○ (공간적 범위) 세계 7대 공항경제권 및 권역 내 중심공항과 연결되는 58개국 189개 도시를 도달범위로 설정

○ (계획방향) 세계 7대 공항경제권과 인적·물적 교류 강화를 통해 ‘Global Top10 City, INCHEON’로 도약할 수 있는 활동기반을 확대함

- 한편, 7대 권역 중심공항과 연결되는 58개국 189개 도시와의 연계체계 강화를 통해 시장 다양성을 강화함



[인천공항 경제권]

2) 공항경제권 실현전략 : 회랑(Corridor)화

» 개요

- (공간적 범위) 공항경제권 내 직접영향권+광역영향권
- (계획방향) 지역발전전략으로 세 개의 성장축(회랑: Corridor)를 활용한 인천 메가폴리스 육성방안을 설정
 - 공간특성 : 인천국제공항이 가진 국제적 관문으로써의 매력과 그 간 송도국제도시가 축적해 온 공항경제권으로써의 입지경쟁력 보유

» 개념 및 회랑별 구상

- (개념) 직접영향권 내 경쟁력 요인을 광역영향권으로 확산하기 위한 계획적 수단으로, 광역교통망을 따라 형성된 주요도시의 연계 가능한 기능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산업경쟁력을 강화
 - 기대효과 : 세계 주요도시들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효과적 방법 중 하나가 메가시티 전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3대 회랑을 통한 인천 광역권의 메가폴리스화는 인천이 'Global Top10 City'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임
- (국제교류회랑) 영종(해양관광·복합리조트·MICE)-청라(스포츠·문화·특화금융)-서울(국제업무·금융·관광)
 - 거점 : 글로벌 교통거점인 인천공항이 관문(gateway)역할 담당
 - 회랑 특화방향 : ①서측 해안방면: 공항구역과 용유도 일원의 복합리조트, 덕적군도 등 서해도서의 해양레저공간 정비, ②동측 서울방면: MICE, 국제업무 및 특화금융, 스포츠·문화 등 교류공간 개발



○ (신산업회랑) 강화(그린바이오 CDMO)-영종(항공 관련 산업·신산업 파운드리)-송도(신산업 연구·R&D코어)

- 거점 : 레드바이오*, 반도체 후공정** 등 신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관련 연구 및 R&D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송도권역이 거점 역할 담당

* 송도에 앵커기업(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과 100여 개 산·학·연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단일도시 기준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바이오리액터 116만 ℓ) 보유

** 반도체 후공정(패키징·테스트) 분야 세계 2·3위 기업인 앰코코리아와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송도와 영종권역에 소재하며, 한미반도체 등 후방산업 기업 1,299개사가 인천에 위치

- 회랑 특화방향 : ①송도는 연구·R&D와 고급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을 통한 오픈랩 운영, 벤처 보육 및 유니콘기업 육성, ②북측 영종·강화방면: 그린바이오 및 기존 CDMO*, 반도체 파운드리, 항공MRO 등 확장부지 마련

* 위탁개발생산(Contract Development Manufacturing Organization)

○ (해양친수회랑) 청라(바다이음)-내항(해양친수)-송도(친수여가)

- 거점 : 5개 권역 중 다양한 형태의 친수 여가·레저공간이 권역 내 네트워크 형태로 반영되어 있어 활동공간의 매력도가 높은 송도권역을 거점으로 설정

- 회랑 특화방향 : ①송도권역: 내부 순환형 수로를 따라 여가형 친수공간 정비, ②내항일원: 1·8부두, 월미도·북성포구의 바다 접근성 개선과 역사·문화공간 확충, ③청라일원: 정주·산업공간과 수변의 바다이음을 지속적으로 추진



[3대 회랑]

3) 공항경제권 내 광역교통체계 강화

- (기본방향) 3대 회랑의 기능적 연계체계를 지원하는 광역교통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메가폴리스 인천의 경쟁력 강화
- (광역교통) 공항~배후도시 통행 강화로 메가시티 내 도시의 물리적 통합 도모
 - 광역철도 : 제2공항철도(송의역~공항화물청사역), 인천발 KTX연장(송도역~인천역), GTX-D(인천공항~대장), GTX-E(인천공항~덕소)
 - 고속(화)도로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25년 착공예정), 평화도로1단계(영종~신도, '25년 개통) 및 2단계(신도~강화, '30년 준공목표)
- (도시교통)
 - 도시철도 : 인천 지하철1호선 연장(송도달빛축제공원역~동인천역)
 - 간선도로 : 제3연륙교(영종~청라, '25년 개통예정), 제4연륙교(중구 월미도~영종하늘도시), 도로 확장 및 연결(청라 매립지~강화)
- (버티포트) ①공항루트: 인천공항(화물청사역) → UAM특화산업단지(드론시험인증센터) → 계양신도시 → 김포공항(여의도) 방면, ②환승거점 연결: 인천역, 인천대입구역(GTX복합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네트워크]



다. 연관산업, 국가계획과의 연계방안

» 연계 가능한 연관산업

- (바이오 혁신*) ①바이오 R&D 및 제조공정의 표준화·고속화·자동화를 위한 국가 바이오 CDMO(위탁개발생산)** 구축사업을 통해 바이오 제조의 혁신경쟁력 강화, ②2030년까지 감염병 예방 필수백신 3종 이상 국산화, 희귀·난치병 세포·유전자 치료제 3건 이상 개발 등

* 자료: '신성장 4.0전략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22.12)'

** 생명과학에 공학적 기술개념을 도입, 인공적으로 생명체의 구성요소·시스템을 설계·제작·합성하는 기술인 합성생물학 기술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①초격차 기술 : 메가 클러스터에 3대 미래 반도체**의 차세대 기술 거점과 국내·외 연구 인프라 구축 및 민관협업을 통해 시너지 창출, ②생태계***: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실증 테스트베드 조기 구축

* 자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관계부처 합동, '24.1)'

** AI(판교), 화합물(수원), 新소자/첨단 패키징(평택)

*** 자립률: '23년. 30% → '30년. 50%, 1조 클럽 기업: '23년 4개 → '30년. 10개 육성

- (경기강소개발특구) ①R&D거점 한양대 : 인력양성·R&D, 기술사업화 지원, ②사업화촉진지구 :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③사업화거점지구 : 시화MTV산업단지

- 특화분야 :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부품소재

» 국가계획과의 연계방안

- (개념) 3대 회랑의 입지경쟁력을 통해 특화기능을 집적한 후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창출하고, 이를 회랑 밖 국가계획과의 상호 기능적 보완이나 경쟁을 통해 업종 간 융복합과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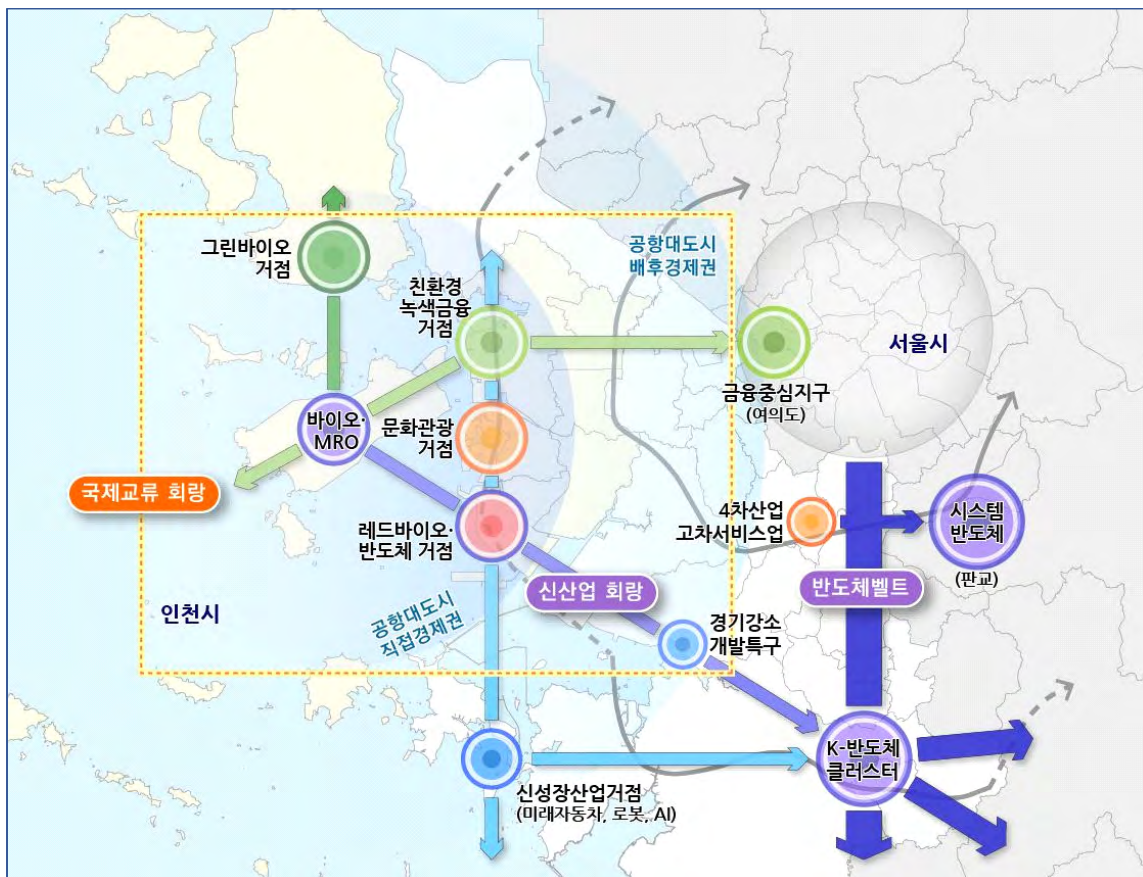
- 기대효과 : 강화된 네트워킹을 통해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구상안)

- 초격차 첨단신산업 플랫폼 강화 : 정부정책 중 본 계획에 부합되는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를 통해 바이오 신산업의 마중물 효과를 유도함으로써 본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도록 함

- 공모 가능사업(예시) : ①강화 : 대규모 스마트팜, 스마트축산 ②송도 : 바이오 창업기업 지원 인프라, 난치병 및 감염병 치료기술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등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융복합 업종(예시) : ①헬스케어 : 정서장애 디지털 치료 플랫폼, ②알고리즘 : 초거대 AI 모델 지원 및 AI 학습·활용의 한계 극복을 위한 AI 핵심기술, ③데이터 인프라: 초고속·저전력 AI 반도체를 활용한 고효율 데이터센터 등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연계 : 신산업희랑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경기도 남부권*과의 기능적 보완 관계를 통해 메모리·파운드리 화성·평택, 후공정 인천, 소부장 안성·인천, 패키스 판교 등의 구도 형성 유도
 - * ①수원 : R&D파크, ②기흥 : 메모리·연구팹(삼성전자 20조원, 증설 중), ③화성 : 파운드리(삼성전자, 가동 중), ④평택 : 시스템·파운드리(삼성전자, 120조원 투자, 증설 중), ⑤안성 : 소부장, ⑥남사 : 파운드리(삼성전자, 360조원, 신규 조성 중), ⑦용인원삼 : 메모리(하이닉스, 122조원, 신규 조성 중), ⑧이천 : 메모리(하이닉스, 가동 중)
- 융·복합 신산업 창출 기대 : 바이오, 반도체, MRO 등 인천의 특화업종이 AI, 데이터, DX, AR·VR 등 신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 융복합 업종(예시) : ①산업 : 금융·보험, 환경, 항공운송, 스마트물류 등, ②국제 교류 : 관광, 국제기구, 교육 등



[연관산업 간 네트워킹]



1.2.2 보물섬 품은 해양도시 인천만들기

- ◆ (추진전략) 글로벌 도시 인천의 매력적인 도시상(image) 형성을 위해 섬 거점화, 명소화 사업과 바다驛 정비를 통해 도서지역을 활동영역으로 편입
- PLAY :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대응한 놀거리 제공
 - WORK : 섬 자원에 이야기를 덧입혀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 LIVE : 해양도시로써 새로운 이미지 구축과 섬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서해 도서가 보유한 매력과 해양활동에 대한 관심을 집목하여 새로운 활동공간으로 정비

가. 기본구상

» PLAY

- (보유자원) 과급력이 큰 젊은 층, 20~30대 여성 신규참여자, 한류 문화소비자 중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방문객 등이 추구하는 여행의 재미와 감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에코투어리즘 자원을 발굴하고 상품화하며, 유희시설을 정비
 - 에코 투어리즘(예시) : 자월도 천문공원, 대이작도 풀등,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백령도 점박이물범 서식지, 대이작도 MZ백패킹 개별여행
- (스토리텔링) 도서자원에 역사적 사실 등을 덧붙여 관광상품으로 각색하여 재방문을 유도하며, 산업과 연계함으로써 확장성 강화
 - 스토리텔링(예시) : 계남분교 영화 '섬마을 선생님' 촬영지, 수기해변 드라마 '풀하우스' 촬영지, 백령도 인당수 등
- (섬 순례 네트워킹) 체류형 여행수요 확대에 따른 관광객의 관심유도를 위해 섬 자원의 단조로움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군도를 연계하는 네트워킹 방안 모색
 - 군도(群島) 네트워킹(예시) : 덕적군도, 서해3도 등

» WORK

- (대규모 토지) 토지소유권 확보가 용이한 국공유지, 대규모 민간토지는 환경·수용력 등을 고려한 대중관광(예: 섬 리조트 등) 시행방안 검토
 - 공공성 확보 : 민간토지 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적정 수준의 개발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익환수, 용도지역 변경 시 공공기여, 랜드마크시설 확충 등을 통해 민간특혜 등 우려 불식
 - 검토가능지역(예시) : 흑도, 굴업도(공공성 확보와 병행)

- (선도사업)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적인 건축가와 조각가, 작가 등이 참여하는 현상설계,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계획(안)을 마련하거나 작품을 제작

* 디지털미디어의 영향력을 이용해 어떤 내용에 대한 팔로워의 의견을 이끌기 위한 활동

- 효과확산*(나오시마 미술관 사례) : 안도다다오 ①베네세하우스(지중미술관+3개 호텔) → ②이에(家)프로젝트 : 공가(公家)를 중심으로 예술작품 조성 → ③사업확산 : 빈집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목욕탕, 카페·레스토랑 등

* 방문객 변화 : '89년(나오시마 프로젝트 시작) 11천명 → '04년(지중미술관 개관) 107명 → '14년 486천명 → 이후 연평균 방문객 650천명(한국경제, '24.3.3.)

- (주민일터 창출) 지역주민 유출방지와 65세 이상 노동 가능인구 수용을 위해 공공재원을 통한 마을 내 일자리* 창출 사업 시행

- 검토가능사업(예시) : ①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생활플랫폼 조성, 안전인프라 개선 등 유형, ②섬발전촉진사업: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시설 개선(수산물 복합센터, 생활서비스시설 등), 섬 관광활성화 등 시행 가능
- 검토가능지역(예시) : ①어촌신활력증진사업: 소야도 떼부리 해변, 큰말마을 등, ②섬발전촉진사업: 덕적도 진리마을 등

» LIVE

- (해양치유지구) 「해양치유자원법」 상 해양치유자원인 인천의 갯벌, 석모도 온천, 해양심층수, 해양경관 등을 활용하여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해양여가 및 친수활동 기반 구축

- 검토가능지역(예시) : 서포리 해양치유지구, 석모도 민머루해변 등*

* '인천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인천시, 2021)'에 반영된 사업임

- (섬 한달 살기*) 단기 상주인구 확보를 위한 최적의 방안 중 하나이며,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육지부와의 접근 편의성이 전제되어야 함

* 시설확충보다 공동체 일원으로 환대하는 분위기가 재방문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중요

- '느리게 사는 삶(Slow Life)'에 대한 가치 확산과 장래 도서-육지 간 교통수단이 확충*되고 다양화되는 경우 섬 한달 살기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국항만기본계획'상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선석 확장계획, 백령공항, UAM·요트마리나 이용 상용화 등

- (정주공간 확보) 덕적군도 등 서해 도서 중 항구(어항)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단기 상주인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을 '한달 살기 마을'을 지정하고, 마을 내 빈집을 정주공간으로 활용



- 마을호텔* : 인구감소, 이주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빈집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마을을 대상으로 ‘섬마을 호텔’ 지정·정비
 - * 예) 마을호텔18번가(정선 고한읍), 마을스테이 제민천(공주 봉황동), 서촌유희(서울 종로), 후즈데어(군산 영화동), 별의별하우스(전주 노송동), 놀루와(하동 악양면)
- 검토가능지역(예시) : 덕적면 내 빈집 158동(단독주택 117동) 중 일반등급 이상 59동(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22.)
- 위케이션 : 디지털 노마드 유치를 위한 해변휴양형 글로벌 혁신 업무공간*
 - * 글로벌 인재유치를 통한 스타트업 연관 기업, 위케이션족 등이 모이는 공간
- 국내 공유오피스 시장규모: '17년. 600억원 → '22년. 7,700억원(Market Reader, KPMG, '23.6)
- 기대효과 : 마을호텔과 휴양형 업무공간 조성 등을 통해 유출되는 상주인구를 보완할 수 있는 단기간 거주인구나 관계인구를 유입함으로써 고령화·공동화 되는 섬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 부여
- (기반시설 확충) 기 지정된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어로인구 감소 등에 따른 어항 내 유희수역 활용 및 해상PAV(personal air vehicle) 운용
 - 검토가능지역(예시) : 마리나항만예정구역(인천, 송도동, 덕적도, 인천터미널), 어선감소로 인한 유희수역 발생 어항, 덕적도 일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등



['섬 한달 살기' 특화권역 및 모빌리티 활용방안]

나. 섬마을 인구소멸현상 지연방안

- (정주여건 강화) 고령화 대응, 청년층 유입을 위한 섬 정주여건 개선사업. 주택 건축, 도시재생, 주거복지, 도시개발, 자산관리 등
 - * 정주여건 강화 사업 등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사업과 연계 필요
- － ①단지개발 : 주거, 관광·레저, 의료, ②재생사업: 빈집·폐교, 물양장·창고, ③주거복지사업: 집수리, 임대주택
- (일자리 창출) 섬 개발, 자원 활용, 소득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도시개발, 도시재생, 자산관리, 주거복지, 사회공헌 등
 - *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은 해양수산부, 인천관광공사 사업과 연계 필요
- － ①예술 : 음악, 문학, 미술·조각, ②레저 : 요트·낚시·트래킹·생태, 숙박, ③상품개발 : 특산품, 기념품
- (관광·문화 강화) 섬과 섬의 연계, 자원 관리 효율성,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도시개발, 도시재생, 사회공헌, 자산관리 등
 - * 관광·문화 강화 사업 등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사업과 연계
- － ①여가 : 전망대·산책로·카페 조성, ②문화 : 공연장·전시장, 홍보관, ③복지 : 마을회관·보건소, 경로당



2 권역별 계획

2.1 영종권역

- ◆ (비전) 글로벌 복합해양도시, 초격차 바이오, 스마트 물류·MRO 혁신도시
- 성장데마 : 항공 물류, MRO 산업과 관광·국제교류활동 활성화를 통해 공항대도시권 개념 실현

2.1.1 특화방향

- (비즈니스) 세계를 향해 열린 게이트웨이 인천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항공사 및 항공물류, MRO 관련 국제업무 기능 도입
 - 항공운송의 특성인 속도와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소형·고가 화물을 처리하는 부가가치물류*의 입지로 활용
 - * ‘부품조달-생산-수출-판매’에서 인천항공을 활용한 운송, 물류단지 내 포장, 라벨링, 조립, 재포장, 검측 등을 통해 상품의 가치를 더하는 물류와 산업서비스, 제조과정이 결합된 신산업
- (워터프런트) 그간 동해안 등에 비해 저평가되던 용유·무의도를 생활밀착형 관광, 가성비 여행 등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도심형 해양레저·여가공간으로 재편
 - 인천의 글로벌 도시화를 위한 도시기능 다변화 측면에서 수도권 주민의 단기간 여행과 위케이션, 인천공항 스탑오버 환승객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특화
- (공항도시) 국제공항과의 시간거리가 입지경쟁력에 비례하는 반도체나 바이오 파운드리, 글로벌 게이트웨이와 연계한 회의·국제업무·해양관광 등 국제교류활동 도입
 - 인천공항 세력권을 경제권으로 확장하기 위한 공항대도시권 개념 실현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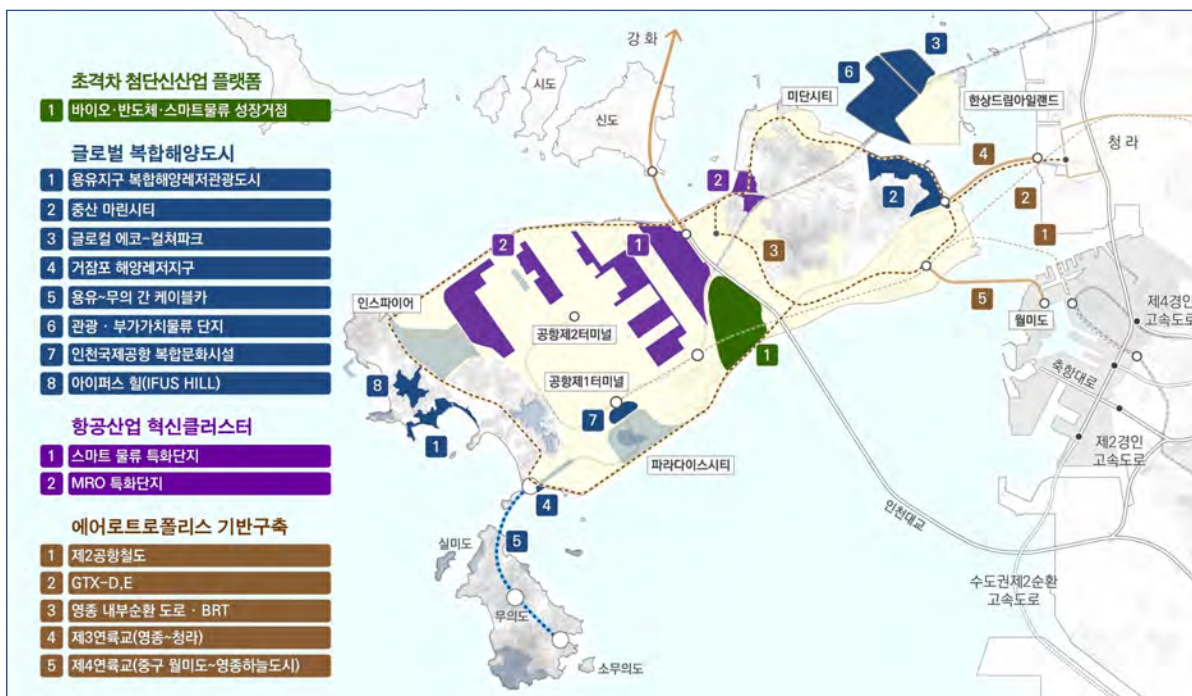
2.1.2 배치구상

» 성장전략

- (초격차 첨단신산업 플랫폼) 인천공항의 국제항공물류 경쟁력*을 활용한 바이오, 반도체, 스마트물류 성장 거점 형성
 - * 국제항공화물 세계 2위 : 화물량 291만톤('22년, 세계 3위 상하이 공항과의 격차 '21년 24만톤 → '22년 339만톤), 의약품·신선화물 성장에 대비한 쿨 카고(Cool Cargo Center) 운영
- (글로벌 복합해양도시) 정주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개발사업*과 수도권 주민, 인천공항 입국 관광객 등을 위한 여가·해양관광거점 개발사업** 등을 반영
 - * 중산마린시티, 미단시티, 관광·부가가치물류단지
 - ** 용유지구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글로벌 에코-컬처파크, 거잠포-무의도 명소화사업, 인천국제공항 복합문화시설, 아이퍼스 힐
- (항공산업 혁신클러스터) MRO와 UAM산업 및 스마트 항공물류를 위한 '스마트 물류·MRO 혁신클러스터'를 수용

» 기반시설

- (에어로트로폴리스 기반구축) 기반시설 확충으로 수도권 및 원도심과의 접근성 개선
 - 제2공항철도, GTX-D·E, 제3연육교(영종~청라) 등 지정계획 및 제4연육교(월미도~영종하늘도시) 반영
 - 영종 내부순환도로 단계별 연장 및 청라까지 연장노선 반영(BRT 노선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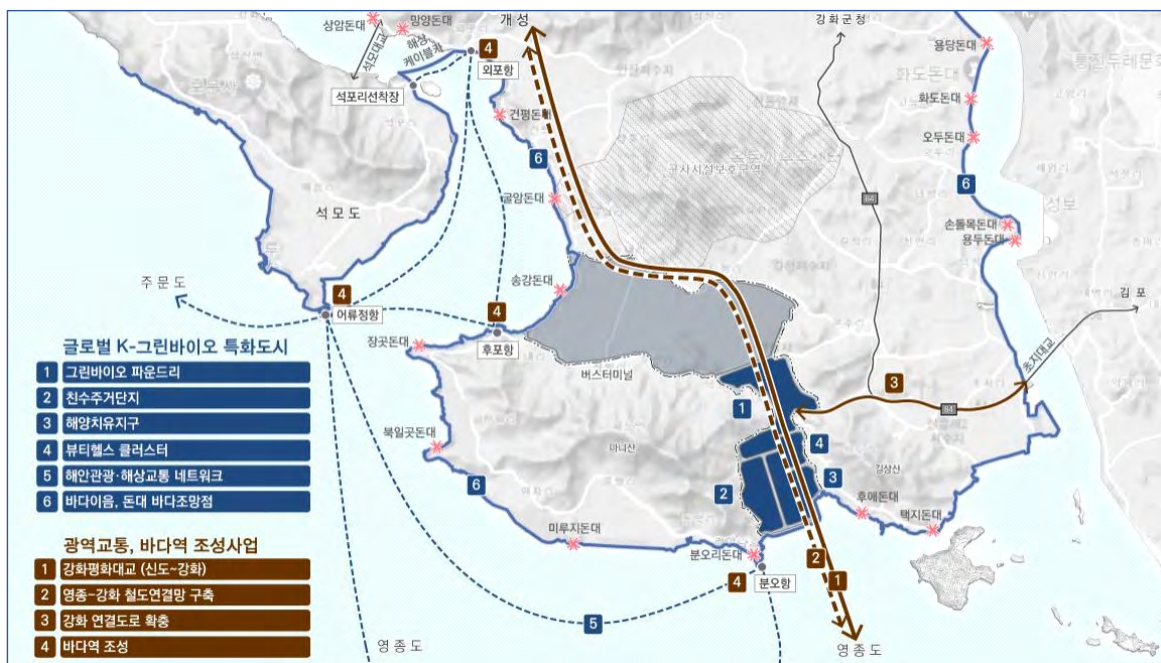
2.2.2 배치구상(강화)

» 성장전략

- (글로벌 K-그린바이오 특화도시) 강화의 자연자원과 송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수준의 바이오테크 역량을 활용해 미래 새로운 먹거리인 그린바이오·건강헬스를 테마로 한 웰빙 신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 글로벌 시장 진입을 도모함
 -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 강화의 농산물 활용한 그린바이오와 청라의 화이트바이오, 송도의 레드 바이오 등 바이오산업 트라이앵글 구축을 통해 그린바이오 특화도시의 성공적인 정착 유도
 - 해양치유지구 : 강화의 천연자원을 활용해 관광·의료·상업이 윈스톱으로 가능한 복합 관광클러스터 건설
 - 친수주거단지 : 기존 수로 및 마니산에서 내려오는 개천을 활용하여 수변과 연계된 다양한 유형의 친수주거단지 조성
 - 접경지역으로 인해 낙후된 강화도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발전 유도

» 기반시설

- (교통망, 바다역 조성사업) 강화평화대교(신도~강화), 철도연결망 구축, 강화 연결도로 확충 등 권역 간 연결체계 강화를 통한 입지경쟁력을 제고하고 바다역 조성을 통해 새로운 교통 연결체계 도입





2.3 송도권역

- ◆ (비전) 글로벌 웰컴 클러스터와 미래 인천 신산업을 이끄는 지식기반산업 플랫폼
- 성장테마 : 고급인력 육성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R&D’, 워터프론트를 활용한 ‘친수여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설정

2.3.1 특화방향

- (교육·R&D) 미래 지식산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송도국제도시 내 국제적 수준의 교육 인프라* 역량을 증가하기 위한 고급인재 육성 및 연구·R&D 시설 클러스터화 추진
 - * K-바이오 랩허브(중기부·인천시·연세대), 대학(인하대 항공우주융합, 인천대 생명과학기술 등), 민간 R&D(포스코 글로벌 R&D, SK바이오 사이언스 등)
- (친수여가) 시민들의 여가·휴식처인 순환수로와 센트럴파크 내 수공간을 수상 레저 수요에 대비한 참여형 레저공간으로 재편
 - 마리나로 지정된 남측수로는 송도국제도시 외해와 연계한 서해마리나 루트와 연결하여 확장성을 강화하며, 동·서측의 램사르 습지는 보전
- (신산업) 송도권역 내 교육·R&D 기능을 통한 첨단산업 기술 및 인력공급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레드바이오, 후공정 반도체 등 특화분야 신산업 집적
 - 메디컬·건강 등 연관산업과의 융·복합 및 클러스터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
 - * 사례) 원노스(One north, 싱가포르) : 바이오·메디컬, 정보통신(ICT), 미디어 등 집적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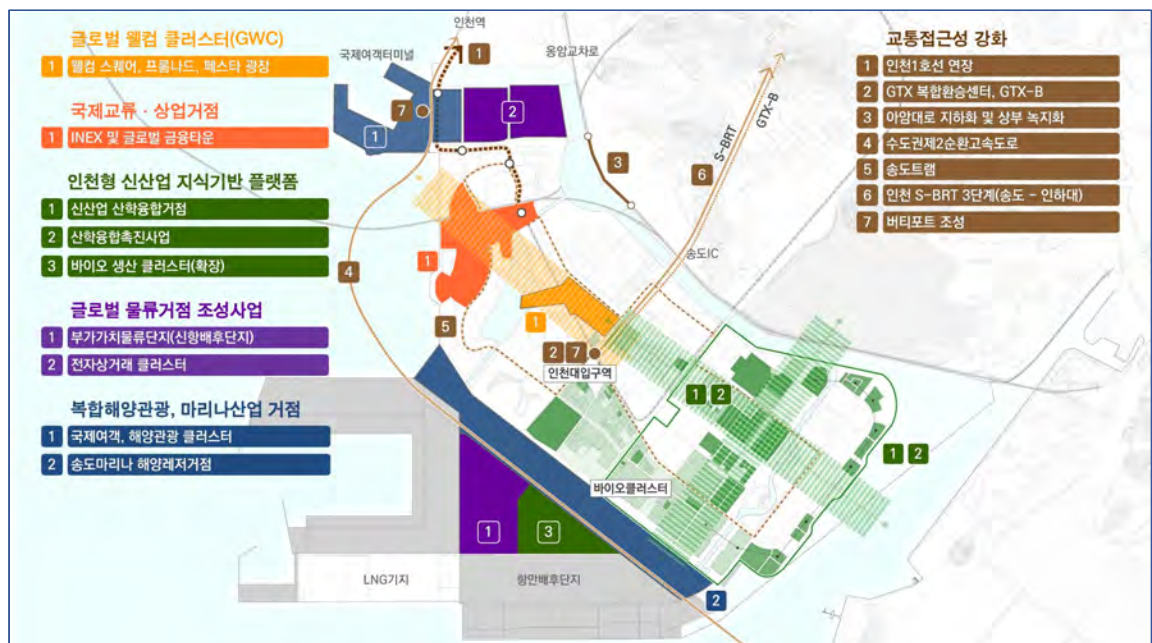
2.3.2 배치구상

» 성장전략

- (글로벌 웰컴 클러스터) 재외동포청 입지를 계기로 센트럴파크와 인천타워대로 일원을 잇는 ‘글로벌 웰컴 클러스터’ 육성
- (국제교류·상업거점) 비즈니스와 도심 속 문화·여가의 글로벌 거점인 6·8공구 내 ‘INEX’ 및 글로벌 금융타운을 거점으로 육성
- (인천형 신산업 지식기반 플랫폼) ‘신산업 산학융합거점’이 지역성장의 지적기반과 고급인력을 공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 생산 클러스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계체계 구축
- (글로벌 물류거점 조성사업) 신산업을 기반으로 신항·공항 연계체계를 통한 부가가치물류 및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로 육성
- (복합해양관광, 마리나산업 거점) 남측수로 마리나와 외해를 잇는 서해마리나 루트, 항만배후단지 일부를 활용한 해양레저산업 등을 포함하는 ‘송도마리나 해양레저거점’ 도입

» 기반시설

- (교통접근성 강화) 인천1호선 연장, 버티포트 조성 등 권역 간 연결체계 강화를 통한 입지경쟁력 제고방안 제안
 - 아암대로 지하화 및 상부 녹지화 등 현재 교통 정체 현상 해결방안 포함
 - * GTX-B 및 환승센터, 수도권제2순환도로, 송도트램, 인천S-BRT 3단계 등 기정계획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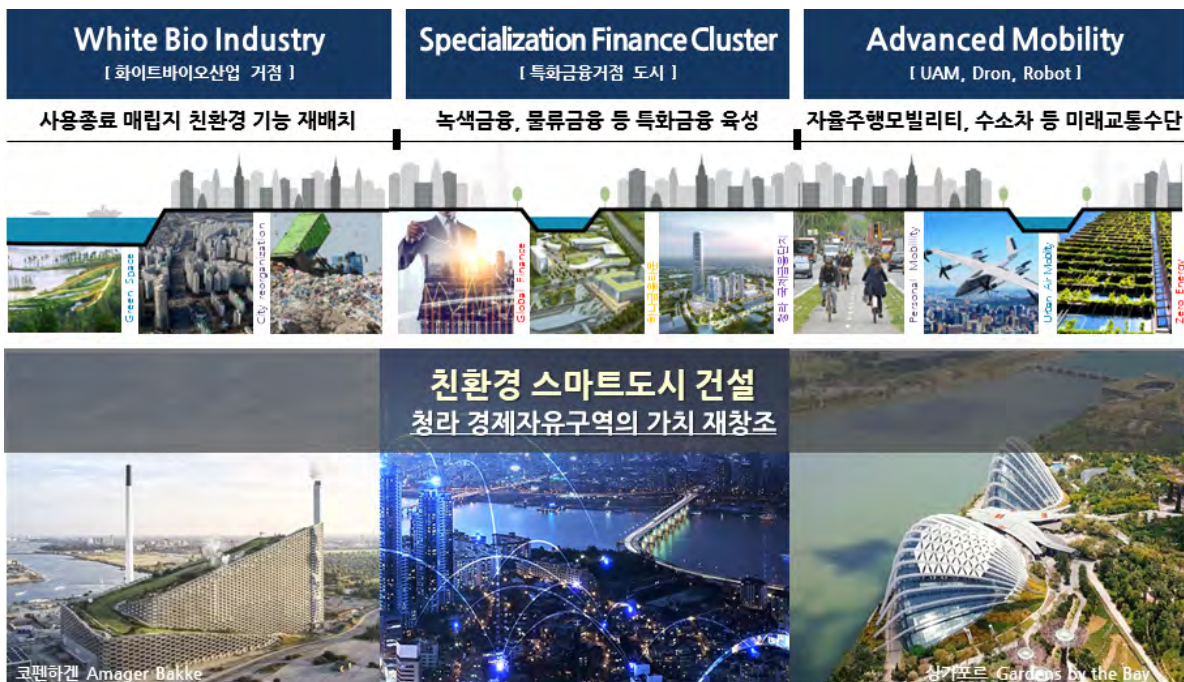


2.4 청라권역

- ◆ (비전) 특화금융 복합도시, RE100/CF100 클러스터와 미래형 모빌리티, 삶의 공간과 바닷길을 연결하는 바다이음 정주도시
- 성장테마 : 친환경 신기술 개발을 위한 ‘화이트바이오’, 녹색금융·특화금융 등

2.4.1 특화방향

- (화이트바이오)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자원을 활용한 화이트바이오 환경연구·실증단지로 도약
 - 수도권매립지의 환경영향에 대한 주민보상차원으로 조성된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공공기관을 거점으로 산학연이 집적해 시너지 효과 발생하는 환경타운 조성
- (금융도시)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녹색금융, 핀테크와 같이 새롭게 떠오르는 금융 산업을 기회요인으로 삼아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으로 금융기업 유치환경 조성
 - 아시아 금융허브인 홍콩의 금융산업 위축에 따라 아시아의 신규 금융허브 조성 필요성 증대 및 청라 기회요인 다수
- (모빌리티) 자율주행, 수소차, UAM드론실증단지 등 미래교통수단산업 거점으로 육성
 - 인천 드론인증센터, 영종 MRO 특화단지, 인근 산업단지 보유 등 기회요인을 사업으로 실현하기 위한 계획 및 기업유치 인센티브 발굴





2.4.2 배치구상

» 성장전략

- (특화금융 복합도시) 금융·물류, 국제업무, 상업·의료 및 엔터테인먼트가 복합되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복합도시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화금융 복합도시’ 형성 유도
- (바다이음, 바다 조망점) 친수공간이 부족한 청라권역에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
- (스포츠 클러스터) 본 과업에서 제안한 스포츠·문화복합단지, 국제스케이트장을 공촌천 체육공원, 드림파크 스포츠센터 등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배치
- (모빌리티 특화) UAM, 드론, 로봇 등의 연구 및 실증화단지를 창업과 벤처기업이 집적된 거점공간으로 육성해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도약
 - 활용 가능한 자산 : 인천드론인증센터,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UAM시험장), 로봇랜드 등
- (RE100/CF100) 혐오시설인 수도권매립지, 발전소를 화이트바이오 등 친환경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인근 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RE100/CF100 클러스터’ 육성

» 기반시설

- (광역교통) 글로벌 관문인 인천공항-청라-서울을 연결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도로, 서울7호선 청라연장 등 뛰어난 광역교통망 활용



2.5 내항권역

◆ (비전) 미래로 출항! 세계로 제물포!

- 목표 :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고, 문화·경제 재도약의 발판으로 활용

2.5.1 특화방향

- (산업경제) 쇠퇴하는 인천내항 및 주변지역의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주도권 확보 및 계획적 개발방안 마련
 - 미래 신산업 산업기반 구축 및 전초 기지화, 정책 수립 및 앵커기업 연구기관 유치를 통해 전·후방 연관산업 확산
- (교통체계) 내항 중심권역을 다핵화해 기능을 분산하고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해 도심활성화 및 교통혼잡 완화 유도
 - 제물포지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인프라 확대
- (문화관광) 지역특화 글로벌 MICE 기반을 조성하여 각종 국제행사 및 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여 국제도시로의 성장을 도모
 - 다수의 역사자원이 분포한 지역에 역사적 가치를 가진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주변지역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2.5.2 배치구상

» 성장전략

- (시민중심도시) 원도심 거점과 내항 동시 개발 추진해 누구나 살고 싶은 시민중심도시로 정주환경 혁신
- (글로벌문화도시) 제물포 지역자원 활용한 새로운 앵커시설 도입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출항하는 글로벌 문화도시
- (산업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주요 핵심사업과 연계하고 전통 뿌리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열린해양도시
- (열린해양도시)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일자리가 풍부한 산업혁신도시

» 기반시설

- (광역교통) 제2경인고속도로 분기 신설, 제4경인고속도로 시점부 변경, 인천 1호선 (송도~동인천 연장), 제물포역 신설(수인선), 제2공항철도(만석역 신설)
 - * 인천발 KTX 등 기정계획 포함
- (권역내 교통) 원도심 내부순환도로 구축, 하버트램(연안부두선) 등



3 핵심사업 개발계획(안)

3.1 영종권역

3.1.1 초격차 첨단신산업 플랫폼(영종하늘도시)

- ◆ (사업개요) 부지면적 약 3,678천㎡ / 추정 사업비 2조 1,469억원
 - 유치시설용지 2,013.8천㎡(54.7%), 공공시설용지 1,664.7천㎡(45.3%)
 - 사업방식 : 「경제자유구역법」 상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시행방안 검토
- ◆ (필요성) 미래 신산업의 확장공간 공급에 있어서 한계에 이르게 될 송도 권역을 대체하기 위한 신규 가용토지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

가.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영종하늘도시 제3유보지를 개발 구역으로 설정
 - 구역계 설정사유 : 인천국제공항경제권과 연계한 국제물류도시 건설목적에 따라 장래 전시·산업 기능 확충을 위한 예비용지임을 고려
 - 구역면적 : 약 3,678천㎡



[개발구역 설정]

나. 기본구상

1) 도입기능 설정

» 사업방향

- (원칙1. 단기적 성과도출) 국책사업 유치를 통한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기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원칙2. 지속가능성) 전후방산업을 고려한 연관업종 배치, 단지의 자족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 성장 동력 확보

» 신산업

- (바이오) 송도신도시-남동공단 내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인천 바이오 트라이앵글’ 거점화 추진

* 분담 및 연계체계 : 영종(바이오 생산 및 R&D, 글로벌 협력 거점), 송도(인력양성, R&D · 인큐베이터, 레드바이오 생산), 남동공단(소부장 강소기업 거점, 원부자재 공급)



- 성격 : 바이오 혁신생태계*(의약품 제조·패키징, R&D 등) 및 글로벌협력거점 육성
 - * ①융합 : 반도체·디스플레이·나노, ②실증 : 이중산업 연계·융합, 디지털 헬스, ③바이오데이터 활용 : 빅데이터 구축·공유, 글로벌데이터 허브화 (바이오경제2.0 추진방향, 산업통상부, '23.07)
- 추진동력 : 국가공모사업(예정) 유치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활성화
 - * ①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국 지향, ②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특화단지 지정, 클러스터 고도화 등) (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 산업통상부, '23.07)
- (반도체) OSAT(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글로벌 반도체 첨단 패키징* 및 R&D 기반 구축
 - * 반도체 소자 미세화 기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칩을 단일 칩에 적층하는 방법
- 분산체계 : 국가적 차원에서도 경기도가 생산을, 인천이 패키징을 분담하는 산업 구조가 효율적*
 - * 글로벌 반도체 수요기업 : 가격협상 주도권 확보를 위해 생산과 패키징 협업체계 분리 추세
- (스마트 물류) 인천공항과 연계한 첨단물류 인프라* 조성을 통해 글로벌 항공물류 허브 구축
 - * 화물터미널 자동화·디지털화, 자율주행 조업 차량 및 웨어러블 조업장비 도입 등
- 항공화물—도심 물류 간 결절점 : 거점도시 외곽의 광역도시권 첨단물류단지, 도심 인근 물류 인프라 등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 담당
- 물류 정보 통합* : 통합 플랫폼 구축 및 민간부문에 데이터 개방을 통해 업무 효율화 및 신산업 창출** 유도
 - * 국내·외 육해공 물동량, 창고 및 운송 차량, 수출입 정보 등
 - ** 무인배송 상용화 단지(로봇·드론 배송 등), 차세대 물류기술 구현단지(콜드체인, 자율주행 화물차, 도시철도 활용 지하 물류 등) (신성장4.0전략 추진계획, 관계부처 합동, '22.12)

» 배후도시

- (역할) 신산업 지원기능을 수용하며, 직주근접을 위한 정주기능 역할을 담당
 - 국제교류 중심축 : 영종대로(하늘도시)와 공항동로(화물청사역)을 연결하는 중심 가로를 따라 선형(동서 방향)으로 배치하며, 코어 기능인 상업·국제업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 도입
 - 정주공간축 : 생활가로*를 따라 이어지는 주거, 생활편익시설, 학교 등 배치
 - * 남북방향의 집산도로, 일방통행
 - 복합환승센터 : 상업 및 생활 편의시설과 다양한 교통시설이 복합*된 교통결절점 구축
 - * 환승 수단 : 보행 및 PM(Personal Mobility), 마을버스, 간선버스, UA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환승 기능을 복합

2) 개발구상

- (공간배분) 대상지 중심지에 국제업무를 배치하여 글로벌 기업(바이오, 반도체 등)의 업무공간을 조성, 배후지역은 산업·주거·상업이 어우러지도록 배치
 - 대중교통 : 통과교통처리를 위해 격자형 간선 도로망 체계를 구성하며, 단지 내부는 순환형 보조간선(링 로드) 체계를 구성
 - 간선도로와 링로드의 교통결절점과 업무공간을 연결하는 집산도로를 구성하며, 집산도로 내 배후도시를 배치하여 출퇴근 동선을 간소화함
 - 녹지체계 : 생태자연도 2등급지를 근린공원으로 설정하여 보전하며, IFEZ개발계획에 반영된 남북방향의 선형 녹지축을 계획에 반영*
 - * 근린공원-중심공원-수변공원
 - 도심 거주자들이 생활공간 속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여가공간이자 소생물권(Biotope), 통경축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



[개발구상]



상업·국제업무지역 내 UAM복합환승을 테마로 한 T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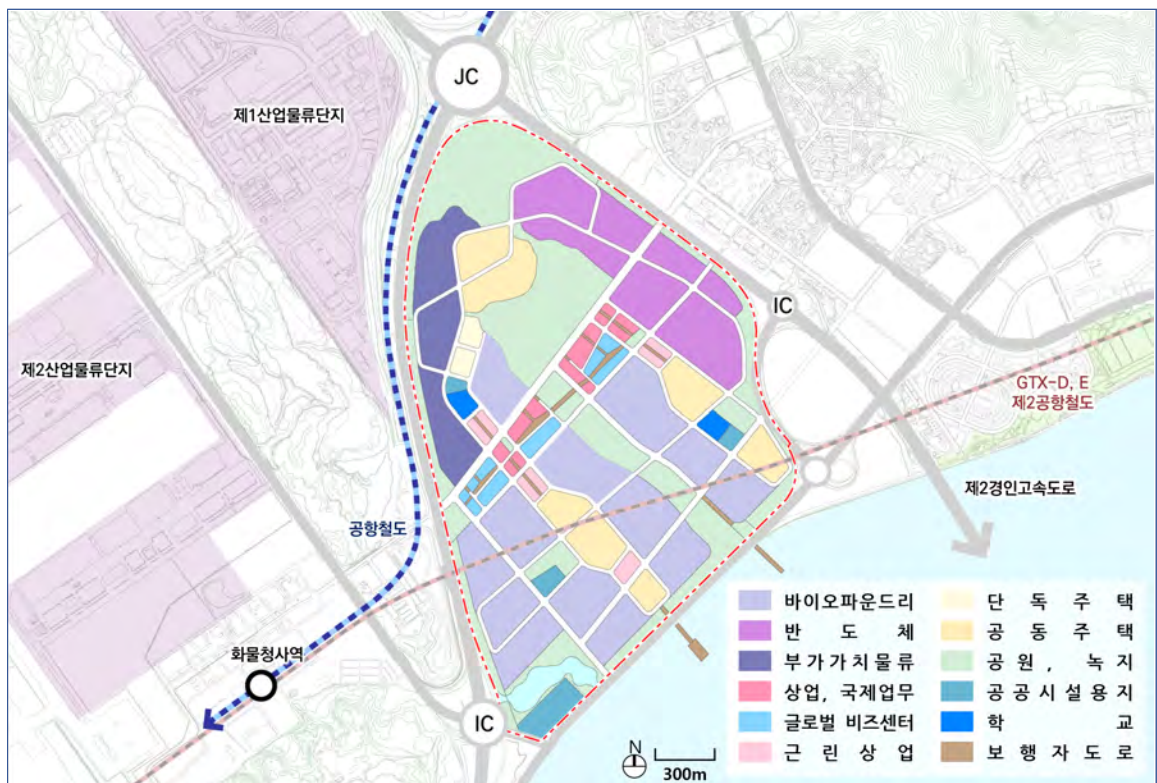
다. 개발계획(예시)

○ (사업면적) 3,678.5천㎡(1,113천 평)

－ 유치시설 용지 2,013.8천㎡(54.7%), 공공시설 용지 1,664.7천㎡(45.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천㎡)	구성비(%)	비 고
합 계		3,678.5	100.0	－
1. 유치시설 용지		2,013.8	54.7	－
바이오 파운드리		869.2	23.6	－
반도체		424.2	11.5	－
부가가치물류		212.5	5.8	스마트물류 포함
상업용지	상업, 국제업무	67.7	1.8	－
	글로벌 비즈센터	63.1	1.7	－
	근린상업	45.7	1.3	－
주택용지	단독주택	26.5	0.7	－
	공동주택	304.9	8.3	－
2. 공공시설 용지		1,664.7	45.3	－
공원·녹지		1,030.9	28.0	－
공공시설		99.0	2.7	학교, 환경공단, 주차장 등
도 로	도 로	485.9	13.3	－
	보행자도로	48.9	1.3	－



3.1.2 용유지구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 ◆ (사업개요) 부지면적 약 645천㎡ / 추정 사업비 5,816억원
 - 유치시설용지 288천㎡(44.7%), 공공시설용지 357천㎡(55.3%)
 - 사업방식 :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방안 검토
- ◆ (필요성)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이며,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있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가.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인천도시공사(iH)에서 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 구역계 설정사유 :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공모를 통해 국비사업 참여 가능한 지역 설정
 - 구역면적 : 약 645천㎡



[개발구역 설정]

- (구역개요) 인천도시공사(iH)가 「도시 개발법」에 의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
 - * '23.08. 용유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iH → 중구청 → 인천시)
 - 도입기능* : 유치시설용지 44.7%(주거용지 9.0%, 상업용지 10.4%, 복합시설용지 25.3%), 기반시설용지 55.3%
 - * 자료)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안)(인천시 내부자료, '22.12.)'

나. 기본구상

1) 도입기능 설정

» 사업방향

- (사업구조) iH의 개발계획 기본골격 유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 + 추후 국비 지원 국가공모사업* 참여방안 검토
 - * 예)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해양수산부) 공모사업('24년 중 공모 예정)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념)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 예술), 쉴거리(리조트), 먹거리(식당) 등을 갖춘 해양레저관광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 개발계획상 도입시설과 부합하나, 국비 지원 요청을 위해 공공성이 강한 사업 추가 발굴 필요(공모지침은 확정 후 공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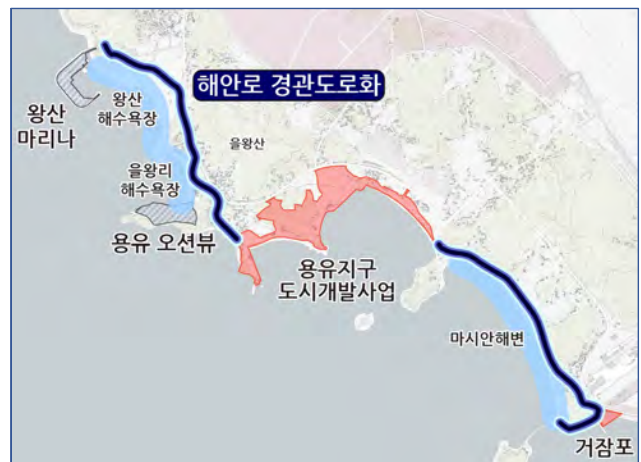


» 기능설정

-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안)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양 레저·관광활동·산업이 집약된 복합지구로 계획
 - 개발계획(안) : 수변도로를 따라 숙박, 문화·상업이, 배후지에는 MICE·숙박과 F&B가, 주거는 단독주택과 복합기능의 공동주택이 배치된 관광도시
- (국고지원사업: 예시) 해양치유센터, 마리나 비즈니스 코어 등
 - 근교형 해양치유센터* : 수도권·인천공항 등 국내·외 잠재시장과의 접근성, 대형 병원 연계성, 가족과의 심리적 연대감 등 입지적 장점 보유
 - * 해수부에서 추진 중인 4대 권역 해양치유센터인 군 지역 내 전원형·휴양형 시설 차별
 - 마리나 비즈니스코어 : ①인천시 구역 내 마리나 비즈니스* 기반 조성가능, ②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레포츠 체험공간** 확충 및 수요확산 거점으로 활용 가능
 - * 요·보트 전시·판매 및 임대, 보험·금융, 선박 계류·보관, 정비·R&D 등
 - ** 요트·레저보트 체험활동 및 교육시설, 마리나 전문가 육성공간, 마리나 지원기능 등
- (해안로 경관도로화) 마시안해변에서 왕산마리나에 이르는 해안도로(마시안로-을왕로-용유서로423번길, 용유로·용유서로 등) 집산도로 제외)

2) 개발구상

-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자 이후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
- (해안로 경관도로) 지역 매력도 제고 및 관광객 유인을 위한 공공부문에서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시행
- (통행방식) 사업시행 시 계획여건과 교통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최선의 방식을 선택하되, 주민불편 최소화 필요
 - 도심 내 구획도로를 보행자우선 도로로 개선하는 경우 적용하는 기법*으로는 ①우선통행 : 보행·자전거, PM(Personal Mobility), ②상시허용 : 비상차량, 사회적약자 탑승차량, ③제한적(시간/구간) 허용 : 서비스차량·대중교통 및 거주자 차량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 「보행안전법」상 보행자우선도로에 시설물 기준 준용



[해안로 경관도로화 사업구간]

3.1.3 중산마린시티

- ◆ (사업개요) 부지 면적 약 1,835천㎡ / 추정 사업비 1조 4,803억원
 - 유치시설용지 1,008천㎡(54.9%), 공공시설용지 827천㎡(45.1%)
 - 사업방식 : 「경제자유구역법」 상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시행방안 검토
- ◆ (필요성) 장래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개발압력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공 개발 유도 필요

가. 개발구역 설정

- (구역계 설정기준) 단계별 사업시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형토지 확보를 위해 국·공유지 집중 분포지역을 포함
 - 지장물 : 20년 미만 건축물이 비교적 적고, 그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개발구역에 포함
 - 개발구역에서 제외하는 경우 난개발이 예상되는 잔여부지는 개발구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함
- (개발구역) 공항고속도로 남측 개발 가용지를 개발구역으로 설정하며, 비교적 양호한 건축물이 집중된 집단주거지(A구역)*는 개발구역에서 제외
 - * 기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국토계획법」 제75조의2)을 활용하여 계획적 개발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구역계 설정사유 : 주변지역과 경계를 형성하는 동강천과 중로1류, 구거, 영종하늘도시 경계부를 구역계로 설정하였으며, 잔여부지 발생 가능성 최소화 방안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 구역면적 : 약 1,835천㎡



[개발구역 설정]



나. 기본구상

1) 도입기능 설정

» 사업방향

- (원칙1) 중산동 일원 개발 가용지(약 1,835천㎡)를 공공이 주도하는 콤팩트 시티 개발로 경제적 효과 극대화
- (원칙2) 나대지 상태의 국·공유지 등 조기 활용가능 토지에 정책사업 배분

» 기능설정(존별)

- (글로벌한인문화타운) ①타운: 국내 이주 해외동포의 조기정착을 위한 정주 공간과 생활편익시설 제공, ②홈 커밍 콤플렉스: 단기체류 · 문화교류 · 산업연수 · 대학교육, 비즈니스 등을 위해 방문하는 재외동포의 거점역할 담당
- (웰컴빌리지) ①F(Fun)-존: 음식·쇼핑·공연·도심관광 등 ‘재미있는 도시공간’ 창출, ②W(Working)-존: 글로벌 접근성과 국제기구 이전(GCF 등)의 여건을 활용하여 국제업무 및 지식산업 등 양질의 일자리와 국제교류 공간으로 특화
- (피싱 콤플렉스) 24시간 활동하는 CAZ(Central Activities Zone) 근무자를 위한 ‘일상 속의 여가’를 위한 도심형 복합휴양 및 소비공간으로 특화
 - 도입기능(예시) : 낚시를 테마로 한 복합형 여가위락시설, 숙박시설, F&B와 리테일 상가가 늘어선 테마형 쇼핑가로(mall), 휴식공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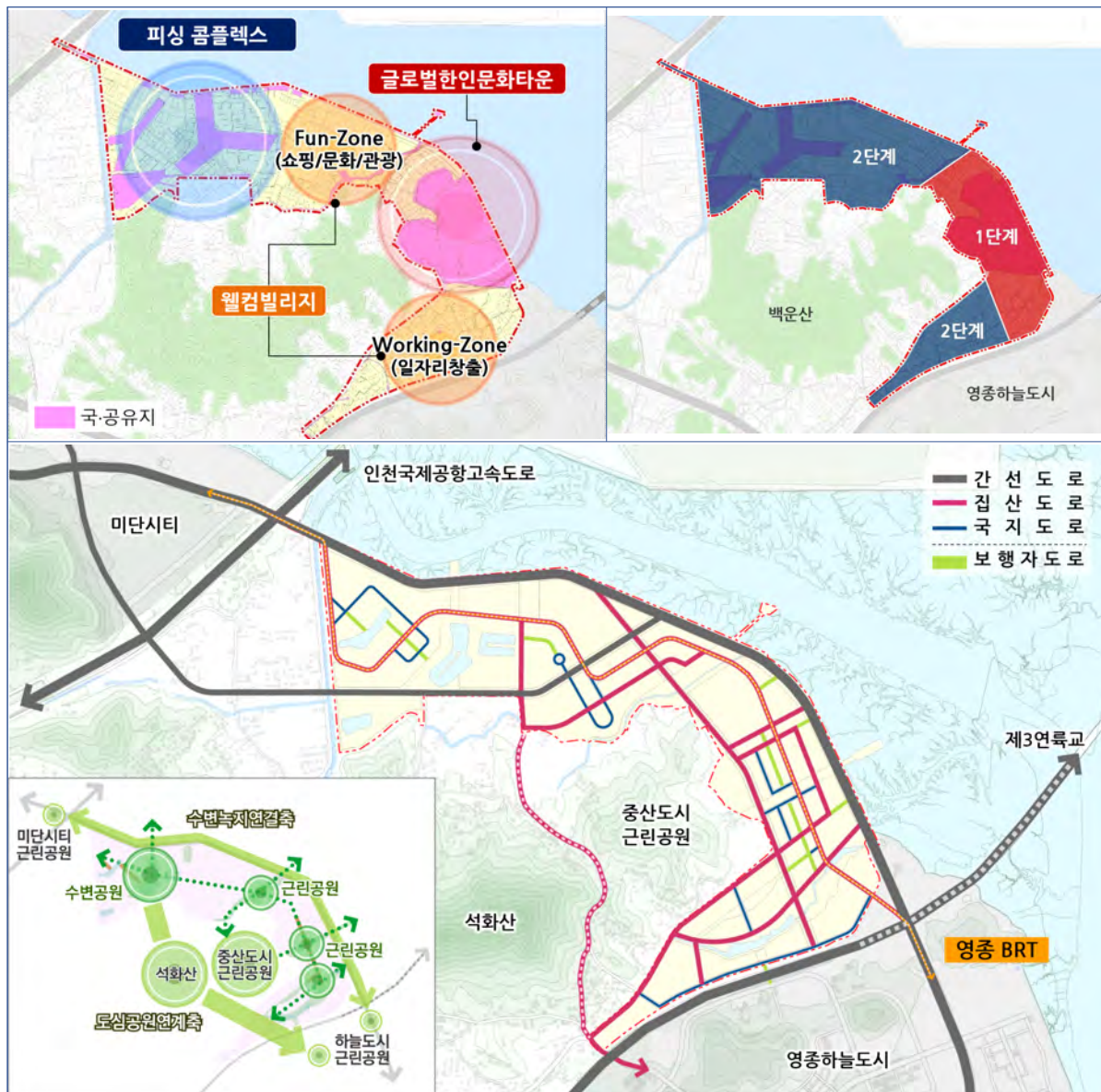


[중산마린시티 전경]

2) 개발구상

- (공간배분) 정주공간인 글로벌한인문화타운 양측에 일자리 공간인 웰컴빌리지를 배치, 피싱 콤플렉스는 웰컴빌리지 F-zone과 연계하여 배치
 - 대중교통: 외부 및 기능 상호 간 연계성 향상을 위해 단지 중심부에 자동운전 체계를 갖춘 집산도로를 구성하며, BRT 등 도입방안도 검토
 - 녹지체계: 기존 수로를 따라 석화산과 바다를 잇는 선형 녹지축 구성
- (단계별 사업) 나대지 상태의 국·공유지가 집중되어 있고, 영종하늘도시 및 제3연륙교가 연결한 천혜 바다 낚시터 일원인 1단계 지역이 우선 개발 적지임

[기본구상 및 단계별 개발방안]





다. 개발계획(예시)

○ (사업면적) 1,835천㎡(555천평)

－ 유치시설 용지 1,008천㎡(54.9%), 공공시설 용지 827천㎡(45.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천㎡)	구성비(%)	비 고
합 계		1,835	100.0	
1. 유치시설 용지		1,008	54.9	－
피싱 콤플렉스	테마형 관광 용지	378	20.6	도심형 복합테마파크
월کم빌리지	쇼핑·문화·관광	131	7.1	여가·놀이 공간(Fun-zone)
	지식산업·R&D	208	11.3	일자리 공간(Working-zone)
글로벌한인 문화타운	복합 용지	124	6.8	상업·업무+주거
	주거 용지	116	6.3	－
근린상업용지		51	2.8	－
2. 공공시설 용지		827	45.1	－
공원·녹지		361	19.7	－
주차장		11	0.6	－
도 로	도 로	434	23.7	－
	보행자도로	21	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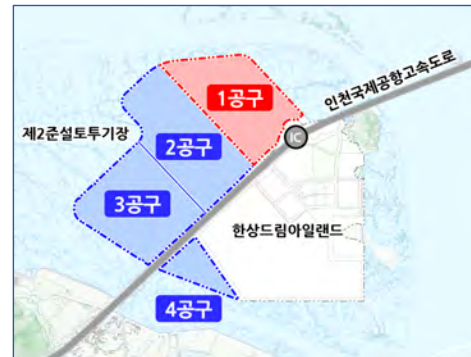
3.1.4 글로컬 에코·컬처파크(투기장 2-1단계)

- ◆ (사업개요) 부지면적 약 1,186천㎡ / 추정 사업비 3,170억원
 - 친환경복합단지 210천㎡(17.7%), 습지원 591천(49.8%), 공공시설용지 385천㎡ (32.5%)
 - 사업방식 : 1안 「항만법」 체계로 개발, 2안 「국토계획법」 체계로 개발
(최적의 사업방식 선택 필요)
- ◆ (필요성) 불확실한 미래 수요를 감안하여, 확장하는 신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부지 마련 필요

가.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2단계 중 1공구

- 구역계 설정사유 : 고속도로 IC와의 접근성,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한상드림 아일랜드)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1공구 선개발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
- 구역면적 : 약 1,186천㎡



- (구역개요) 면적 4,163천㎡, '24년까지 수토 [개발구역 설정]
가능량(20,920천㎡)의 37.5%를 투기할 예정*

* 경인항 유지준설('20년~, 9,600천㎡), 제1항로 개발준설('21~'22년, 200천㎡), 인천북항 유지준설('20~'24년, 7,640천㎡)(제4차 항만기본계획(해양수산부, '20))

- 투기완료시기 : 기본계획상 목표연도는 2040년, 단계별 투기계획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 제2투기장 투기시기를 단계별로 변경함으로써 일부 구역에 대한 토지사용 시기를 2040년 이전으로 앞당기기 위해서는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가 필요함

나. 기본구상

1) 도입기능 설정

» 사업방향

- (장기사업) 사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측면과 포괄적 기능으로 제시
 - 선도사업(1공구) : 입지 여건(습지 생태계, 접근성 제한)에 부합되는 전략사업 유치
 - 장기사업(2~4공구) : 2040년 이후 활용가능 부지임을 감안, 신산업·공항 관련 업종 등 입지가능시설의 기본유형을 대안으로 제시



» 기능설정(단계별)

- (선도사업) 입지특성을 부각하여 명소화하고, 양호한 환경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공간 제공(예: 국제적 지명도를 갖춘 연안습지*를 테마로 한 습지원을 조성하며, 국책사업화를 추진함으로써 시설경쟁력 강화)

*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습지보호지역 3개소(135.2km²)와 해양보호구역 1개소(55.7km²)가 위치하며, 전국 습지의 29.3%(728.3km²)를 차지

- 습지원 : ①보전·연구 등 전문영역, ②전시·체험 및 교육(습지식물원, 생태체험, 습지 공원) 등 여가 및 휴양영역, ③R&D 및 보육센터(습지 생물, 머드) 등 생태 관련 신산업 영역, ④지원시설영역 등으로 구성

* 실현방안(예) : 현 국립생태원의 습지센터를 국립습지원으로 확대

- 친환경 복합단지 : 친수형 정주공간, 습지원 내 연구·R&D 기반과 연계한 상업·업무 특화단지 등 수용

- (장기사업) 미래 장기적 공간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는 적용 가능한 기능을 유형화하여 검토

- 유형1(테마형 관광*) : ‘즐거움(Fun)’을 공간 개발을 위한 테마로 설정하며, 일상의 생활과 분리된 섬이라는 입지적 특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비일상적 놀이 공간’으로 창출

* 전제 : 이용자를 위한 대중교통 진출입 동선 및 수단 보완, 역외 주차공간 등

- 복합화 : 테마 공간 또는 공연·컨벤션 콤플렉스+연계시설(쇼팡·숙박, 정주공간 등)
- 목표시장 :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방문객, 수도권 거주자

- 유형2(산업·물류) : 연육화된 섬으로써 많은 교통량을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R&D 기반을 포함한 스마트 팩토리, 공항 및 항만과 연계한 부가가치물류(Value Added Logistics)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 기능재편의 출발점 : 중기 목표연도인 2030년 전후 영종권역 내 입지가 예상되는 다국적 기업 글로벌 물류센터(Distribution Center), 미래 신산업 파운드리, 항공산업 관련업종 및 신설 기업 등에 대한 추가적 기능재편(목표년도 2050년)에 필요한 선도기능 도입부지로 활용

- 목표시장 : 장기적(2050년 이후) 측면에서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식·문화 관련 연구, R&D, 고급인력 육성, 국제교류 기능 등

2) 개발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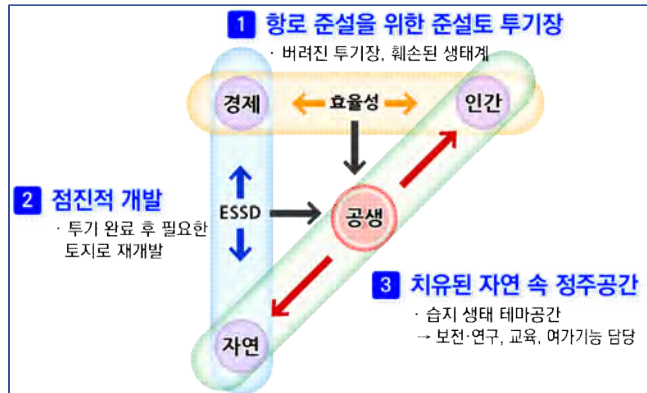
○ (개념) 항로준설을 위해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투기장의 기능을 재편해 도시공간으로 재개발하는 점진적 과정임

－ 기본요소 : 준설토 투기과정에서 훼손된 ‘자연’과 재개발의 필요 조건인 ‘경제적’ 공간, 수요를 공급하는 ‘인간’임

－ 사업화 전제조건 : 기본 3요소 간 공생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는 효율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전제되어야 함

○ (공간배분) 투기장을 생태교육과 여가공간으로 재편한 습지원, 새로운 일자리와 R&D, 정주공간을 수용하는 친환경 복합단지 등을 수용

－ 대중교통 : 인천공항고속도로 신설 IC, 인천공항철도 역사(신설 계획) 완공 시 이용가능하며, 접근수단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버티포트 설치도 고려해야 함



[기본구상 설정]



습지원과 배후지에 조성된 친환경복합단지



다. 개발계획(예시)

○ (사업면적) 1,186천㎡(359천평)

- 친환경복합단지 210천㎡(17.7%), 습지원 591천(49.8%), 공공시설용지 385천㎡(32.5%)



[토지이용계획]

제 I 장

제 II 장

제 III 장

제 IV 장

제 V 장

3.1.5 거잠포-무의도 명소화 사업

◆ (사업개요) 해양레저지구 27천㎡, 케이블카 6.3km(해상 1.5km, 용유역~무의도)
/ 추정 사업비 2,695억원

- 사업방식 : ①해양레저지구: 「국토계획법」 상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 사업시행,
②케이블카: 「국토계획법」 상 도시계획시설사업(케도), 「케도운송법」 상 케도사업

◆ (필요성) 무의도가 가진 해양 여가 공간으로써의 잠재력과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 필요

가.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①거잠포선착장 배후지, 관광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항공사 소유부지와 주변지역, ②무의도 대중교통수단 정체현상 완화를 위한 케이블카 노선
- (구역계 설정사유) 거잠포선착장 일원의 공항공사 소유 가용지를 주변시설과 연계하여 거잠포~무의도 관광벨트 형성을 위한 결절점으로 활용
 - 사업규모 : ①거잠포선착장 배후부지 약 27천㎡, ②용유~무의도 간 케이블카 노선 약 6.3km



[개발구역 설정]

나. 기본구상

1) 도입기능 설정

» 사업방향

- (개념설정) 거잠포~무의도 간 대중교통수단 보완을 통해 무의도를 수도권의 새로운 여가형 해양거점으로 정비하기 위한 관광 명소화 사업
 - 루트화 : 출발점인 거잠포선착장을 중심으로 영종도의 스탑오버 환승객, 내륙의 여가 수요와 무의도의 잠재적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관광벨트 구축

» 거잠포 해양레저지구(거잠포 선착장 배후지)

- (기본방향) 수도권 잠재 관광수요와 인천국제공항 스탑오버 환승객을 위한 해양레저 숙박거점으로 특화
 - 인천공항 스탑오버 환승객 : 환승을 위해 방문한 여행객은 14.6%(전체 환승객 중 스탑오버 환승객은 3.9%*)의 잠재수요를 내부수요화**
 - * 2023년 항공여객 이동특성 조사 결과보고서(한국항공협회, '23)
 - ** 환승 전 공항 밖 출입 14.8%(관광 45.1%, 쇼핑 25.6% 등), 공항 밖 출입 시 방문지(서울 55.6%, 인천 14.3% 등) (2017 항공여객행동특성조사 최종보고서, 한국항공진흥협회, '17)
- (거잠포 해양레저관광지구) 선착장 배후지에 해양레저 및 방문객 지원기능을 집적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 거점역할을 담당토록 함



- 명소화 : 수도권 및 국제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해변의 일출과 일몰을 관광 상품으로 마케팅
- (공항공사 소유부지) 장래 T1주차장 부지 내 랜드마크 시설, 오성산 복구사업 등과 연계를 통한 관광 목적지 선택의 다양성 확보 유도

» 용유~무의 간 케이블카

- (법적개념 : 궤도) 사람이나 화물 운송에 필요한 궤도시설·차량(삭도*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등 운송체계
 - *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궤도 운송법 제2조)
- (유형) 궤도는 운송기구의 형태 및 설치, 운행방식에 따라 교주식, 자동순환식, 고정순환식 등으로 분류
- ☞ 대중교통의 필요조건인 피크타임 시 적정 운행 간격과 4계절 운행 적합성, 비상 상황에 따른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자동순환식이 적절한 대안이라 판단

2) 개발구상

» 거잠포 해양레저지구

- 숙박형 복합리조트 : 해양레저지구는 공항구역 남측 '국제업무단지(IBC-I) 내 복합리조트-네스트호텔 축'과 용유해변, 북측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이비스엠베서더(IBC-II) 축'을 무의도로 확장시키는 결절점 역할을 담당함
- 도입가능시설 : 공항터미널 인근 숙박기능을 해변·해양으로 확산하기 위해 호텔(숙박, 컨벤션, F&B), 해양레포츠(남측유수지 내 덩기요트 등) 등의 활동을 수용

» 용유~무의 간 케이블카

- (용유~무의 간 케이블카 등)
 - 잠진도, 무의도로 이어지는 육상 및 해양관광 출발점 기능을 부여
 - 피크 시 : 육상교통 정체 현상을 감안, 공사 소유 선착장을 활용한 해상운송(교통, 레저 등) 방안 검토 필요
 - 중단기 : 잠진—무의—소무의도를 잇는 케이블카사업도 환경수용력 범위 내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거잠포 해양레저지구를 통한 복합리조트 확장]

- (연계지점: 예시) 용유역 배후부지, 무의대교 공영주차장, 국사봉, 무의광명항 공영주차장 등
 - 무의도 내 친환경교통이나 관광자원과의 연계가 용이한 지점과 연계하며, 이를 통해 무의도 내 교통정체현상 완화 및 관광활성화 유도



거잠포 선착장과 배후부지를 활용한 해양레저지구



거잠포 해양레저지구 내 케이블카 승강장에서 본 무의도



3.2. 강화·옹진권역

3.2.1 강화 글로벌 K-그린바이오 특화도시(전체)

- ◆ (사업개요) 부지면적 18,772천㎡(1단계 6,216천㎡) / 추정 사업비 1조 8,444억원
 - 유치시설용지 2,748천㎡(44.2%), 공공시설용지 3,468천㎡(55.8%)
 - 사업방식 : 「경제자유구역법」 상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시행방안 검토
- ◆ (필요성) 바이오산업 입지경쟁력을 활용하기 위해 가용지를 확보하고, 미래 산업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K-그린바이오 특화도시 조성

가. 개발구역 설정

- (구역계 설정기준) 주변 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제외하고 사업추진이 용이한 평야지역을 구역계에 포함
 -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대규모 마을이 입지한 지역은 가급적 제외
- (개발구역) 마니산, 길상산, 군사시설보호구역 (진강산)을 제외한 개발이 용이한 농경지를 개발구역으로 설정
 - 단계별 사업시행 : 장래 확장 가능성 및 대규모 사업구역임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사업 시행을 하고, 영종도와 가까운 남측(1단계)을 우선적으로 개발 추진
 - 구역계 설정사유 : 도로, 수로 등 경계설정이 용이한 지형지물과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의 현황선을 활용하여 구역계를 설정
 - 구역면적 : 약 6,216천㎡(1단계)



[개발구역 설정]

나. 기본구상

- (공간구상)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활동이 많은 기능(주상복합, 상업, 관광, 해양치유 등), 환경이 우수한 임야 주변으로 주거기능 등을 우선 배치
 - 주거기능 : 자연환경이 우수한 임야지역과 수변주거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 상업기능 : 국제수준의 마리나·관광·상업 복합단지와 위계별 상업기능 배치
 - 산업기능 : 강화의 자원과 인천의 생산능력을 융합한 그린바이오와 해양치유거점 조성

- (녹지체계) 대상지 중심부를 지나는 수로를 중심으로 서측의 마니산, 동측의 길상산을 연결하는 녹지축 구상
- (교통체계) 현재의 열악한 접근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신도~강화간 도로 연결을 신속히 추진하고 강화남단의 개발추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철도연결 검토
 - 초지대교 교통량 증가에 대비, 국지도 84호선 노선개량 및 확폭 추진

[개발구상]



강화 글로벌 K-그린바이오 특화도시



다. 개발계획(예시)

○ (사업면적) 6,216천㎡(1,880천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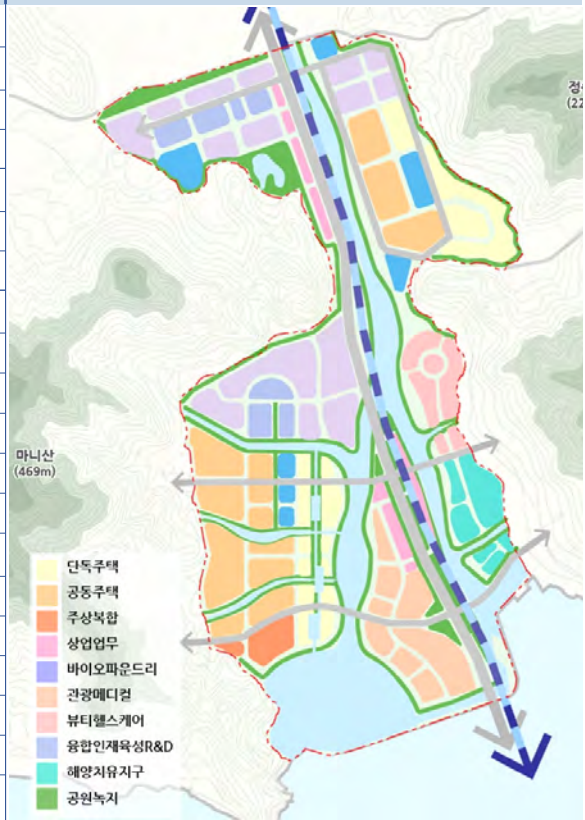
- 주거용지 1,080천㎡(17.4%), 상업업무용지 221천㎡(3.6%), 산업용지 1,448천㎡(23.3%), 공공시설용지 3,468천㎡(55.8%)

○ (특화기능) 전체 면적 대비 3.6%에 불과한 소규모 상업업무용지에 대해 입지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기능 도입

- 중심지 :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중심지에 먹거리, 즐길거리 등 많은 인구가 모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고 중심지와 연계하여 미래형 교통수단인 UAM과 연계
- 업무·금융 : 상업용지의 높은 토지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금융, 벤처 캐피탈 등 금융기능과 주변 산업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기능 도입
- 상업 : 수변에 계획되는 마리나복합단지의 관광기능과 연계가 가능한 수변상업을 도입하여 시너지 효과 기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천㎡)	구성비(%)	비 고
합 계	6,216	100.0	
1. 주거용지	1,080	17.4	
단독주택	574	9.2	
공동주택	506	8.1	
2. 상업업무용지	221	3.6	
주상복합	85	1.4	
상업업무	136	2.2	
3. 산업용지	1,448	23.3	
바이오파운드리	652	10.5	
관광메디컬	287	4.6	
뷰티헬스케어	155	2.5	
융합인재육성 R&D	185	3.0	
해양치유지구	169	2.7	
4. 공공시설용지	3,468	55.8	
공원·녹지	1,161	18.7	
보행자도로	67	1.1	
공공시설	196	3.2	
철도	31	0.5	
하천	1,091	17.5	
도로	922	14.8	



3.2.2 강화 글로벌 K-그린바이오 특화도시(그린바이오 파운드리)

- ◆ (사업개요) 부지면적 약 1,078천㎡ / 추정 사업비 3,199억원
 - ‘강화 글로벌 K-그린바이오 특화도시(1단계)’ 사업 중 일부
 - 사업방식 : 「경제자유구역법」 상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시행방안 검토
 - 활성화 방안 :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통해 기업의 투자 유인
- ◆ (필요성) 강화 글로벌 K-그린바이오 특화도시에서 핵심산업인 그린바이오 관련 생산시설이 입지를 위해 계획

가.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강화 글로벌 K-그린바이오 특화도시’ 사업구역 중 하천과 도로에 의해 타 지역과 분리된 남측과 북측 일부지역을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대상지로 설정
 - 구역계 설정사유 : 토지이용계획상 하천, 도로 등의 선형을 기준으로 개발구역 설정
 - 구역면적 : 약 1,078천㎡



[개발구역 설정]

나. 기본구상

» 사업방향

- (원칙1. 국가계획과 연계) 유기농, 갯벌 등 강화의 자연을 바탕으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농림축산식품부)’에 부합하는 계획을 통해 사업의 당위성 확보
- (원칙2. 클러스터화) 단순한 생산이 아닌 ‘상품생산-인력공급-연구개발’의 산학연 연계를 통해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기능설정



[기본구상]

-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송도 레드바이오 파운드리와 연관성이 높은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여 강화를 세계 바이오 파운드리 산업의 메카로 조성

* 종자, 미생물, 곤충 또는 중간생산물 등을 소재로 재화나 서비스를 개발·생산·판매·유통함으로써 농업과 전·후방 산업에 부가가치 창출 산업



- 육성분야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6대 분야* 집중 육성
 - * ① 종자, ② 동물용 의약품, ③ 미생물, ④ 곤충, ⑤ 천연물, ⑥ 식품
- 어트랙션(Attraction) :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성장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융합 R&D센터를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구역에 유치
- (기업특화대학) 그린바이오 기업과 대학을 연계하여 특화산업에 인재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특화과정 설치
 - 석박사과정 개설 : 직원들이 석·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학과 개설
- (그린바이오 연구원) 그린바이오 산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를 설치하여 산업, 대학을 지원(예: 연구시설 제공, 기업과 공동 R&D 프로젝트 수행 등)
- (수직농장) 그린바이오 제품 생산기업에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지능화, 자동화, 간편화되어 있는 수직농장 계획
 - 외부환경이나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으면서 24시간, 365일 가동되며 작물 생산*
 - * 균일한 환경에서 균일한 원료 공급으로 안정적인 제품 생산 가능
 - 파일럿 생산체제로부터 시작하여 향후 주변 도시권을 시장으로 한 대규모 생산 체제 구축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3.2.3 강화 글로벌 K-그린바이오 특화도시(친수주거단지)

- ◆ (사업개요) 부지면적 약 1,139천㎡ / 추정 사업비 3,380억원
 - ‘강화 글로벌 K-그린바이오 특화도시(1단계)’ 사업 중 일부
 - 사업방식 : 「주택법」 상 ‘사업계획의 승인’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의 의제로 처리 가능
- ◆ (필요성) 강화 글로벌 K-그린바이오 특화도시 근로자들을 위한 직주근접의 배후 주거단지 제공을 위해 계획

가.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강화 글로벌 K-그린바이오 특화도시’ 중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하천으로 타 용도와 분리된 남측 부지
 - 구역계 설정기준 : 토지이용계획상 하천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마니산과 인접한 지역을 개발구역으로 설정
 - 구역면적 : 약 1,139천㎡



[개발구역 설정]

나. 기본구상

1) 도입기능 설정

» 사업방향

- (원칙1. 친수공간) 주거, 휴식, 여가 등 다양한 활용이 복합된 정주공간으로 활용
- (원칙2. 물순환) 자연적인 물순환이 가능하도록 LID(Low Impact Development)를 활용하며, 수생태계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야간에 남는 전기를 활용하여 하류의 물을 상류 저수지로 보내는 물순환 체계 구축
- (원칙3. 제로에너지타운) 탄소저감 및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저층단지는 태양광, 지열발전 등을 활용한 ‘제로에너지타운’으로 조성

» 기능설정

- (제로에너지타운) 기존 수로를 활용하여 조성되는 수변공간 주변에 조성
 - 주거기능 : 5층 이하의 저층 주택으로서 1층에는 소규모 근린상가가 입지



- 여가기능 : 소형 요트, 나룻배, 수영 등 다양한 여가공간 조성
- 휴식기능 : 친수공간을 따라 주민과 방문객의 휴식·여가시설 조성

○ (생태주거단지) 도시생활의 편리함과 자연환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마니산과 연결되는 소하천 활용

- 공동주택 : 마니산의 조망을 고려하여 중밀도로 조성하며, 태양광·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탄소저감형 단지로 개발



[기본구상]

- 수변공간 : 마니산에서 내려오는 소규모 개천을 활용하여 공동주택단지 사이의 소규모 수변공간 조성

○ (마리나복합단지) 마리나시설 연접부의 고층 주거시설로써, 저층부에 다양한 상업 및 F&B 등을 계획하여 가로 활성화 유도

- 주거기능 : 오션뷰의 고층 주거시설로서 해양친수공간의 랜드마크로 조성
- 상업기능 : 주상복합 저층부에 F&B, 근린상업 및 마리나 지원기능 배치
- 마 리 나 : 요트 정박공간과 해양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각종 해양스포츠 기능 배치



마리나복합단지

3.2.4 강화 글로벌 K-그린바이오 특화도시(해양치유지구)

- ◆ (사업개요) 부지면적 약 219천㎡ / 추정 사업비 650억원
 - ‘강화 글로벌 K-그린바이오 특화도시(1단계)’ 사업 중 일부
 - 사업방식 : ①부지조성: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②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 「해양치유자원법」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 참여 등 고려
- ◆ (필요성) 휴양, 건강 및 치유에 대한 관심과 청정 관광지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에 인접한 강화도에 자연자원을 활용한 K-웰니스 타운을 조성

가.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강화 글로벌 K-그린바이오 특화도시’ 중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해양공간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동남측 부지를 K-웰니스 타운 대상지로 선정
 - 구역계 설정기준 :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하천 및 바다, 길상산과 경계를 이루는 도로 등을 기준으로 구역계 설정
 - 구역면적 : 약 219천㎡



[개발구역 설정]

나. 기본구상

1) 도입기능 설정

» 사업방향

- (원칙1. 해양치유산업 생태계구축) 강화남단에 해양치유센터 설치를 통해 수도권의 새로운 해양치유산업 시장 및 인천 바이오산업과의 시너지효과 창출 기대
- (원칙2. 지역자원 연계) 단순히 해양치유지구에 그치지 않고 관련된 지역자원 및 연계 가능한 자원 발굴을 통해 지역과 상생발전 및 지속가능성 확보

» 기능설정

- (해양치유센터) 해양치유지구의 핵심 기능으로 실내 해수풀, 재활센터 등 다양한 해양치유 관련 시설 및 실증시설 입지
 - 해수운동, 수중 걷기 프로그램, 왓추, 해초치료, 마사지, 야외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각 프로그램의 효과를 고려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 (치유농장) 해양치유와 연계한 강화의 각종 특산물을 재배하는 농장
- (치유평화대학) 인력양성대학*으로써 교육 및 해양치유 관련 연구개발의 지역거점
 - 클러스터화 : 대학 R&D기능과 해양치유센터의 실증기능을 연계한 해양치유 클러스터 조성
 - 전문인력 교육센터 : (가칭)해양 치유사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기본구상]

* 해양치유자원, 프로그램 개발 및 인증, 장비에 대한 인증체계 구축 병행

- (해양치유 체험관) 치료목적의 방문 외에 관광목적의 방문객을 위해 해양치유에 대한 체험시설을 마련하여 직접 해양치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2) 연계기능

- (한방의료) 해양치유 기능과 더불어 외과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한방치료와 연계하여 치유의 시너지 효과 증대
 - 해양치유와 한방치유의 협진을 통해 신체의 자연치유 능력 향상 도모



해양치유지구

3.2.5 강화평화대교(신도~강화)

- ◆ (사업개요) 연장 11.4km(2차로)(신도~강화)
 - 추정 사업비 : ①교량 건설 시 1안 4,530억원(2차로), 2안 6,802억원(4차로)
②해저터널 건설 시 7,073억원(4차로)
 - 사업방식 : ① 「광역교통법」 상 ‘광역교통개선대책’ ②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③ 「민간투자법」 상 ‘민간투자사업’, ④ ‘국도·국지도건설계획’에 의한 ‘도로건설사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 중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 선정
- ◆ (필요성) 강화평화대교 개통을 통한 교통망 확충이 강화남단 개발의 전제이며, 강화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건설 추진이 필요함

가. 개발구역 설정

- (개발노선) 일반국도 지정 및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신청
 - 노선연장 : 11.4km(신도~강화간)

나. 기본구상

» 교량 건설(1안)

- (개요) 강화평화대교에 해당하는 신도~강화구간 건설(2차로)이 추진 중이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4차로로 확장 필요
- (구상) 영종~신도 구간과 연결되는 교량건설로 시공성, 사업성 확보
 - 연장 11.4km, 사업비 4,530억원(2차로), 6,802억원('22년 기준)(4차로)

» 해저터널 건설(2안)

- (개요) 영종~강화의 교통연계 방안으로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해저터널을 통한 연계 검토
- (현황) 강화도와 영종도 사이 바다는 대부분 갯벌로 이루어져 있고 수심은 최대 약 8.5m 수준으로 주변 바다에 비해 수심이 매우 얕음
- (구상) 건설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악천후에도 안정적인 교통·물류 수송이 가능해 지역발전의 교두보 역할 수행
 - 연장 8.2km(4차로), 사업비 7,073억원



[추정 사업비]

구 분	수량	원단위	VAT	물가 변동	사업비 (백만원)	구성비 (%)	비 고
1. 교량건설(1안)	(2차로)	11.4km	-	-	453,000	-	인천시 내부자료
	(4차로)				680,200		
2. 해저터널(2안) (4차로)	8.2km	-	-	-	707,300	-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비 단가



[기본구상]

제 I 장

제 II 장

제 III 장

제 IV 장

제 V 장

3.2.6 덕적군도 명소화사업

- ◆ (사업개요) 부지면적 어촌마을 157천㎡, 소야도 20천㎡ / 추정 사업비 672억원
 - 어촌마을(어항구역 85천, 배후도시 64천, 버티포트 8천 : 공유수면 매립), 소야도 20천㎡
 - 사업방식 : ①버티포트: 대지조성은 「공유수면법」 상 ‘공유수면매립사업’, 시설조성은 「도심항공교통법」 상 ‘버티포트 개발사업’, ②진리 어촌마을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③소야도 랜드마크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 사립미술관 유치 추진
- ◆ (필요성) 섬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구소멸이 우려되나,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휴식과 체류형 여행트렌드 및 교통개선이 기회요인으로 등장

가.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버티포트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배후어촌마을(진리), 소야도 내 구릉지(랜드마크 문화시설)

* 공유수면은 어항구역을 포함하지 않도록 설정

- 구역계 설정사유 : ①버티포트 : 육지 내 평탄지가 없어 공유수면 내 설정 하였으며, ②어촌마을 : 현재 진리항 어촌마을 전체 ③랜드마크 : 방문객이 진리항에 내리면 마주보이는 소야도 낮은 구릉지에 설정함
- 구역면적 : 어촌마을 약 157천㎡ (어항구역, 배후마을, 버티포트), 소야도 랜드마크 약 20천㎡



[개발구역 설정]

나. 기본구상

1) 개발구상 : 관문지역

» 사업방향

- (관문지역 명소화) “해양도시, 인천”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
 - ①바다驛 기능강화 및 ②덕적권역 네트워킹을 통해 자원의 잠재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③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글로벌 지명도 확보



» 기능설정

○ (바다驛 기능강화) 바다驛이 주변 도서에 대한 관광객 집객역할(Hub) 담당

- 진리항 : 인천항—덕적권역을 연결하는 직항 해상관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운송 수단 강화* 및 환승 거점화

* 모빌리티 강화 : 여객선, UAM(연안부두~진리항, 진리항~권역 내 도서), 도서 내부(전기차, PM: Personal Mobility)

○ (덕적권역 네트워킹) 진리항에서 40분 내 도서*를 연결하는 해상 및 공중 교통망을 정비

* 굴업도, 자월도, 대이작도, 문갑도, 백야도, 승봉도 등

○ (랜드마크 조성) 인천의 ‘초일류도시’ 도약을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이외에 ‘해양문화도시’라는 이미지 구축*도 필수적 요소임

- 벤치마킹 대상 ‘예술섬 나오시마’ : 시설개선 및 조성(부두정비, 지중미술관, 국제 예술제, 에코타운 등)을 통해 방문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구전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노인 3천의 섬이 30만 관광지로 거듭남

-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빌바오 효과*를 창출하며, UAM 등 접근수단 개선과 덕적군도 내 도서 간 네트워킹 강화 등을 통한 자원 다양성 확보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해양여가·휴양공간으로 재편

* 랜드마크 시설의 입지가 그 지역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 영향(구겐하임 미술관 입장객은 개관 3년간 350만명, 이 중 외국인 비율 44%)



[덕적군도 명소화사업]

제 I 장

제 II 장

제 III 장

제 IV 장

제 V 장

다. 관문지역 개발계획(예시)

○ (사업면적) 157천㎡(47천평), 랜드마크 사업 별도

－ 어항구역 85천㎡, 배후도시 64천㎡, 버티포트 8천㎡(공유수면 매립)

[덕적도 진리항 3대 전략사업]



덕적도 진리항 버티포트



3.3. 송도권역

3.3.1 GWC(Global Welcome Cluster) 조성사업

- ◆ (사업개요) 부지면적 약 1,501천㎡ / 추정 사업비 1,954억원
 - 구역면적(중심지구 630천, 확대지구 871천), 사업면적(광장+언더그라운드시티 18천)
 - 사업방식 : 「국토계획법」 상 ①도시관리계획(변경) → ②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 ③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 ※ 「경제자유구역법」 상 송도지구 실시계획(변경)에 의제사항으로 포함하여 진행
- ◆ (필요성)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센트럴파크와 여가 공간, 업무·MICE 시설 등이 집적되어 방문목적과 주변 시설 간 연관성이 높은 지역

가.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①중심지구(재외동포청과 센트럴파크가 입지한 블록), ②확대지구(송도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일부)
- (구역계 설정사유) 여가·문화, 상업·업무-숙박-MICE 등 상관관계가 높은 2개의 기능이 집적된 연속공간을 구역으로 설정
 - 구역면적 : 약 1,501천㎡(중심지구 630천㎡, 확대지구 871천㎡)



[개발구역 설정]

나. 기본구상

1) 도입기능 설정

» 사업방향

- (중심지구 : Promenade Zone) 접근성과 인지도가 높은 웰컴 스퀘어가 청사와 프롬나드를 연결하는 매개 공간 역할 담당
- (확대지구 : Activity Complex Zone) 중심지구와 주변의 상업·업무, MICE, 숙박 등 인프라 연계를 통해 파급효과 확산 기대

» 기능설정

- (중심지구) 재외동포청 방문객을 위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웰컴 스퀘어와 이민사를 콘텐츠로 재구성한 재외동포 기념관 도입
 - 센트럴파크 내 : 프롬나드를 방문객들을 위한 휴식·여가 공간으로 제공하며, 소규모 광장은 야외행사나 공연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 (확대지구) 인천대입구역을 방문객을 위한 복합환승 기능의 관문으로 특화
 - 인천대입구역-웰컴스퀘어 구간 : 지상은 상징 가로화하며, 지하는 언더그라운드 시티 기능 도입

2) 개발구상

» 중심지구

- (웰컴 스퀘어) 재외동포청 앞 인천타워대로 중앙녹지대(120×30m)를 도심 속 업무공간과 센트럴파크를 잇는 진입광장으로 재구성
 - 기능 : 청사 방문 재외동포를 환대하는 분위기로 조성*하며, 시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도심 속 야간축제나 길거리 응원 등의 공간으로도 활용
 - * 미디어파사드(지하철 환기구 기능 복합화), 야간축제 조명·음향시설, 보도 안전시설 등
 - 성격 : 업무 목적의 재외동포청 방문객 동선을 여가와 휴식,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센트럴파크로 이어주는 연결마당 역할 담당
- (재외동포 기념관*) 1902년 제물포항에서 출발한 아픔의 이민사를 ‘세계로의 한인 진출 성공 신화’로 콘텐츠화
 - * 사례(The Irish Emigration Museum, 더블린) : 아일랜드의 슬픈 이민사를 성공 스토리로 승화하여 전시
 - 자원화 : 기존 시설(인천 도시 역사관 등) 기능 재편 및 복합화를 통해 집객력 있는 공간을 추가하며, 스토리텔링을 통해 방문객에게 자부심을 심어줌
- (웰컴 프롬나드) 센트럴파크를 순환하는 수변 산책로(promenade)를 활용해 휴게, 문화, 체험활동 등을 하나의 루트로 묶는 ‘구슬 꿰기’ 명소화 추진
 - 공공 디자인 : 이민사, 방문객 환대, 인천명소 등을 테마로 산책로, 스트리트퍼니처, 사인 등의 디자인 개선사업* 시행
 - * 재외동포 초청 워크숍·바자회와 연계한 기증행사(미술품, 조형물, 벤치 등), 오픈스페이스 (정원, 광장 등) 재정비 필요 시 이민국을 테마로 한 디자인 적용방안 검토
 - 퍼포먼스 : 시민들의 자발적 야외행사나 소규모 공연 등을 위해 잔디광장을 웰컴 페스타 광장으로 재구성



- (웰컴 페스타 광장) 센트럴파크 수로 북측의 오픈스페이스를 야외행사나 소규모 공연을 위한 축제광장으로 재구성
 - 세계문자박물관 등 문화시설, GCF콤플렉스 등 업무시설과 연계하여 이용도 제고



웰컴스퀘어(재외동포 환대의 상징적 공간)로 재편된 인천타워대로 녹지대

» 확대 지구

- (게이트웨이와 연결) 광역교통시설이 집중*된 인천대입구역을 GWC 관문으로 설정
 - * GTX-B(북합환승센터), S-BRT, 광역버스 등
- (상징가로화) 인천타워대로 중 웰컴 스퀘어 남측—인천대입구역 구간의 상징성 강화
 - 도로 : 상징성 제고를 위해 대로 중앙부 녹지대의 보행성 및 선형공원 개선
 - * 약 700m(웰컴 스퀘어 구간 120m 제외, 폭원 30~33m)
- (언더그라운드 시티) 혹한 및 혹서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중·장기사업으로 센트럴파크역—인천대입구역 구간을 잇는 지하 보행로(연장 약 650m) 설치
 - 건축물 지하와 연결* : 인천타워대로와 연접한 건축물 중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건축물 지하층과 지하 보행로 연결
- (복합화) '중심지구'의 상징성과 흡인력에 주변의 쇼핑몰, MICE, 호텔, 업무 등 경제적 공간과 액티비티 공간을 연계함으로써 '집적의 이익' 창출 유도
 - MICE 관련 기능 복합화를 통해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 특성화 및 지명도 확대

다. 개발계획(예시)

○ (사업면적) 18.0천㎡(5.4천 평)

- 광장(11,506㎡) : 웰컴 스퀘어(7,121㎡) + 웰컴 페스타 광장(4,385㎡)
- 언더그라운드 시티(6,500㎡, 지하보도) : 인천1호선 인천대입구역~센트럴파크역
(L=650m, B=10m)



[개발계획]

3.3.2 INEX 및 글로벌 금융타운

◆ (사업개요) 송도 6·8공구 내 상업·업무시설용지 일부

- 구역면적(예시) : INEX 내 상업·업무용지 380천㎡

◆ (필요성) 송도는 공항경제권의 중심지로, 글로벌 기업 입지의 필수요건인 정주 환경과 첨단 인프라도 잘 구성되어 있어 금융타운 유치의 필요성이 제기됨



가. 개발구역 설정

- (투자대상구역: 예시) INEX* 등 6·8공구 상업·업무시설 일부를 금융타운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시민설명회('22.1)를 거쳐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의 사업계획 협의가 진행 중임(면적 : 1,281천㎡, 사업비 : 7조 6,000억원, 사업기간 : '23~'32년)

- 구역계 설정사유 : 5개 권역 중 경쟁력과 부동산시장 선호도가 가장 높으며, 특히 6·8공구는 상업·업무 기능이 복합된 랜드마크 코어 등 상징적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임

- 구역면적(예시) : 약 380천㎡



[투자대상구역 설정]

나. 기본구상

1) 사업방향

- (원칙1) 송도권역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6·8공구 내 개발사업(INEX 등)으로 조성되는 업무시설에 국제금융 기능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
- (원칙2) 인천공항, 연구·R&D, 글로벌캠퍼스, 쾌적한 생활공간 등 양질의 인프라와 인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통해 성장동력 제공

2) 개발구상

- (금융타운 요건*) ①풍부한 비즈니스 기회, ②엄격하고 투명한 법체계 및 철저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③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 등

* “글로벌 IB(Investment Banking)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아시아 금융허브의 요건(이승윤, '07.6.30.)”, 금융 포커스 브리프 제16권 28호

- (개발방향) 인천공항경제권 내 비즈니스 기회와 인천공항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6·8공구 내 조성되는 상업·업무 복합공간을 글로벌 금융타운으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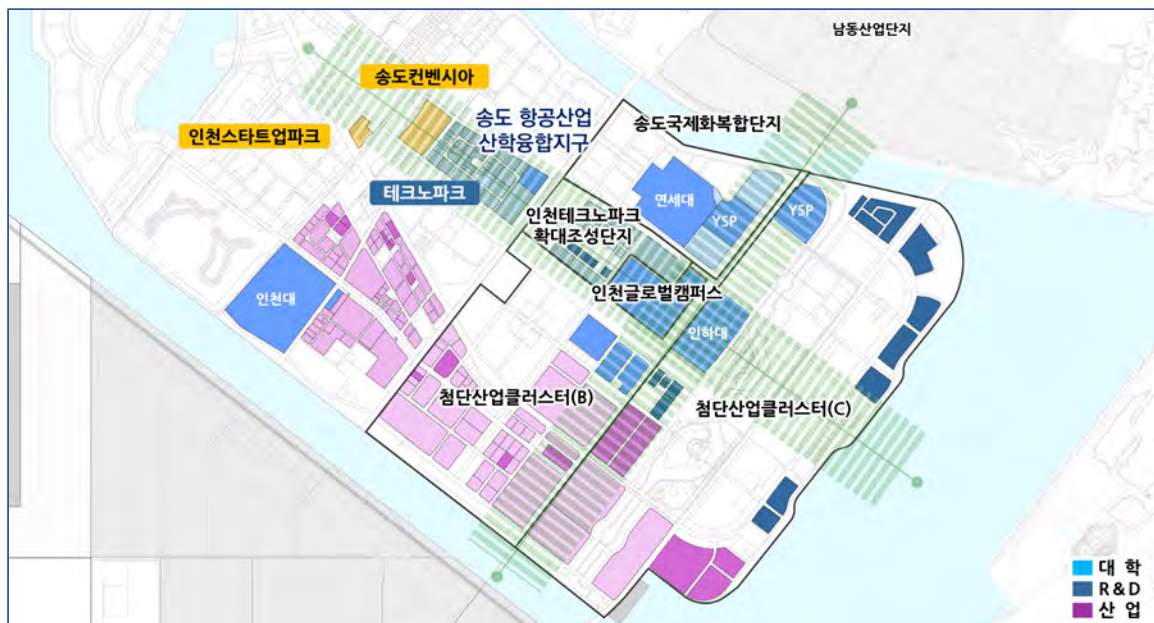
- 환경 : 쾌적한 정주여건과 글로벌캠퍼스, 강남 접근성은 긍정적
- 제도·정책 : 금융관련 법체계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나, 정책의 예측가능성은 높여야 하며, 경제자유구역제도를 활용하여 입주 금융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성과를 높일 수 있음

3.3.3 인천형 신산업 지식기반 플랫폼

- ◆ (사업개요) 송도 2·4, 5·7, 11공구 일원 / 추정 사업비 1,778억원
 - 전체 4,393.9천㎡ 중 활용 가능지 약 2,439.1천㎡
 - 사업방식 :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등 국가 공모사업
- ◆ (필요성) 미래 인천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산학융합형 교육과 R&D시스템 도입을 통해 “R&D-인재양성-취업”이 선순환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필요

가.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①동서축 : 송도컨벤시아-송도테크노파크-인하대 송도캠퍼스, ② 남북축 : 송도국제화복합단지(2단계)-글로벌캠퍼스-첨단산업클러스터(B·C)
 - 구역계 설정사유 : 신산업은 혁신성이 중요하고 산업의 범위도 사회발전 추세나 트렌드에 따라 동태적이며, 제품의 수명주기도 짧아 새로운 지식과 인재의 지속적인 공급이 전제되어야 함
 - 따라서 송도권역 내 기 조성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구역을 설정
 - 구역면적 : 전체 4,393.9천㎡ 중 활용 가능지 약 2,439.1천㎡
 - ①송도국제화복합단지 약 612.2천㎡, ②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약 28.7천㎡, ③인천글로벌캠퍼스 약 295천㎡, ④첨단산업클러스터B 약 249.1천㎡, ⑤첨단산업클러스터C 약 1,254천㎡



[개발구역]



나. 기본구상

1) 도입기능 설정

- (중심기능) 교육·창업, 연구·R&D거점, 네트워킹·협력체제로 구성
 - 교육·창업 : 사업구역 내 대학들의 특성화 분야에 대한 지식기반 플랫폼 형성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스타트업 파크 역할 담당
 - 연구·R&D거점 : 인천형 신산업 필요조건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 R&D, 지원기관 등 기반을 구축하며, 국가정책과제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형 R&D트랙을 병행
 - 네트워킹·협력체계 : ‘인천형 신산업 지식기반 플랫폼’이 미래 인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글로벌 전문가와 관련 업계와의 네트워킹 거점으로 작용하도록 계획
- (참여기업) 신산업 관련 글로벌 기업(R&D기능 포함)이며, 필요 시 기능재편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유도

2) 개발구상

- 송도국제도시 내 수용할 인천형 신산업 지식기반 플랫폼의 범위를 ‘바이오·헬스’, ‘AI·반도체’, ‘항공·모빌리티’, ‘문화·엔터테인먼트’의 4가지로 설정

» 바이오·헬스

- (목표) 바이오 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후보물질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종합지원 가능한 교육, 연구·R&D 등 지식산업화 인프라 구축*
 - * 정부의 ‘신성장 4.0전략’ 추진계획에 따라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등 추진 중
- (육성방안) 교육 및 R&D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송도권역 대학캠퍼스 여유향간을 활용한 바이오·헬스 연구 및 인력양성 기반 구축
 - * 참여기관(예시) : K-바이오 랩허브와 K-NIBRT(바이오공정 전문인력양성센터), 가천의대 뇌과학 연구소, 길병원 등
- 단기적 : ①거래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의약품 제조업과 의료기기 관련 연구 개발 분야 육성에 착수하며, ②국가 공모사업을 통한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사업 참여로 바이오 제조의 혁신경쟁력 강화
- 중장기적 : ①송도권역 :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 ②글로벌 생산기반 : 송도에서 영종·강화권역으로 확산, ③의사과학자** 등 융합인재 양성
 - * 연구·R&D와 K-바이오 랩허브를 기반으로 산·학·병·연 등 연계를 통해 바이오 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특화지원체계 구축
 - ** 의료인공지능 융합인재, K-medi융합인재 등 양성

» AI·반도체

- (목표) 인천의 반도체산업 초격차 기술 선제확보 등 첨단기술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달성하고, AI반도체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역할을 담당
- (육성방안) 단기적 역량축적과 장기적인 연관산업 융복합 및 공간적 범위 확대 유도
 - 단기적 : ①유타대, 외국어대 등 관련학과 특성화 교육·실습환경 강화, ②팹리스 벤처기업 투자금 지원, ③공공 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기반 AI융합 프로젝트 발굴
 - 중장기적 : ①반도체공동연구소 설립 등 정부건의를 통한 공공 팹(Fab) 고도화, ②팹리스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 파운드리 구축, ③기업 실증지원, ④바이오·의료, 도시(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스마트팜 등 AI확산을 위한 연구 수행

» 항공·모빌리티

- (목표) 송도권역 내 미래 생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항공·모빌리티 산업의 교육, 연구·R&D 기반을 구축
- (육성방안) ①연구기관 유치 및 송도권역 내 대학의 유관학과 이전을 통한 글로벌 연구 협력체계 구축, ②대기업 유치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
 - 항공 : 인천시의 전략자산인 인천공항을 활용한 항공정비산업(MRO)과 도심 항공교통(UAM), 드론 관련 산업 육성전략을 추진
 - * 참여기관(예시) : 인하대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뉴욕주립대 기계공학, 한국우주산업융합원 등
 - 항공산업의 시장확대 :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정비, UAM 등 항공기계 관련 소부장 제조업 지역기반 및 전후방 산업 연구·R&D 인프라 연계 유도
 - 모빌리티 : 인천시 소재 기업의 미래차 기술 전환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핵심기업과 주력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생태계 구축
 - 송도권역 내 대학 잔여 부지 내 미래차 관련 학과* 이전을 통한 연구기반 강화
 - * 스마트 모빌리티공학, 기계공학, 이차전지공학, 전자공학, 인공지능공학, 미래자동차공학 등

» 문화·엔터테인먼트

- (목표) 인천의 취약분야인 문화·관광,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보완함으로써 도시의 다양성 확보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거점 공간 육성
- (육성방안) 송도권역 내 대학 관련학과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문화·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상품개발을 통해 수도권 여가수요 및 스탬오버 관광객을 끌어들이м
 - * 거점포의 일출과 일몰, 일상 속 여가와 위케이션 공간으로써의 덕적군도 재발견 등
 - 문화산업 육성 : ①수요자 관점에서 영종·송도권역 내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②공공은 문화활동에 적합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인력교류 인프라 정비 병행
 - * 영종도 인스파이어리조트 확장, 거점포-무의도 명소화사업, 송도 남측수로 마리나 등



3.3.4 신항 배후단지 고부가가치화 사업

- ◆ (사업개요) 부지면적 약 3,676천㎡ / 추정 사업비 7,945억원
 - 유치시설용지 2,033천㎡(55.3%), 공공시설용지 1,643천㎡(44.7%)
 - 사업방식 : 「항만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시행방안 검토
- ◆ (필요성) 항만배후단지 조성시기와 연계하여 바이오 생산부지 추가수요 확충 및 고부가가치물류 거점으로 활용

가.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해양수산부, 2022)’ 상 ‘항만시설용부지(Ⅰ)’를 사업구역에 포함
 - 구역계 설정사유 : ‘항만시설용부지(Ⅰ)’ 중 ①‘신항 2-1단계’는 항만 배후단지로 기반영된 지역이며, ②잔여부지는 미반영 지역이나 2028년 투기완료 예정
 - 구역면적 : 약 3,676천㎡



[개발구역 설정]

나. 기본구상

1) 도입기능 설정

» 사업방향

- (원칙1) 「항만법」 상 개발체계를 통해 인천의 신성장동력 수용
- (원칙2) 인천 신항, 인천공항 등 글로벌 관문시설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상호 시너지효과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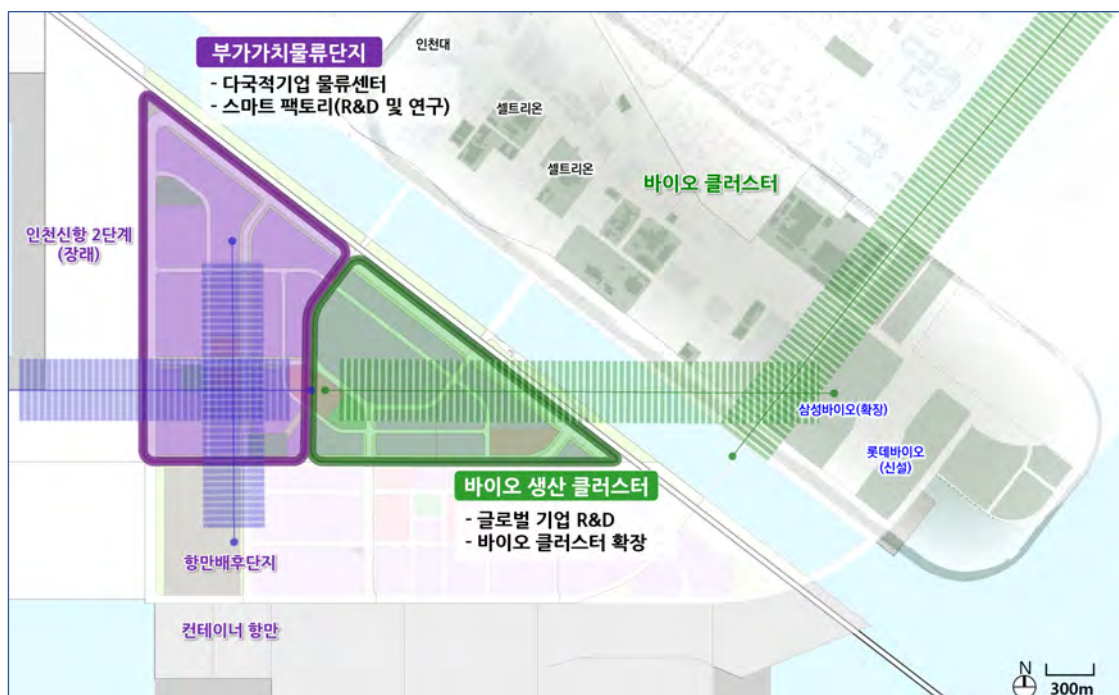
» 기능설정

- (바이오 생산 클러스터: 확장) 2030년 이후 송도신도시 중심의 바이오 클러스터, 주변 지역의 연관산업 및 스핀오프(spin-off) 신산업 등을 수용하기 위한 확장공간*으로 활용
 - * 송도신도시: 입지적 강점에도 불구하고 미래 가용토지 부족의 한계요인을 안고 있음
- 성격 : 인천 바이오 트라이앵글(송도—남동공단—영종도)의 2030년대 재도약을 위한 대학, 병원 중심의 신성장 바이오 거점 기능 강화

- 도입가능 시설 : 글로벌 대학 관련학과연구소 및 바이오 특화 대형병원, 이중 산업 융복합 연구 및 사업화, 글로벌 기업 R&D, 인큐베이터
- (부가가치물류단지*) 신항의 컨테이너 화물운송, 항만배후단지 내 보세구역 설치의 효율성 등 입지 특성에 부합되도록 제품생산 및 물류 기능 융·복합단지로 활용
 - * VAL(Value Added Logistics): 신항을 통한 원자재 공급과 배후단지 내 상품생산, 관리·물류 및 유통·완제품 수출 등 공급망 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 복합
- 전제조건 : 거대 시장권*을 배경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체계하에서 부가가치물류 확산을 통한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항만과 연계한 관세자유지역 설치가 필수적
- 물류·생산활동 : ①인천 신항(또는 인천공항)을 통해 배후단지 내 화물 유입 → ② 생산(조립·가공·라벨링·검측·재포장 등) → ③관리·물류 → ④완제품 수출(신항, 공항)
- 도입가능시설 : 연구·R&D 기반을 포함한 스마트 팩토리, 다국적 기업 글로벌 물류 센터(Distribution Center), LSP(Logistic Service Provider)

2) 개발구상

- (바이오생산 클러스터)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와 인접하여 위치한 신항 2-1단계 항만 배후단지는 포화된 바이오산업 생산 부지로 활용
- (부가가치물류단지) 확장하는 인천 신항이 부가가치물류 중심 항만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환적화물 및 부가가치물류 부지로 활용



[도입가능 개발구상]



3.3.5 송도마리나 해양레저거점

- ◆ (사업개요) 부지면적 3,540천㎡(공유수면 1,663천㎡ 포함) / 추정 사업비 3,457억원
 - 옥지부 : 송도 워터프런트 697천㎡, 항만배후단지 항만친수시설 1,180천㎡
 - 사업방식 : ①송도 워터프런트: 「경제자유구역법」 상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②항만친수시설: 「항만법」 상 ‘항만(찬수)시설 개발사업’으로 시행방안 검토
- ◆ (필요성) 해양수산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계획상 마리나로 반영된 남측수로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필요성 대두

가.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①남측수로와 ②송도국제도시 및 항만배후단지 수변을 사업구역으로 설정
- (구역계 설정사유) 마리나와 수역, 주변 워터프런트를 포함한 사업구역 설정
 - 구역면적 : 약 3,540천㎡
 - 옥지부 :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697천㎡, 항만배후단지 항만친수시설 1,180천㎡
 - 공유수면 : 남측수로 1,663천㎡



[개발구역 설정]

나. 기본구상

1) 도입기능 설정

» 사업방향

- (원칙1. 남측수로) 마리나를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 공간으로 구성하여, 시민들을 위한 해양레저 대중화 유도
- (원칙2. 워터프런트) 방문자와 주민, 근로자를 위한 선형의 수변산책로(promenade)와 여가공간 계획

» 기능설정

- (남측수로 및 배후지) ①마리나 : 요·보트 중심의 도심형 해양레포트 체험 거점 시설, ②해양레저체험교실 : 해양레저 저변확대를 위한 체험기회 제공

- (워터프런트) ①여가공간 : 주민과 해양레저 활동 참여자를 위한 장소 확대,
②휴식공간 : 주변 대학의 학생, 업무 및 산업공간 내 근로자들이 일상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곳, ③상업·문화 : 일부 구간은 수변가로 활성화를 위한 가로형 상가
및 문화시설 도입

2) 개발구상

» 송도 마리나(남측수로)

- (운항가능 요·보트 규모) 수심기준과 형하고 기준에 따라 남측수로 내에서 운항
가능한 요·보트 규모를 제시
 - 수심 기준 : 남측수로 수심(5m) = d(선박 흘수) + 1.4m(여유 수심)
 - ①세일크루저 요트 : 전장 62ft(흘수 2.8m)까지, ②모터크루저 보트 : 전장
65ft(흘수 3.1m)까지 운항 가능하며, ③세일 덩기요트·모터보트 : 제한 없음
 - 형하고 기준 : 인천신항교 형하고(10m) = H(요트 마스트 높이) + 2m(교량
하부 여유고) + 0.3m(운영수위 변동높이)
 - ①남1수문~솔찬공원 구간 : 마스트 높이의 제한이 없으나, ②솔찬공원~인천
신항교 구간 : 마스트 높이를 최대 7.7m까지로 제한
 - * 요트 마스트 높이 제한을 없애려면 남측수로 내 교량 및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교량형식
이나 형하고 변경이 필요하나, 이는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경제성 저하요인을 내포하고 있음
- (주운계획) ①외해 노선 : 남1·2수문을 통해 서해로 연결, ②내부순환 노선 :
6·8공구 및 11공구 연결수로로 연결
 - 남1수문~솔찬공원(약 1.7km) : 외해를 항행하는 대형 요트 수용
 - 솔찬공원~교량4개(현재 1개)~남2수문(약 4.0km) : 보트 및 마스트 높이 7.7m
이내 요트 활동공간으로 구획

» 워터프런트

- (수로 북측부)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기본계획(IFEZ고시 제2014-249호)'에
반영된 4개 공간개념 유지
 - ①워터프런트 스테이, ②마린스포츠·수상문화, ③레저·서비스, ④아트 스트리트
- (수로 남측부) 항만배후단지 내 녹지는 「항만법」 상 항만친수시설에 해당,
항만시설용부지도 추후 개발계획 수립 시 녹지로 반영
- (요트산업 복합화*) 항만배후단지 내 요트·낚시 등 해양레저장비 제조기능 복합화를
통한 단계적 도입



3.4 청라권역

3.4.1 청라금융클러스터 및 특화금융집적단지

- ◆ (사업개요) 청라금융클러스터 약 468천㎡, 특화금융집적단지 약 419천㎡
/ 추정 사업비 4,649억원(청라금융 3,644억원, 특화금융 1,005억원)
- 사업방식 :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실시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추진 검토
- ◆ (필요성) 청라지구의 업무기능화 및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기능 특화 필요

가.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현재 하나금융그룹,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중심으로 주변 투자유치용지 등을 포함하여 개발구역 설정(기반시설은 기 조성완료)
- 구역계 설정사유 : ①청라금융클러스터: 청라지구 경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기 조성되어 있는 골프장, 외국인학교를 기준으로 구역계 설정
②특화금융집적단지: 청라지구 경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스타필드와 기 조성된 오피스텔 등을 기준으로 구역계 설정



[개발구역]

나. 기본구상

1) 도입기능 설정

» 사업방향

- (원칙1. 국가·시 정책 연계) '2050 탄소중립 전략', 인천시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허브도시 인천 조성'과 연계
- (원칙2. 주변 개발여건 고려) 스타필드청라, 청라의료복합타운, 공촌천체육공원, 영상문화복합단지(계획), G-Tech City(계획), 국제스케이트장(계획) 등 주변여건과 조화로운 계획 수립

» 금융기능

- (국제금융단지) 기존 청라지구에 위치한 국제금융단지와 연계를 통해 금융기능의 시너지 및 확장성을 제공
 - 특화금융 : ①핀테크·블록체인 : 미래 IT금융서비스 기반 마련, ②녹색금융 : GCF 송도사무국 출범과 더불어 녹색기후기금 재원 마련, ③물류금융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2023년)에 따른 금융지원 범위 확대* 등 기회요인 내부화
 - * 해운사 → 항만운행사·하역사·물류사·건설사 등
 - 하나금융 : 그룹HQ 청라 이전(2025년) 및 계열사 집적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해 청라의 금융특화기능 부각
- (지원시설) ①스타트업지원센터 : 핀테크기업 탄생을 위한 창업지원, ②금융교육관: 방문객들을 위한 금융관련 교육기능
- (국제업무단지) AI, ICT, IoT 등 4차산업 기능을 도입해 국제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업무시설, 주상복합 등 계획 중

» 연계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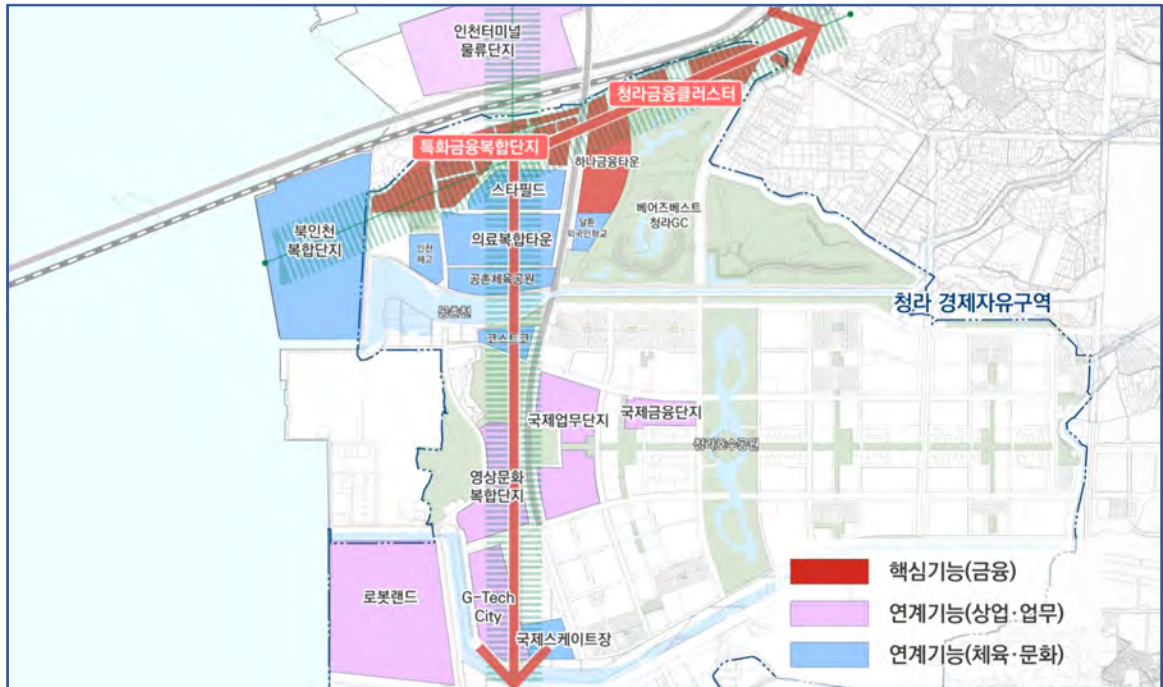
- (스타필드·돔구장) 스포츠경기와 공연이 상시 열리는 복합 이벤트시설로써, 스포츠·공연 관람 및 초대형 복합쇼핑 기능이 결합된 멀티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구성
 - * 쇼핑몰, 돔구장 외에 호텔 등 특화기능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여가기능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원스탑 여가공간으로 구성
- (청라의료복합타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병원으로 기획하여 대규모 병상, 임상연구 인프라, 질환별 맞춤 의료시스템* 구축
 - * 차세대 암 치료기인 중입자가속 암 치료센터와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고려하여 항공사고 응급의료센터 구축 등의 의료시스템 구축 예정

2) 개발구상

- (업무시설) 금융·IT·기타서비스 등 4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업무시설 도입
 - 현재 허용용도상 업무시설 건축이 불가능하고 건폐율, 용적률이 낮아 효율성 있는 업무단지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필요
 - * 변경예시 : 용도지역 상향(자연녹지→일반상업), 건폐율/용적률 상향(30%/100%→60%/600%)
- (주변지역 연계축) 청라 금융기능 뿐만 아니라 주변 업무, 상업, 체육 기능과 연계해 북청라 활성화로 자족기능 강화



- 업무·상업축 : 스타필드, 의료복합타운, 코스트코 등 주변 상업기능 및 영상문화복합단지, G-tech city, 국제금융단지 등 업무기능 연계
- 스포츠 클러스터 : 청라돔구장, 스포츠재활의료, 국제스케이트장, 스포츠복합단지 등



[개발구상]



청라금융 클러스터 및 특화금융 복합단지

제 I 장

제 II 장

제 III 장

제 IV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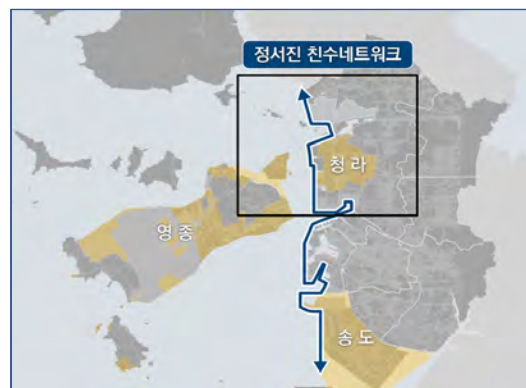
제 V 장

3.4.2 바다이음

- ◆ (사업대상지) 청라권역 해안 변 / 추정 사업비 409억원
 - 사업방식 : 「공유수면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을 통한 사업추진 검토
- ◆ (필요성) 해안변 보안시설 입지로 인해 차단되었던 시민의 해안 접근성과 친수공간 개방성을 점진적으로 확대·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바다이음’ 추진

가.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인천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상 ‘정서진 친수네트워크*’ 일원을 개발 구역으로 수용
 - 구역계 설정사유 : 시민의 해안 접근성과 친수공간 개방성의 점진적 확대·개선 측면에서 발전소·갑문·군부대 등 보안시설이 많은 해안 워터프런트 일원을 구역에 포함



[개발구역]

나. 기본구상

1) 도입기능 설정

» 사업방향

- (원칙1. 연결성 제고) 기존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상의 노선 중 연결이 불가능한 구간 우회
- (원칙2. 시민친화 공간) 철책개방을 통해 확보된 친수공간의 연결성을 유지시켜 시민 친화적인 바다로 인식전환
- (원칙3. 친환경 공간) 친수공간 조성으로 인한 환경파괴 및 영향 최소화

» 기능설정

- (네트워크 구축) 아라뱃길, 공촌천, 심곡천 등 수변공간과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
 - ①산책로, ②자전거도로, ③친수활동 프로그램 : 경관감상, 생태체험, 생활 등
- (거점공간 조성)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친수거점을 조성하여 집객 유도
 - ①정서진 : 아라뱃섬과 정서진광장 주변 일몰경관 특화구역, ②전망타워 : 제3연륙교 주변 소규모 전망타워를 여가공간 및 랜드마크로 활용, ③공유수면 : 안암호 유수지 내 토지화된 공유수면(약 92,500㎡)을 친수공간으로 조성



2) 개발구상

- (단절구간 우회) 안암호~로봇랜드 남측 구간 중 보행 단절구간에 대한 보완방안
 - ①갑문 : 인천물류단지 북측 거점로, 경인항대로 등으로 우회, ②발전소 : 부지 전면 해안데크 설치 등 검토 필요
- (철책개방) CCTV, 미관펜스 등 대체시설을 전제로 해안선 철책 제거방안 협의
- (수도권 1·2매립장) 생태·문화·관광으로 정비 후 보행체계에 편입해 시민에게 제공



[개발구상]



청라 브릿지파크

3.4.3 환경복합 연구단지

- ◆ (사업개요) 부지면적 약 2,124천㎡ / 추정 사업비 1조 5,258억원
 - 유치시설용지 1,218천㎡(57.3%), 공공시설용지 906천㎡(42.7%)
 - 사업방식 : 「경제자유구역법」 상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통한 사업추진 검토
- ◆ (필요성)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입지하고 있는 종합환경연구단지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구조고도화 및 친수주거단지 조성

가.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경인아라뱃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봉수대로 등으로 위요된 부지를 개발 구역으로 설정
 - 구역계 설정사유 : ①현재 종합 환경 연구단지를 포함하고 ②주변 유휴부지를 사업구역에 포함시키되, ③도로 등 명확한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구역계를 설정
 - 구역면적 : 약 2,124천㎡



[개발구역 설정]

나. 기본구상

1) 도입기능 설정

» 사업방향

- (원칙1. 자원재활용) 인근 수도권매립지라는 상징성을 고려하여 폐기물을 줄이고 환경에 부담이 없는 자원재활용 관련 기능의 도입 및 집적
- (원칙2. 미래산업 연계) 북청라TG 인근 드론인증센터를 활용하여 주변에 드론 산업 관련 기능이 집적될 수 있는 공간 조성

» 기능설정

- (환경복합연구단지) 자원순환 관련 기업과 연계한 기술지원 R&D실증체계 구축
 - ①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 자원순환, 생분해플라스틱 등 연구 및 기업 기술 지원, ②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폐기물 제도 등 운영·관리, ③인천자원순환공사: 매립지 매립 종료 후 폐기물 재활용, 매립지의 생산적·효율적·전문적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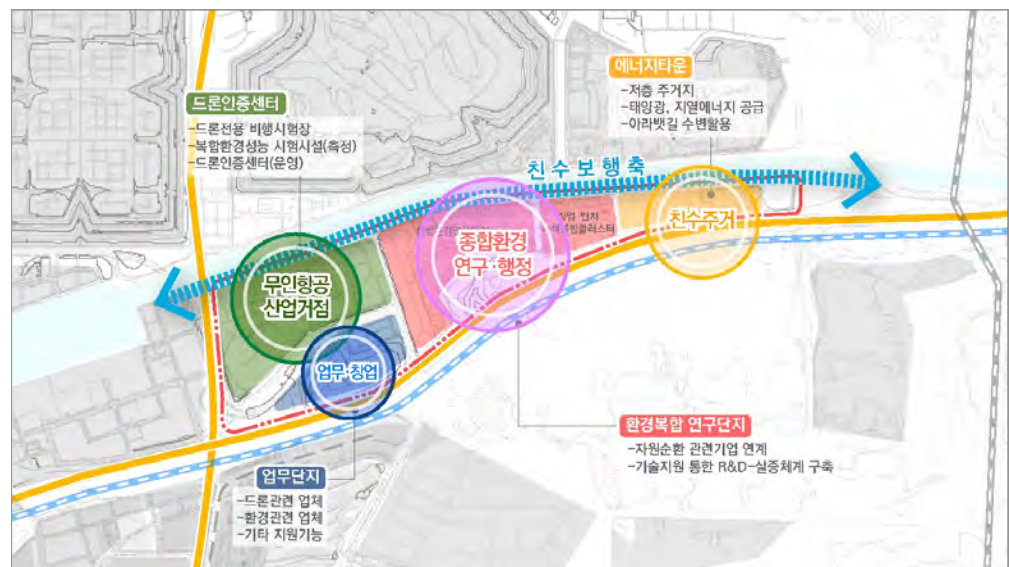


- (드론인증센터) 드론인증센터와 드론전용비행시험장 등 드론 클러스터 기반 구축
- (업무단지) 자원순환 관련업체, 드론관련업체 등을 수용할 업무단지 조성
- (에너지타운) 경인아라뱃길 수변에 에너지타운인 저층 주택단지 조성

2) 개발구상

- (공간배분) ①동측에는 검암역과 연계한 제로에너지타운을 배치하며, ②서측 북청라 TG 주변에는 업무단지, 종합환경 연구단지와 드론인증센터를 집중 배치
- (교통구상) 간선교통망은 북청라TG 청라TG 인천공항TG 정서진로와 연계하며, 보행공간은 경인아라뱃길 친수공간과 연계체계 형성

[개발구상]

환경복합
연구단지

다. 개발계획(예시)

○ (사업면적) 2,124천㎡(643천평)

－ 유치시설용지 1,218천㎡(57.3%), 공공시설용지 906천㎡(42.7%)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천㎡)	구성비(%)	비 고
합 계	2,124	100.0	－
1. 유치시설용지	1,218	57.3	－
환경복합 연구단지	448	21.1	존치
드론인증센터	427	20.1	존치
업무단지	271	12.8	－
에너지타운	72	3.4	－
2. 공공시설용지	906	42.7	－
공원·녹지	596	28.0	－
하천	72	3.4	－
도로	238	11.3	－





4 연계사업 개발계획(안)

4.1 영종권역

4.1.1 인천국제공항 복합문화시설

- ◆ (사업개요) 부지면적 약 380천㎡ / 추정 사업비 1조 8,160억원
 - 복합문화시설 약 670천㎡(건축연면적)
 - 사업방식 : 「공항시설법」 상 ‘공항개발사업’을 통한 사업추진 검토
- ◆ (필요성) T1주차장 부지를 새로운 공항이용 패러다임에 맞게 복합개발 필요

»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공항구역 내 제1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 부지

- 구역계 설정사유 : 노면주차장 형태로 이용되는 장기주차장은 제1여객터미널과 국제업무단지(IBC-1) 사이 토지로 가용지가 부족한 공항구역 내 높은 잠재력을 고려하여 개발구역으로 설정



[개발구역 설정]

» 기본구상

- (사업방향) 국가 관문인 상징적 공간에 인천 공항경제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공항과 관광이 융합된 새로운 공항형 여가·문화공간 창출
 - 인천공항공사 : 인바운드 및 환승수요 확대를 위해 복합문화시설 계획 수립*
 - * 자료 :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 대책(관계부처 합동, '24.03)
- (도입기능) 공항이용객이나 관광객, 목적형 방문객 등 목표시장*의 원스톱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플랫폼 형성
 - 원칙1. 체류시간 확대 : 방문 목적성 강화를 위한 시설 도입(예: 공항연계 비즈니스, 전시·회의, 몰링(malling)* 파크, 테마형 숙박시설 등)
 - 원칙2. 토탈 스페이스 :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예: 출입국↔업무↔여가, 엔터테인먼트↔쇼핑↔숙박 등)
 - 원칙3. 복합화 : 고객의 다양한 니즈(needs)를 반영(예: 신 모빌리티, 스마트 출국,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 등)

4.1.2 아이퍼스 힐(IFUS HILL)

- ◆ (사업개요) 부지면적 약 810천㎡(구역지정 추진 중)
/ 추정 사업비 : 부지조성 2,300억원(시설개발 1조 8,000억원)
- 사업방식 : 「경제자유구역법」 상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통한 사업추진 검토
- ◆ (필요성) 인천공항의 입지경쟁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인천공항 토취장 부지를 지식산업과 관광이 융복합된 단지로 개발 필요

»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인천공항 및 왕산마리나 건설 시 토석을 채취했던 토취장 부지 일원
- 구역제 설정사유 : IFEZ 해제(2018. 2.)지역 이자, 공항건설을 위한 토취 후 방치지역

» 기본구상

* 자료 : 을왕산 IFUS HILL 개발사업(IFEZ·아이퍼스힐(주), '24.)

- (사업방향) 영상산업시설 및 K-OTT 디지털영상 콘텐츠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 (도입기능) 영상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을 위한 영상산업시설 집적
- 영상산업 : OTT글로벌영상제작단지, 첨단VFX스튜디오, 방송테마시설
- 업무시설 : 지식산업센터, 미디어·컨벤션센터, 콘텐츠 실증센터
- 관광·지원시설 : 위락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



[개발구역 설정]

4.1.3 항공산업 혁신클러스터

- ◆ (사업개요) 부지면적 약 5,095천㎡(4,482천㎡ 추진 중)
/ 추정 사업비 : 1조 2,552억원 중 잔여액 2,162억원('27년까지 투입 예정)
- 사업방식 : ①첨단복합항공단지: 부지는 「공항시설법」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상 ‘공항개발사업’, ②영종일반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통한 사업추진 검토
- ◆ (필요성) 인천공항의 세계 수위공항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미래 국제항공화물 수요와 물류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필요성 대두



»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상위계획 기 반영된 스마트물류 특화단지 및 MRO단지 확장을 고려

– 구역계 설정사유 : 스마트물류 특화단지와 MRO단지를 구역으로 설정

- 스마트물류 특화단지(1,352천㎡) : ①제1산업물류단지 2-2단계(미개발지) 278천㎡, ②조성계획 상 공항물류단지(3단계) 535천㎡, ③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국토교통부, 2023년) 상 제3물류단지로 반영된 357천㎡, ④제5할주로 건설 시 물류단지로 기능재편(현재 골프장) 182천㎡
- MRO단지(3,743천㎡) : 화물기정비단지 472천㎡, 첨단복합항공단지 2,346천㎡, 유보지 431천㎡, 영종일반산업단지 495천㎡



» 기본구상

- (스마트물류 특화단지) 노후화된 기존 화물터미널과 인력 중심의 고비용 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물류체계를 갖춘 화물터미널로 재편
- (MRO 특화단지) 첨단복합항공단지와 화물기정비단지, 영종 일반산업단지로 구성
 - 첨단복합항공단지 : 2026년 기반조성, 엔진부품MRO, 정비교육센터, 격납고 등 입지
 - 화물기정비단지 : ①아틀라스항공 중정비센터 2026년 완공 예정(2030년까지 확장), ②IAI사 여객기 개조 2025년 완공 예정
 - 영종 일반산업단지 : 항공 MRO산업 유치를 위해 주요유치업종 변경(수리·정비·분해조립 추가) 추진
 - 대한항공 엔진정비공장 : 연간 300대 생산능력의 엔진정비 클러스터, 2027년 완공

4.1.4 에어로트로폴리스 기반구축

- ◆ (사업개요) 철도 5개 노선, 신교통(BRT, 자율주행) 2개, 도로 4개 노선 / 추정 사업비 약 5조 584억원 중 영종순환 BRT 사업비 2,043억원
 - 사업방식 : 「간선급행버스법」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
- ◆ (필요성) 현재 진행 중인 계획 노선 반영 및 신교통 수단 도입을 통한 에어로트로폴리스 기반 구축 방안 마련

» 개발노선 설정

- ①공사 중(5개 노선), ②상위계획 반영(2개 노선), ③계획 중(2개 노선) : 도면 참조
- ④본 과업 신규제안 영종순환 BRT : 영종권역 자율주행도로를 활용하여 청라 구역과의 연계를 통해 서울까지 연결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



[영종도 주요 광역간선망 현황 및 계획]

» 기본구상 : 영종순환 BRT

- (생활형 순환도로망) 하늘도시, 미단시티, 영종일반산업단지 등을 순환, 도시 내부 도로를 대중교통중심으로 전환하는 생활형 가로망 체계
 - 1단계 :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에 BRT를 도입하여 자율주행 상용화 서비스 제공하며, 청라 BRT와 연계하여 서울까지 연결(상위계획 상 트램 노선 반영, 개별시설 또는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2단계 : 장래 수요(미단시티, 중산마린시티)를 고려하여 확장여부 결정
- (관광 연계형 순환도로망) 용유지역으로 순환하는 가로망 확장과 연계하여 검토



[영종 순환BRT 노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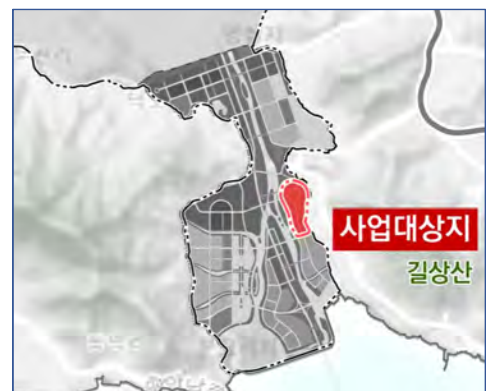
4.2 강화·옹진권역

4.2.1 뷰티헬스 클러스터

- ◆ (사업개요) 부지면적 약 194천㎡(강화 글로벌 K-그린바이오 특화도시 내)
/ 추정 사업비 : 576억원
- 사업방식 : 「경제자유구역법」 상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통한 사업추진 검토
- ◆ (필요성)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해양치유지구와 연계를 통해 뷰티헬스 클러스터 조성

»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강화 글로벌 K-그린바이오 특화도시’ 중 해양치유지구와 인접하여 의료기능의 연계가 가능하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길상산 주변 부지를 뷰티헬스 클러스터 대상지로 선정
- 구역계 설정기준 :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하천 및 길상산과 남측의 해양치유지구 경계를 기준으로 구역계 설정
- (개발여건)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해양치유지구를 활용한 치유 및 뷰티헬스 관광을 윈스탑으로 제공 가능



[개발구역 설정]

» 기본구상

- (사업방향) 강화 고유의 자원과 강화남단 개발로 조성되는 해양치유지구와 연계한 뷰티헬스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웰니스 관광 활성화

» 기능설정

- (뷰티 Street) 국내의 뛰어난 미용 관련 기술과 더불어 헤어, 메이크업 등 연관 업체의 집적을 통한 뷰티 Street 조성
 - 뷰티 축제 : 외국인 관광객 뿐만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뷰티축제를 계획하여 남측의 해양치유지구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도입
- (헬스 Street)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으로 구분하여 웰빙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Sports 프로그램(운동을 통한 건강관리), Relax 프로그램(명상, 요가, 마사지 등), food 프로그램(강화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체험 및 건강식품 판매)

4.2.2 해안관광·해상교통 네트워크

- ◆ (사업개요) 강화군 분오항, 후포항, 외포항, 어류정항 일원
- ◆ (필요성) 어항을 해상운송 및 관광지원으로 정비하여 지역활성화 수단으로 활용 필요

»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어류정항, 외포항, 후포항, 분오항 및 주변지역
 - 구역계 설정사유 : 많은 관광지가 입지한 강화남단과 석모도 내 4개 어항을 사업구역으로 설정

» 기본구상

- (정비방향) 어항을 바다역으로 설정하고 항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증대
 - 강화도, 석모도 뿐만 아니라 영종도, 신도를 포함하는 정기 여객노선을 확보하여 여객 관광 기반 확보



[개발구역 설정]



4.2.3 바다이음, 돈대 바다조망점

- ◆ (사업개요) 강화군 선원면 연리~삼산면 매음리 일원 / 추정 사업비 48억원
 - 사업방식 :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허가(공작물), 「공유수면법」 상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을 통한 사업추진 검토
- ◆ (필요성) 강화 나들길을 정비하고 돈대와 연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특화 필요

»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강화나들길 7코스, 8코스, 20코스(초지진, 후애돈대, 분오리돈대, 송곳돈대 등 역사문화유산과 함께 하는 바다 이음길)
 - 구역계 설정사유 : 강화남단은 문화·역사자원과 바닷가 카페가 많아 관광객이 즐겨 찾는 지역으로, 최소한의 인프라 정비 시 해양친수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임



[개발구역 설정]

» 기본구상

- (강화나들길 개선) 강화나들길 위험 구간, 정비불량 구간, 단절구간 시설개선 및 바다조망점 및 휴식공간 설치를 통해 재미있는 보행환경 제공
- (주민참여 프로그램) 걷기 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돈대이야기 문화관광 해설 프로그램 특화
 - 친수활동 프로그램 : 동막해변 중심으로 백사장과 갯벌에서 가족형 놀이활동 (수산물 채취, 백사장 놀이 등)을 친수활동 프로그램으로 계획

4.2.4 영종-강화 철도연결망 구축

- ◆ (사업개요) 강화평화도로와 병행한 남북철도망 구축 / 추정 사업비 1조 785억원
 - 사업구간 : L=18.3km(인천공항철도 운서역~강화남단)
 - 사업방식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통해 사업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 ◆ (필요성) ‘강화 글로벌 K-그린바이오 특화도시’를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뿐만 아니라 남북교류 및 바이오산업의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교두보 필요

» 개발노선 설정

- (개발노선)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상 영종강화선 광역철도, L=18.3km(인천공항철도 운서역~강화남단 구간)
 - 노선 설정사유 : 강화남단에 대규모 사업인 ‘강화 글로벌 K-그린바이오 특화도시’ 추진에 따른 교통량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철도노선을 선정



[개발노선 설정]

» 기본구상

- (사업구간) 강화남단에 계획된 ‘강화 글로벌 K-그린바이오 특화도시’를 광역 교통이 우수한 영종도 내 인천공항철도 운서역과 연결
 - 일반철도, 도시철도, 광역철도 등의 구분은 향후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 (연결시기) 향후 강화남단의 활성화 추이를 고려하여 철도 개설시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며, 강화남단 개발 초기에 강화남단에서 유발되는 교통량은 강화평화대교를 통해 처리함
 -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대비하여 강화 북부를 거쳐 황해도까지 연결토록 계획
- (공항철도 연계) 현재 운행되고 있는 인천공항철도와 연계를 통해 철도이용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영종도와 강화도의 연결 편의성 강화
 - 환승을 통한 GTX-D·E, 인천발KTX와의 연계로 수도권 및 전국 철도망 체계에 접속될 수 있도록 함



4.2.5 강화 연결도로 확충

- ◆ (사업개요) 초지교차로~길화교교차로 구간 L=6.0km / 추정 사업비 248억원
 - 사업구간: ①구간(초지+~장흥리입구) L=4.0km, ②구간(장흥리입구~길화교+) L=2.0km
 - 사업방식: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국토계획법」 상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준용사업) 의제를 통한 사업추진 방안 검토
- ◆ (필요성) 강화남단 ‘글로벌 K-그린바이오 특화도시’ 구성에 따른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어 진입로 확보 필요

» 개발구역 설정

- (개발노선) ①구간: 지방도84호선(초지+~장흥리입구) L=4.0km, ②구간: 보리고개로(장흥리입구~길화교+) L=2.0km
- 노선 설정사유: 강화남단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통행량 증가분을 분산하기 위한 강화-김포-서울 방향의 시점으로 정비



» 기본구상

- (도로 확폭) 현재 2~4차로를 설계속도 및 부지현황 등을 고려해 6차로로 확장

구 분	당초	변경
합 계	· 연장 L=6.0km, 폭원 B=10~20m	· 연장 L=6.0km, 폭원 B=20~30m
①구간	· 연장 L=4.0km, 폭원 B=20m(4차선)	· 연장 L=4.0km, 폭원 B=30m(6차선)
②구간	· 연장 L=2.0km, 폭원 B=10m(2차선)	· 연장 L=2.0km, 폭원 B=20m(4차선)

주: 제시된 폭원 및 차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도이며 세부설계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2.6 바다역 조성

- ◆ (사업개요) 강화남단 분오항, 후포항, 어류정항, 외포항 / 추정 사업비 12억원
 - 사업면적 : 200m²(건축 연면적 기준)
 - 사업방식 : 「건축법」 상 ‘건축물 조성사업’을 통한 편익시설 조성 방안 검토
- ◆ (필요성) 강화도의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한 연계 확대를 위한 어항 기반 정비

»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어류정항(국가어항), 외포항, 후포항(지방어항), 분오항(정주어항)
 - 구역계 설정사유 : 강화남단 어항의 시설을 보완·개선을 위해 어류정항 등 4개 어항구역을 설정



[개발구역 설정]

» 기본구상

- (복합 커뮤니티시설) 침체되어 있는 소규모 항구에 어업인의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과 여객수송 복합플랫폼 확보를 통해 항구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
 - 도입활동 : 여객선 이용객 및 어업종사자, 요트 등 해양레포츠 참여자 등을 위한 휴식·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예: 휴게실, 회의실,, 특산물 판매장 대피공간 등)
- (친수활동) 항구 주변의 해변, 갯벌, 자연과 연계한 마을축제, 섬마을 호텔 등을 계획하여 관광객과 위케이션 이용자 집객 유도
 - 축제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해 방문객이 관계인구로 발전하고, 섬마을 공동화를 대체함으로써 섬과 도심인구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



4.2.7 백령도 관광기반 조성

- ◆ (사업개요) 부지면적 약 2,831천㎡ / 추정 사업비 4,174억원(백령공항 3,102억원, 용기포항 788억원, K-관광섬 100억원, UAM 버티포트 195억원)
 - 사업면적 : 백령공항 및 주변지역 2,502천㎡, 용기포항 329천㎡
 - 사업방식 : ①백령공항 주변지역: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사업’ 또는 「관광진흥법」 상 ‘관광단지조성사업’
 - ②서해3도네트워킹(버티포트): 「도심항공교통 촉진법안」 상 ‘버티포트개발사업’
 - ③백령공항은 「공항시설법」 상 ‘공항개발사업’, 용기포항은 「항만법」 상 ‘항만시설 공사’ 로 시행
- ◆ (필요성) 특별목적관광 자원정비 및 군사적 대치공간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필요

가.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백령공항 및 주변지역, 용기포항
 - 구역계 설정사유 : 백령도의 관문인 용기포항, 새로 건설되는 백령공항과 공항배후단지인 공항주변지역*을 개발구역으로 설정
 - * 백령공항 주변지역 발전전략 및 기본구상(인천시, '23.)
 - 구역면적 : 약 2,831천㎡



[개발구역 설정]

나. 기본구상

» 백령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 (백령공항 배후도시) 2,502천㎡(유치시설용지 907천, 공공시설 1,034천, 유보지 561천, 공공시설·유보지 내 공항 포함), 사업비 108,448백만원
- (관광자원화) 특별목적관광(SIT: Special Interest Tourism)은 여건을 고려하여 단기사업으로, 대중관광은 수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
 - 특별목적관광 : ①자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해안길의 아름다움에 해양문화를 접목한 관광상품, ②안보관광: ‘서해 최북단’이라는 백령도의 지정학적 상징성
 - 공항주변 개발 : 관광수요, 백령도의 수용력 등을 고려한 단계별 개발 필요
 - ‘10억년 자연을 품은 관광휴양지 백령도’ 사업 : 기간(2023~2026년), 사업비 100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

○ (생활SOC 확충) 부족한 기반시설*, 인천 도심과의 긴 이동시간, 급격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섬 공동화 방지를 위해 생활SOC 확충 추진

* 예) 상수도(백련정수장, 지하관정, 일부 해수담수화시설), 하수도(진촌·가을처리장, 개별처리시설), 도시가스 미공급, 백령도 노인요양원(1개소, 16병상) 등

－ 주민희망시설 : 의료시설, 문화·여가기반 확충, 도로·상하수도 등 개선, 섬 내 대중교통 개선, 교육시설 확충 등



[배후도시 및 주변개발 구상 설정]

○ (서해3도 네트워크) 주민이나 관광객이 3개 도서를 하나의 권역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백령도 용기포항을 중심으로 한 서해3도 연계교통망* 구축

* 네트워크 수단 : 서해3도 순환선, UAM, 드론 등

－ 활용방안 : ①관광객: 자원 다양화를 위한 서해3도 셔틀노선 및 UAM 투어 등 관광상품화, ②주민: 도서 내 생활SOC 이용체계 및 드론을 이용한 도서 내 생활화물 운송체계 강화

○ (백령도 관문시설 : 용기포항) 인천—백령 간 여객수요 26만명('40년 기준)을 위한 해상관문 역할

－ 백령공항('29년 준공예정) : 개항 시 서해3도 교통복지 증진 및 관광수요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보 리스크 완화 기대(여객터미널 1,700㎡)



4.2.8 영흥도 친환경에너지 기반 조성

- ◆ (사업개요) 부지면적 약 6,853천㎡ / 추정 사업비 약 2조 9,320억원
(영흥에너지단지 2조 8,646억원, 영흥공공사업부지 674억원)
- 사업규모 : ①영흥화력1~6호기, 해상풍력 640MW, ②영흥공공사업부지 895천㎡
- 사업방식 : ①영흥에너지단지 : 「전원개발촉진법」 상 ‘전원개발사업’, ②영흥공공사업부지 : 「국토계획법」 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산업입지법」 상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시행방안 검토
- ◆ (필요성) 친환경에너지 확충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및 공공부지 활용 필요성 제기

»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영흥발전본부(화력발전소), 해상풍력단지(사업허가 취득), 공공사업부지
 - 구역계 설정사유 : 친환경에너지 기반으로의 전환기
 - 구역면적 : 영흥발전본부 5,958천㎡, 공공사업부지 895천㎡(시 소유)

[개발구역
설정]



» 기본구상

- (영흥 화력발전) 1·2호기는 '35년까지 정부 계획보다 진전된 수소발전으로, 기타 3~6호기는 가동연한을 고려 '45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소발전 전환
- (해상풍력) 덕적 및 용의·무의·자월, 시설용량 각 320MW(8MW급 40기)
- (영흥공공사업부지) 입지가능시설 기본유형 설정, 필요 시 유형1~3 중 최적조합 적용
 - 유형1 : 공공이 친환경에너지단지, 주민요구시설, 지연산업 인프라 등을 조성
 - 유형2 : 공공이 어트랙션 시설을 조성하고, 중소자본이 볼거리·즐길 거리 창출
 - 유형3 :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구조로 수익 극대화 및 지역 상생구도 형성

4.3 송도권역

4.3.1 남항2단계 항만배후단지

- ◆ (사업개요) 부지면적 약 2,642천㎡ / 추정 사업비 1,596억원
- ◆ (필요성) 인천항 항만물동량 증가, 전자상거래 수요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물류 산업 반영 및 국제여객터미널 지원

»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남항2단계 항만배후단지 중 ①미준공 구역, ②준공 후 미매각 부지 다수 포함 구역*

* ①1-3구역(530천㎡), 1-2 및 2구역(972천㎡), ②국제여객 부두 배후지(1,140천㎡)

** ①,②를 제외한 구역 : 1-1구역(670천㎡)

－ 구역계 설정사유 : 부지 조성완료 예정지역으로 지속적인 투자유치가 필요

－ 구역면적 : 약 2,642천㎡



[개발구역 설정]

» 기본구상

- (국제여객부두 배후지) 핵심 투자유지부지에 유러피언 웰빙스파&리조트 유치 예정
- (1-3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완료, 공공성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배후단지 공급·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이후 협상 완료 예정
- (2구역) 종합보세구역 지정, 이커머스 등 임대사업자를 선정 예정



[국제여객, 해양관광 클러스터]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확장]



4.3.2 교통접근성 강화

- ◆ (사업개요) 철도2개·도로2개·신교통(트램)1개·BRT1개 노선, 복합환승센터 1개소 / 추정 사업비 총 2조 8,933억원 중 본 과업 신규제안 약 6,406억원(2개 노선)
 - 사업규모 : ①인천1호선 연장 L=2.62km, ②아암대로 지하화 L=4.85km
 - 사업방식 :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
- ◆ (필요성) 현재 진행 중인 교통계획 노선 반영 및 일부 노선 수정을 통해 송도경제자유구역 교통 접근성 강화 방안 마련

» 개발노선 설정

- ①공사 중(1개 노선), ②상위계획 반영(6개 노선) : 도면 참조
 - 인천1호선 연장 : 송도권역과 원도심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사업노선에 반영
- (③본 과업 신규제안)
 - 아암대로 지하화 및 상부 녹지화 : 원도심으로 연결되는 상습 정체구간 개선 및 원도심-송도 북측수로변 녹지축 연계를 위해 사업노선으로 설정



[송도권역 교통접근성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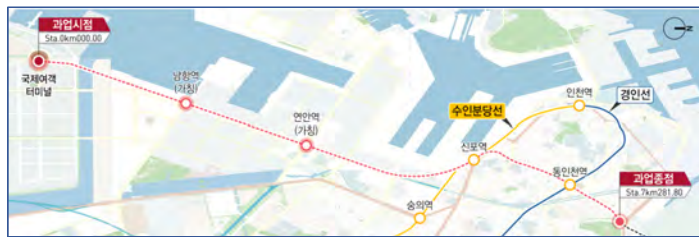
» 기본구상

- (인천1호선 연장) 송도-원도심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관련계획 부합성 및 제물포르네상스 계획 등을 고려하여 인천1호선 노선을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
 - 연장구간 : 총 7.28km(달빛축제공원역~동인천~송현) 중 사업구간 2.62km(달빛축제공원역~국제여객터미널)

- (개발여건)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인천시, 2022.)’상 인천1호선 연장사업의 목표연도는 본 계획과 동일한 2035년으로 반영되어 있음

- 제물포르네상스 MP : 인천 1호선 도시철도를 국제여객터미널까지 연장하여 수요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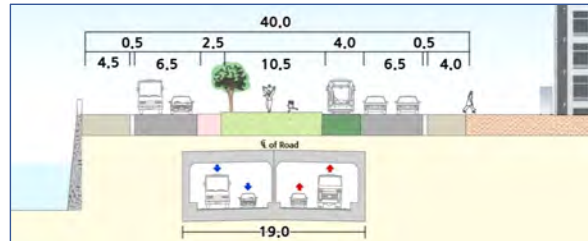
*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보고서 (인천시, '23.12)



[제물포르네상스 계획(인천1호선)]

- (아암대로 지하화) 입체교차로 구간을 연결하는 지하도로 건설(L=1.4km, B=19m, 왕복 4차로)

- 상부 녹지화 : 차로 지하화를 통해 확보되는 상부공간을 여가문화 공간 등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간선도로로 인해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



- 입체화 및 상부녹지 조성계획 : 40m

[입체화 및 상부 녹지 조성(예시)]



[인천1호선 연장]



[아암대로 지하화 및 상부녹지화]



4.4 청라권역

4.4.1 스포츠·문화 복합단지

- ◆ (사업개요) 수도권매립지의 동쪽 끝부분에 위치 / 추정 사업비 약 199억원
 - 사업방식 : 「국토계획법」 상 체육시설로, 기 결정된 세부조성계획 변경 후 사업시행
- ◆ (필요성) 주변지역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입주로 인해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 필요

»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스포츠센터와 주민편의시설
 - 구역계 설정사유 : 수도권매립지(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국토계획법」 상 체육시설로 중복결정된 지역



[개발구역 설정]

» 기본구상

- (도입기능)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과 문화시설로 복합화
 - 체육시설 :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젊은 세대들을 위한 주변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장년층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 문화시설 : 기존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이용도가 떨어짐을 고려하여, 실내 체육시설 등 기능 복합화를 통한 활용도 제고

4.4.2 수소혼소발전 에너지선도단지

- ◆ (사업개요)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1,800MW),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발전본부(1,800MW), 한국중부발전 인천발전본부(1,462MW)의 수소혼소발전설비 구축 / 추정 사업비 약 1조 5,617억원
 - 사업방식 :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및 발전본부별 시설개선 장기계획 등에 따라 시행방안 검토
- ◆ (필요성) 수소·혼소발전을 통한 탈탄소, 탄소중립 실현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준수

»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서인천발전본부(한국서부발전), 신인천발전본부(한국남부발전), 인천발전본부(한국중부발전) 등 발전본부 입지

- 구역계 설정사유 : 수소혼소발전 계획대상지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3개 발전본부임을 감안하여 구역계 설정



» 기본구상

- (개발방향) 기후변화와 탄소저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전연료 전환
 - 단기(수소혼소) : 그린수소의 생산단가, 수소터빈의 연구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LNG와 소수를 일정비율로 혼합
 - 개념 : LNG를 수소와 혼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방식
 - 장기(수소발전) : 가스터빈의 수소터빈 전환, 저렴한 그린수소를 활용하여 발전 연료의 100% 수소전환
- (혼소발전) 수소혼소발전이 가능하도록 현재 가스터빈을 개조하고 수소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 실증 : 보령복합화력발전소에서 150MW급 가스터빈을 대상으로 수소 혼소율 50%* 시연 완료
 - * LNG를 연료로하는 기존 가스터빈을 활용하여 LNG 50%, 수소 50%의 연료로 혼소발전
 - 적용 : 2027년 하반기에 수소혼소율 30% 목표로 인천복합발전소 등에 적용 예정
- (수소발전) 수소터빈*을 활용하여 LNG에서 수소로 연료 전환** 및 주변에 계획된 수소특화집적단지와 연계***
 - * 국내기술로 2027년 수소터빈(380MW급) 개발 목표
 - ** 연료 전환을 위해 향후 수소수입항, 배관 등의 기반시설 조성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안전대책 강구 필요
 - *** 수소 특화기업들과 연계하여 수소가스 터빈 개조기술, 유지보수, 주요 부품 국산화를 위한 협력 강화
- (혼소발전의 효과) 기존 LNG 발전시 연간 약 47만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나, 수소혼소발전으로 대체 시 이산화탄소가 배출량이 최대 약 37%* 감소
 - * 혼소율 35%는 약 14% 감소, 혼소율 70%는 약 37% 감소

[개발구역 설정]



4.4.3 수소특화집적단지(노후 공장밀집지역)

- ◆ (사업개요) 산업단지 지정을 통한 노후 공업지역 정비(수소특화)
/ 추정 사업비 약 16.9억원(산업단지지정 용역비)
- 사업방식 : 「산업입지법」 상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시행방안 검토
- ◆ (필요성) 탄소저감을 위한 에너지로서 수소의 부상과 수소산업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입법에 따라 수소연관산업의 기반 마련 필요성 제기

»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SK인천석유화학 인근 공장단지

- 구역계 설정사유 : 봉오대로, 중봉대로, 건지로, 봉수대로에 의해 형성된 블록 중 SK인천석유화학을 제척한 노후공장 밀집지역
- 구역면적 : 약 967천㎡



[개발구역 설정]

○ (개발여건) 일반공업지역으로 자동차정비, 창고, 전자제품, 아스콘, 기계, 화학 등 다양한 업종의 공장이 혼재

- 무계획적 혼재와 노후화로 업종별 집적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기본구상

- (목표) SK인천석유화학 부지 내에 위치한 자회사인 IGE를 중심으로 수소관련 업종을 집적하여 수소관련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인천을 수도권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부생수소를 생산하는 IGE와 생산된 수소를 안전하게 운송하는 기반기술 및 소재 개발업체 집적을 유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 생산인프라 : 부생수소생산을 위한 각종 기계부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과 더불어 향후 청정수소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부품 생산
 - 수송인프라 : 현재 수소기체를 압축하여 튜브트레이일러를 통해 운송하고 있으며, 액화수소 탱크로리도 국산화에 성공하여 상용화
- (수소특화단지 공모) 현재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을 향후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수소특화단지 공모*

* 「수소법」 개정에 따라 '24.5. 공모 예정

산업단지 지정 후 여건을 고려하여 재생사업 추진 여부 결정

4.4.4 UAM 시험장 및 문화·체육시설

- ◆ (사업개요) 제2매립장에 UAM시험장, 문화·체육시설 조성 / 추정 사업비 약 421억원
 - 사업방식 : ①UAM시험장: 「도심항공교통 촉진법안」 상 ‘UAM시험장 조성사업’, ②문화·체육시설: 「국토계획법」 상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최적의 시행방안 검토
- ◆ (필요성) 매립이 완료된 유휴부지에 대해 미래산업에 대한 테스트베드 이용 및 시민 여가공간으로 활용

»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수도권매립지 중 매립이 종료된 제2매립장
 - 구역계 설정사유 :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경계를 구역계로 활용
 - 구역면적 : 약 3,779천㎡



[개발구역 설정]

» 기본구상

- (사업방향)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기능인 UAM시험장과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휴게공간을 배치
 - UAM 시험장 : 상용화가 임박한 UAM에 대한 시험공간 조성
 - 문화·체육시설 : 매립지에 조성이 가능한 시민 휴게공간 조성
- (UAM 시험장) 앞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신교통수단인 UAM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을 설치하여 관련 산업의 인천시 입지 유도
 - 주변에 주거지와 고층 건물이 없어 비행체 이착륙이 용이한 입지특성 고려
- (문화·체육시설) 대상지에서 접근이 어려운 문화시설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기존 문화시설의 기능을 실내 체육시설과 복합화
 - 도입시설(예시) : ①운동장: 평탄하고 넓은 지형적 이점을 살려 시민들을 위한 다목적 운동공간, ②전시·교육시설 : UAM을 포함한 항공시설 전시 및 항공 레저 교육 등 학생이나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견학코스 조성



4.4.5 수소자동차 R&D센터

- ◆ (사업개요) 수소자동차 R&D센터 조성 / 추정 사업비 약 502억원
 - 사업방식 : 「경제자유구역법」 상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부지에 「건축법」에 의해 R&D센터를 조성
- ◆ (필요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저감 방안으로 운송수단의 연료 전환 (석유→수소)을 위한 연구개발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주변 수소관련 기업들과 연계가 필수적

»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청라 도시첨단산업단지(IHP) 중 첨단 산업용지10, 11
 - 구역계 설정사유 : 중봉대로, 첨단기술로와 115호 완충녹지로 둘러싸인 일반공업지역
 - 구역면적 : 약 191천㎡



» 기본구상

- (사업방향) 수소자동차 R&D센터 조성 및 [개발구역 설정] IGE(SK인천석유화학 자회사) 부지 내 액화수소플랜트(부생수소 생산, '24.5월 준공)*와 연계한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 * 연 30만톤(30톤/일 생산 액화설비 3기, 20톤급 저장설비 6기) : 단일 공장기준 세계 최대
 - 주요 유치업종 : IT, 자동차, 신소재, 로봇, R&D 등
 - 수소관련 업체와 연계한 수소자동차 R&D 실증체계 도입
- (도입기능) IGE에서 생산하는 부생수소, 인근 수소 관련 기업들과 연계하여, 수소 자동차에 활용될 수 있는 관련기술 개발
 - IGE : 수소연료 공급
 - 수소관련 업체 : 연구를 위한 부품 제작
 - R&D센터 : 수소자동차 연구를 통한 성능 개선 및 개선제품 설계
 - 주행시험장 : 개선사항을 적용한 차량의 주행테스트

4.4.6 노후산업재생 및 구조고도화

- ◆ (사업개요) 부지면적 약 939천㎡ / 추정 사업비 약 792억원
 - 사업방식 : 「노후거점산업단법」 상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시행 검토
- ◆ (필요성)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지원시설의 부족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노후산업 재생 및 구조고도화 필요성 대두

»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서부일반산업단지

- 구역계 설정사유 : 1995년 준공되어 기반 시설 노후화와 지원시설 부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서부일반산업단지 전체를 구역으로 설정
- 구역면적 : 약 939천㎡



» 기본구상

[개발구역 설정]

- (사업방향)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을 병행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
 - 재생사업 : 공원·녹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근로환경 개선
 - 구조고도화 : 성장유망산업으로의 유치업종 변경과 제조업 밀집지역에 부족한 R&D 지원기능이 입주하기 위한 용도 변경
- (도입기능)
 - 복지 및 편의시설 확충 : 폐업으로 운영하지 않는 공장부지 매입을 통해 주차장, 소공원, 체육관 등을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및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
 - 업종 고도화 :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여건변화와 제조업을 점목시킬 수 있는 컨설팅 기관을 설치하여 업종 고도화 지원
 - 업종 고도화 전략 컨설팅, 양산 테스트, 인증 및 특허 자금지원, 시제품 제작
 -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R&BD과제 지원 및 성장컨설팅 제공
 - 창업공간 조성 : 산업단지를 청년 창업과 신산업 창출의 요람으로 전환
 - 창업공간 확충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공급 확대
 -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공장 제공



4.4.7 해양관광·상업중심 복합단지

- ◆ (사업개요) 부지면적 약 1,360천㎡ / 추정 사업비 약 2,313억원
 - 사업방식 : ①부지확장 필요 시: 「공유수면법」 상 ‘공유수면매립사업’ → ②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안 검토
- ◆ (필요성) 바다와 청라지구 사이에 위치한 대규모 유희부지에 친수공간을 활용한 관광 및 상업 복합단지 조성

»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매립완료 후 현재까지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나대지를 개발구역으로 편입
 - 구역계 설정사유 : 워터프런트와 연결한 대규모 유희부지로 기존 육지부와의 경계와 공유수면 연결부를 구역계로 설정
 - 구역면적 : 약 1,360천㎡



» 기본구상

- (수변공간) 단순히 바다와 접한 공원이 아닌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수변공원 조성
 - 탁 트인 해양경관 제공, 해양을 테마로 한 체험 및 레포츠 기능 배치
- (상업시설) 상업기능 외에 방문객들의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기능과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주상복합 등을 계획
 - 상업몰 : 입구부터 수변공원으로 연결되는 몰(Mall)을 조성하여 유동인구 유인
 - 수변상업 : 수변공원 주변에 소규모 상가·카페·레스토랑 등을 배치하여 여가공간화
 - 주상복합 : 인천공항 입국자가 만나는 첫 번째 육지라는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랜드마크 타운을 조성하며, 최고층 건축물 루프탑은 전망대로 활용
- (업무시설) 동측에 계획되어 있는 특화금융 집적단지의 금융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소규모 업무시설 계획
- (교통수단)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청라 스타필드 주변 추가 정거장에서 대상지까지 운행하는 셔틀을 투입

4.4.8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 ◆ (사업구간) 부지면적 약 55천㎡ / 추정 사업비 약 2,000억원
 - 사업방식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종합체육시설
- ◆ (필요성) 청라국제도시는 인천공항 및 서울과 인접하여 국제 및 광역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상업·의료·생활체육 등 관련 인프라가 풍부해 국제경기장의 최적입지임

»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청라동 투자유치용지 6BL을 공모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주변의 영상문화복합단지, G-Tech City, 로봇랜드 등과 연계가 가능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요구하는 부지면적 기준을 상회함
 - 구역계 설정사유 : G-Tech City와 수도권 제2순환도로, 심곡천으로 둘러싸인 자연 녹지지역의 정방형 부지
 - 구역면적 : 약 55천㎡



[개발구역 설정]

» 기본구상

- (사업방향) 청라국제도시 내 잔여부지로 남아있는 투자유치용지를 활용하여 국제스케이트장 조성
 - 현재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이전이 확정된 상태이며,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임
- (공모개요) 400m 국제규격의 스케이트장
 - 부지면적 : 약 50,000㎡ 이상
 - 시설내용 : 종합체육시설[전문체육시설(400m 빙상장) + 생활체육시설(제안)], 상업시설(제안사항), 연면적(30,000㎡ 이상)
 - 사업기간 : 2023~2027년
 - 사업비 : 2,000억원(추정)
 - 파급효과 : 북측의 스타필드, 공촌천 체육공원과 연계를 통해 청라 스포츠벨트 구축 가능



4.4.9 로봇랜드

- ◆ (사업개요) 부지면적 769천㎡ / 추정 사업비 약 4,800억원
 - 사업방식 : 「경제자유구역법」 상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
- ◆ (필요성)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레저문화와 로봇기술을 융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로봇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수요공간 창출 필요

» 개발구역 설정

- (개발구역) 심곡천과 제3연륙교로 둘러싸인 투자유치용지 7BL
 - 구역계 설정사유 : 심곡천과 제3연륙교로 둘러싸인 개발가능지(로봇랜드)를 개발
 - 구역면적 : 약 769천㎡



[개발구역 설정]

» 기본구상

- (목표)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산업인 로봇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로봇 기반 산업혁신 플랫폼 구축
 - 정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로봇 산학연관이 집적된 국내 최대 로봇산업의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지향하고 있음
 - ①연구·기술개발(산업, 업무시설), ②제작 및 생산(산업, 업무시설), ③실증테스트(산업시설, 테마파크), ④수요창출(테마파크, 상업시설)
- (기능 특화방안)
 - 로봇산업 클러스터 : 로봇관련 기업들이 연구개발 및 생산활동, 전시 및 체험, 테스트, 신상품 홍보와 판매 등의 다양한 산업 활동 가능
 - 실내형 테마파크 : 집객력이 높은 놀이시설과 로봇을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공익시설을 연계한 미래지향적 복합문화공간 조성
 - 산업지원 업무시설 : 금융 인프라, 지자체, 법률, 회계 등 기업지원서비스 구축을 통해 로봇산업기능 지원, 첨단산업 연구 및 창업 One-Stop 지원 공간
 - 차별화된 특화상업 : 서해 조망권을 활용한 수변 상업시설, 랜드마크, F&B, 레스토랑 및 전망대 등 상업과 여가·놀이가 통합되는 멀티 복합쇼핑몰 조성

4.4.10 7호선 연장(석남~청라)

- ◆ (사업개요) 노선연장 10.767km / 총사업비 1조 5,560억원
 - 사업방식 : 「도시철도법」 상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추진
- ◆ (필요성) 도시철도망 네트워크 강화로 서·북부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개발노선 설정

- (개발노선)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역 ~ 인천국제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구간 연장 개발
 - 노선 설정사유 : 서울7호선을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철도와의 환승체계 구축
 - 노선연장 : L=10.767km(정거장 8개소)



[개발구역 설정]

» 기본구상

- (사업기간) 2018년 ~ 2029년
- (주요 사업내용 변경) 최초 6개 정거장 계획이 8개 정거장으로 변경
 - 가정택지삼거리 부근 정거장이 추가된 이후, 2024년에 의료복합타운 및 복합 쇼핑몰 부근 정거장 추가됨
- (총사업비) 1조 5,560억원
 - *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 기본계획변경(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 제2024-04호, '24.02.27)

» 추진 경위

- 2017. 5. : 제19대 대통령 지역공약
- 2017.12.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국토부, B/C 1.10)
- 2019. 7. :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고시(대광위, B/C 1.13)
- 2021. 8. :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대광위, B/C 1.10)
- 2022. 3. :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대광위)
- 2024. 2. :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대광위) : 정거장 1개소 추가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도시를 원한다. 경계를 넘어서...

제Ⅴ장 사업화 계획

- 1 타당성 검토
- 2 사업추진계획
- 3 투자유치전략
- 4 제도개선 및 사업 활성화방안



제 V 장 사업화 계획

1 타당성 검토

1.1 총사업비 배분계획

가. 단계별·재원별 배분

- 총 사업비 36조 4,062억원 중 단기 6조 3,055억원, 중기 9조 6,558억원, 장기 12조 6,149억원으로 장기가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재원별로는 민자가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

[단계별·재원별 총사업비]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단계별			재원별		
		단기	중기	장기	국비	지방비	민자
합 계	364,062	63,055	96,558	126,149	75,492	27,502	261,068
영종권역	124,673	22,763	29,859	69,751	33,082	7,983	83,608
초격차 첨단신산업 플랫폼	21,469	149	19,740	1,580	-	-	21,469
용유지구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432	-	144	288	-	-	432
중산 마린시티	14,803	67	3,742	10,994	-	-	14,803
글로벌 에코·컬처파크	3,170	-	-	3,170	-	-	3,170
용유~무의 간 케이블카	2,099	-	1,399	700	-	-	2,099
거잠포 해양레저지구	-	-	-	-	-	-	-
연계사업*	82,700	22,547	4,834	53,020	33,082	7,983	41,635
강화·옹진권역	68,245	14,899	28,841	24,505	10,504	8,100	49,641
글로벌 K-그린바이오 특화도시	18,445	253	11,094	7,098	-	-	18,445
강화평화대교(신도~강화)	4,530	-	-	4,530	736	3,794	-
덕적도 바다역 기능 강화	634	267	139	228	150	384	100
소야도 문화예술거점 조성	38	-	-	38	-	-	38
강화 연계사업	11,094	59	315	10,720	7,550	3,296	248
옹진 연계사업	33,504	14,320	17,293	1,891	2,068	626	30,810
송도권역	123,119	12,970	18,938	15,211	27,248	5,889	89,982
바이오 생산 클러스터(확장)	3,393	-	160	3,233	848	-	2,545
웰컴스퀘어, 프롬나드, 페스타광장	570	141	429	-	-	570	-
INEX 및 글로벌 금융타운*	76,000	-	-	-	-	-	76,000
부가가치물류(신항배후단지)	4,552	-	188	4,364	1,138	-	3,414
송도마리나 해양레저거점	898	-	-	898	-	-	898
인천형 신산업 지식기반 플랫폼	-	-	-	-	-	-	-
연계사업	37,706	12,829	18,161	6,716	25,262	5,319	7,125
청라권역	48,025	12,423	18,920	16,682	4,658	5,530	37,837
화이트바이오 환경복합연구단지	15,257	172	15,085	-	-	-	15,257
청라금융 클러스터	3,644	3,644	-	-	-	-	3,644
특화금융 집적단지	1,005	1,005	-	-	-	-	1,005
바다이음	409	22	84	303	71	338	-
연계사업	27,710	7,580	3,751	16,379	4,587	5,192	17,931

* 본 계획에 의해 제안된 사업으로 사업시행이 확정되지 않아 투자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음

(영종 연계사업 아이퍼스힐 2,300억원, INEX 76,000억원)

나. 인천시 자원조달계획

1) 자원조달 규모

- 인천시가 부담할 재원은 2조 7,502억원으로 총사업비의 7.6%이며, 핵심사업 중 강화평화대교(신도~강화)가 3,79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인천시가 부담할 재원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단기 4,552억원, 중기 4,803억원, 장기 1조 8,149억원이며, 안정적 사업추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인천시 중기재정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단계별 투입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단계별 사업비(인천시)		
	전체	인천시	단기	중기	장기
합 계	364,062	27,502	4,551	4,802	18,149
영종권역	124,673	7,983	129	-	7,854
초격차 첨단신산업 플랫폼(제3유보지)	21,469	-	-	-	-
용유지구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432	-	-	-	-
중산 마린시티	14,803	-	-	-	-
글로벌 에코·컬쳐파크(영종 제2준설토투기장)	3,170	-	-	-	-
용유~무의 간 케이블카(거잠포-무의도 명소화사업)	2,099	-	-	-	-
거잠포 해양레저지구(거잠포-무의도 명소화사업)	-	-	-	-	-
연계사업	82,700	7,983	129	-	7,854
강화·옹진권역	68,245	8,100	508	204	7,388
글로벌 K-그린바이오 특화도시 조성	18,444	-	-	-	-
강화평화대교(신도~강화)	4,530	3,794	-	-	3,794
덕적도 바다역 기능 강화	634	384	100	56	228
소야도 문화예술거점 조성	38	-	-	-	-
강화 연계사업	11,094	3,296	53	72	3,171
옹진 연계사업	33,504	626	355	76	195
송도권역	123,119	5,889	209	3,043	2,637
바이오 생산 클러스터(확장)	3,393	-	-	-	-
웰컴 스퀘어, 프롬나드, 페스타 광장	570	570	141	429	-
INEX 및 글로벌 금융타운	76,000	-	-	-	-
부가가치물류(신항배후단지)	4,552	-	-	-	-
송도마리나 해양레저거점	898	-	-	-	-
인천형 신산업 지식기반 플랫폼	-	-	-	-	-
연계사업	37,706	5,319	68	2,614	2,637
청라권역	48,025	5,530	3,705	1,555	270
화이트바이오 환경복합연구단지	15,257	-	-	-	-
청라금융 클러스터	3,644	-	-	-	-
특화금융 집적단지	1,005	-	-	-	-
바다이음	409	338	22	46	270
연계사업	27,710	5,192	3,683	1,509	-



2) 단계별 재원조달계획

» 단계별 계획

- (단기) 인천시가 조달할 단기 재정투입액 중 가장 큰 비중(81.4%)을 차지하는 곳은 청라권역으로 3,705억원이 투입되며, 연차별로는 2025년에 1,632억원(35.8%)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

구 분	단기 재정투입계획(억원)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4,551	697	676	1,632	1,546
영종권역	129	-	1	129	-
강화·옹진권역	508	86	39	185	198
송도권역	209	-	-	35	174
청라권역	3,705	612	636	1,283	1,174

- (중기) 송도권역에 중기 재정투입액의 63.4%인 3,043억원이 배분되었으며, 연차별로는 2027년에 가장 많은 금액인 2,021억원(42.1%)이 계획됨

구 분	중기 재정투입계획(억원)				
	합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 계	4,802	2,021	737	953	1,093
영종권역	-	-	-	-	-
강화·옹진권역	204	153	5	20	26
송도권역	3,043	746	534	731	1,033
청라권역	1,555	1,121	198	202	34

- (장기) 강화권역에 장기 재정투입액의 40.6%인 6,965억원이 배분되었으며, 연차별로는 2031년에 가장 많은 금액인 7,893억원(46.0%)이 계획됨

－ 강화권역은 강화평화대교 건설로 인해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구 분	장기 재정투입계획(억원)				
	합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이후
합 계	18,149	7,894	1,234	1,536	6,495
영종권역	7,854	6,322	-	-	542
강화·옹진권역	7,388	640	639	706	5,403
송도권역	2,637	898	567	726	446
청라권역	270	34	28	104	104

1.2 경제적 파급효과

- ◆ (분석대상) 5개 권역 중 본 과업과 별도(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계획을 수립한 내항권역을 제외한 4개권역의 핵심사업과 연계사업 모두를 분석대상으로 설정
- ◆ (투입비 총액) 총사업비(대지조성비, 기반시설건설비 등) + 건축공사비
 - 단, 사업비 비공개 민간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가. 분석모형 선정

- (선정기준) 직접효과, 간접효과, 연쇄효과는 하나의 모형으로 구현이 가능하며, 이러한 효과들을 도출할 수 있는 모형들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선정
- (모형선정) MRIO(Multi-region Input-Output) 모형 선정
 - 선정사유 : 일반성과 적용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고, 본 사업에서 제시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연쇄효과를 도출하기 위한 산업연관분석을 할수 있음
- (파급효과검토 개요) 투입비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
 - 투입비용 : 핵심사업 등 건설을 위해 필요한 직간접 사업비용을 사용
 - 효과 :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과 같은 중간 및 최종 효과를 도출
 - 평가항목 :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에 대한 중간 및 최종 효과 도출

[투입비용과 효과간 인과관계]

입력물	1차효과	2차효과	3차효과	최종효과
건설 비용	건설업 매출 증대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관련산업 수요 증가	관련산업 연쇄적 반응	취업유발
	건설업 인력 투입	가계소득 증가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자 증가	취업유발	
	건설자재 등 구입	관련산업 매출 증대	관련산업 연쇄적 수요증가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평가항목별 계량화 모형]

평가항목	모형	특이사항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MRIO모형	지역으로 구분하여 반영, 화폐화 (영종, 강화·옹진, 송도, 청라 권역)
취업유발효과	MRIO모형	개략적인 인원수로 제시



나. 모형 활용을 위한 계수 설정

» 산업연관분석

○ (산업연관분석) 특정지역 경제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된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를 분석

* 일정기간(보통 1년) 한 지역 내의 경제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생산에서 소비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일어나는 거래를 행렬 형식으로 표현한 통계표

◆ 총투입액 = 중간투입+부가가치 [투입구조, 총산출액과 동일]

◆ 총산출액 = 중간수요+최종수요(소비+투자+수출+이출)-수입-이입 [배분구조]

» 산업연관표

○ (유발효과) 건설 투자에 따른 ①직접효과: 시설투자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가계 소득증가에 따른 임금유발효과, 고용자 증가에 따른 고용유발효과 등, ②간접효과: 직접효과로 인해 구입한 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관련 산업에서 발생

- 생산유발계수 : 각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는 경우 해당산업 및 타 산업 생산에 유발되는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계수
- 부가가치유발계수 : 각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는 경우 해당산업 및 타 산업의 부가가치에 유발되는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계수
- 고용유발계수 : 각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는 경우 해당산업 및 타 산업의 고용에 유발되는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계수

○ (적용계수 설정)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적용한 산업연관표*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1년)'를 활용함

* 한 지역의 경제구조와 산업별 공급 및 수요,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 중간수요 및 최종수요, 수입액 등을 알 수 있고 산업부문별 최종수요의 변동이 각 산업의 생산 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음

** 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에서 5년 주기로 발표(2026년에 '2024년 산업연관표' 발표 예정)

- 계수 설정 : 본 과업에서는 산업연관표(한국은행) 상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계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며, 건설업을 외생부문으로 처리하여 유발효과를 분석함*

* 단, 분석과정에서 최종수요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가정

[유발계수, 지역계수, 지역 내 간접효과]

(단위 : 계수, 명/십억)

산업	구분	유발계수	지역계수	지역 내 간접효과
건설	생산유발효과	1.95	0.4925	0.960
	부가가치유발효과	0.81	0.5052	0.409
	취업유발효과*	10.82	0.5000	5,410

* 10억원당 유발되는 취업인원(명)

다. 투입비 총액

- 총사업비(대지조성비, 기반시설건설비 등)에 건축공사비를 추가 고려하여 가정함
- 투입비 총액은 총 사업비 36.4조원 및 건축공사비로 107.6조원으로 구성됨

[단계별·재원별 투입비 총액]

(단위 : 조원)

구 분	투입비 총액	총사업비				건축공사비			
		소계	단기	중기	장기	소계	단기	중기	장기
합 계	144.0	36.4	6.3	9.7	12.6	107.6	4.3	34.8	68.5
영종권역	53.6	12.5	2.3	3.0	7.0	41.1	0.8	10.3	30.0
송도권역	45.8	12.3	1.3	1.9	1.5	33.5	1.4	18.1	13.9
청라권역	23.8	4.8	1.2	1.9	1.7	19.0	2.1	6.3	10.6
강화·웅진권역	20.8	6.8	1.5	2.9	2.5	14.0	-	-	14.0

라. 분석결과

◆ 경제적 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 + 부가가치유발효과 + 취업유발효과

- (경제적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총액은 생산유발효과 130.8 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5.7 조원, 취업유발효과 73.7 만명으로 분석됨

[경제적 파급효과 검토결과]

(단위 : 조원, 만명)

권역별 계획		건설 파급효과*			
		총산출액	단기	중기	장기
영종권역	생산유발효과	51.2	3.0	12.8	35.4
	부가가치효과	21.8	1.3	5.4	15.1
	취업유발효과	28.9	1.7	7.2	20.0
송도권역	생산유발효과	36.7	2.6	19.2	14.9
	부가가치효과	15.6	1.1	8.2	6.3
	취업유발효과	20.7	1.5	10.8	8.4
청라권역	생산유발효과	22.9	3.2	7.9	11.8
	부가가치효과	9.8	1.4	3.4	5.0
	취업유발효과	12.9	1.8	4.5	6.6
강화·웅진 권역	생산유발효과	20.0	1.4	2.8	15.8
	부가가치효과	8.5	0.6	1.2	6.7
	취업유발효과	11.2	0.8	1.5	8.9
총산출액	생산유발효과	130.8	10.2	42.7	77.9
	부가가치효과	55.7	4.4	18.2	33.1
	취업유발효과	73.7	5.8	24.0	43.9

* 투입비 총액 기준 유발계수 및 지역계수 고려



2 사업추진계획

2.1 기본방향 및 사업추진

» 기본방향

- 사업의 파급효과, 예산 투입의 효율성, 사업화 여건, 활성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 중에 핵심사업에 대한 사업방식을 우선 검토

» 사업추진

- 다양한 근거법령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각 근거법령에 따라 구역지정, 사업시행 방법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근거법령에 적합한 사업 추진 필요

구 분	구역지정	사업시행
경제자유 구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지정효과 : 도시개발구역, 택지지구,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지정, 도시기본계획 변경, 매립기본계획 변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 : 국가, 지자체, 공기업, 민간 등 • 시행방식 : 수용, 환지방식
항만 재개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 지정효과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산업단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 : 국가, 지자체, 공기업, 민간 등 • 시행방식 : 수용, 환지방식
도시 개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 지정효과 :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방식 : 국가, 지자체, 공기업, 민간 등 - 환지방식 : 토지소유자, 조합 • 시행방식 : 수용, 환지, 혼용방식
국토계획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장·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지자체, 공기업, 민간 등 • 시행방식 : 수용방식
공유수면 매립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립허가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자 : 공유수면관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립시행자 : 매립면허취득자 • 공유수면 점·사용 : 공유수면 점·사용권자
마리나 항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 지정효과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 : 국가, 지자체, 공기업, 민간 등 • 시행방식 : 수용, 환지방식
산업집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융합지구 지정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대학 등 • 시행방식 : 산학융합 활성화계획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

2.2 사업추진시기

2.2.1 기본방향

- (대상사업 선정원칙) 민선8기의 ‘초일류도시 인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발굴한 핵심사업을 사업추진시기 대상사업으로 선정
- (사업시기 선정원칙) 다양한 사업의 다양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시기는 1년 단위로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의 임기를 고려하여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계획
 - － 단기 : 민선 8기(2024~2026년)
 - － 중기 : 민선 9기(2027~2030년)
 - － 장기 : 민선 10기 이후(2031년~)
- (추진일정 작성원칙)
 - － 각 사업의 추진에 적합한 사업법상의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
 - － 사업과 관련이 있는 예정된 공모 등은 해당 시기에 사업추진과 연계
 - － 사업 추진을 위해 상위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 계획에 포함
 - － 민간사업자 공모 등 민간사업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민간사업자 범위에서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제외)

2.2.2 권역별 추진시기

가. 영종권역

» 단기

- ‘초격차 첨단신산업 플랫폼’은 2024년 특화단지 공모를 통해 2025년부터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임
- ‘글로벌 에코컬처파크’는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 ‘거잠포~무의도 명소화사업(거잠포 해양레저지구)’, ‘중산마린시티’는 2025년부터 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임
- ‘거잠포~무의도 명소화사업(용유~무의간 케이블카)’는 민간사업자 공모(2026년)를 통해 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임
- ‘용유지구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가 계획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5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임



» 중기

- 단기부터 진행된 사업은 인허가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조성공사가 진행 가능할 것임
- ‘거잠포~무의도 명소화 사업’ 2개는 2029년에 준공이 가능할 것임
- ‘글로벌 에코컬처파크’사업은 준설토 투기 작업을 진행

» 장기

- 2031년 이후, 사업이 완료되는 장기사업은 모두 4개임(표 참고)
- 준설토 투기 완료가 선행되어야 하는 ‘글로벌 에코컬처파크’ 사업이 가장 늦은 2039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영종권역]

구 분	단기			중기				장기 2031년 ~	사업 완료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초격차 첨단신산업 플랫폼 (제3유보지)	특화단지 공모	개발계획	실시계획		조성공사				2032년
용유지구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시행자지정	실시계획		조성공사		건축공사		2031년
중산마린시티		개발계획		실시계획		조성공사			2035년
글로벌에코컬처파크 (영종제2투기장1공구)	기본계획 반영 (항만)			준설토 투기			(항만) 기본계획 반영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공모 (항만재개발)	2039년
거잠포~무의도 명소화 사업 (거잠포 해양레저지구)		개발계획, 실시계획	건축인허가		건축공사				2029년
거잠포~무의도 명소화 사업 (용유~무의간 케이블카)		타당성조사	민간사업자 공모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시설공사				2029년

나. 강화·옹진권역

» 단기

- 전체 6개 사업 중 ‘소야도 문화예술거점 조성’, ‘덕적도 바다역 기능강화’ 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은 2024년부터 사업진행을 위한 사전단계의 업무추진이 가능
- ‘강화평화대교’는 2024년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 2023년 행안부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변경) 신청 필요
-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친수주거단지’, ‘해양치유지구’는 강화 글로벌 K-그린바이오 특화도시의 세부사업으로 동일한 사업 일정으로 진행

- 해양치유지구는 추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강화군에서 공모 사업에 대비하여 관련 용역 진행중임
- ‘덕적도 바다역 기능강화’는 해양수산부의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시행 시 참여 필요

» 중기

- ‘강화평화대교’,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친수주거단지’, ‘해양치유지구’ 사업은 2027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부터 조성공사 착수
- ‘덕적도 바다역 기능강화’ 사업은 UAM서비스가 활성화 되는 시기*를 고려하였으며, 중기에 버티포트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필요

*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국토교통부, '22. 9. 19)

» 장기

- ‘강화평화대교’는 강화남단의 건축공사가 예상되는 2032년까지 준공 완료
- ‘덕적도 바다역 기능강화’ 사업은 2031년부터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허가 및 시공을 시작하여 2035년 준공이 가능할 것임
- ‘소야도 문화예술거점 조성’ 사업은 ‘덕적도 바다역 기능강화’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해당 시설의 조성완료 시기를 고려하여 장기사업으로 반영

[강화·옹진권역]

구 분	단기			중기				장기	사업 완료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	
강화평화대교 (신도~강화)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반영	여타문제선형 및 적정성 검토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공사				2032년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개발계획			실시계획	조성공사				2034년
친수주거단지	개발계획			실시계획	조성공사				2034년
해양치유지구	개발계획			실시계획	조성공사				2034년
	해양치유 공모								
덕적도 바다역 기능강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			사업선정 및 진행			기본계획 반영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2035년
소야도 문화예술거점 조성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2034년



다. 송도권역

» 단기

- 6개 사업 중 ‘송도마리나 해양레저거점’을 제외한 5개 사업이 단기에 진행 가능
- ‘INEX 및 글로벌 금융타운’의 INEX는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2032년까지 조성 예정임
- ‘인천형 신산업 지식기반 플랫폼’은 단기에 산학융합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바이오생산 클러스터’와 ‘부가가치 물류단지’는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 계획에 반영이 필요함
- ‘송도마리나 해양레저거점’은 2024년에 상위계획인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반영이 필요 하며, 선행사업(송도위터프론트)의 준공시기를 고려하여 사업 진행 필요

» 중기

- 상부시설을 조성하는 ‘글로벌 웰컴클러스터’, ‘인천형 신산업 지식기반 플랫폼’ 등의 사업 진행 가능
- ‘바이오생산 클러스터’와 ‘부가가치 물류단지’는 준설토 매립 종료(2028년 예정) 시기와 맞물려 부지조성공사 진행을 위해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필요

» 장기

- ‘INEX’ 부지조성이 완료 예정(2032년)이며, 항만배후단지 및 송도마리나 사업을 진행

[송도권역]

구 분	단기			중기				장기	사업 완료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글로벌 웰컴 클러스터 (GWC)*		계획수립	실시계획	조성공사					2028년
INEX 및 글로벌 금융타운	국제디자인 공모	개발계획, 실시계획, 조성공사							2032년
인천형 신산업 지식기반 플랫폼		산학융합지구 사업계획 수립	산학융합지구 사업수행						2030년
바이오생산 클러스터 (확장)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 반영	항만배후단지 공모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항만배후단지 실시계획	조성 공사	2035년	
부가가치 물류단지 (신항배후단지)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 반영	항만배후단지 공모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항만배후단지 실시계획	조성 공사	2035년	
송도마리나 해양레저거점**	기본계획 (마리나항만)			송도위터프론트 2단계 준공	마리나항만 사업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조성공사	2034년

* 개발구역 중 중심지구(웰컴 스퀘어, 재외동포 기념관, 웰컴 프롬나드)사업 추진시기임

** 선행사업(송도위터프론트) 준공 시기에 따라 추진시기 변동 가능

라. 청라권역

» 단기

- 청라권역은 모든 사업이 단기에 사업진행 가능(수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바다이음 2단계 제외)
- 2024년에는 군부대 협의 등 사업진행을 위한 협의 추진
- ‘청라금융 클러스터’, ‘특화금융 클러스터’는 서로 연결한 사업으로, 건축물 공사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 사업 진행

» 중기

- ‘바다이음 2단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의 인허가 완료 및 조성공사가 시작되는 시기
- ‘청라금융 클러스터’, ‘특화금융 클러스터’, ‘바다이음 1단계’ 사업이 준공예정

» 장기

- 장기사업은 ‘바다이음 2단계’, ‘화이트바이오 환경복합단지’로서 각각 2034년, 2031년 준공 예정

[청라권역]

구 분	단기			중기				장기 2031년 ~	사업 완료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청라금융 클러스터		실시계획	건축설계	건축공사					2030년
특화금융 클러스터		실시계획	건축설계	건축공사					2030년
바다이음 1단계 (조망점)	군부대 철책협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시설공사					2030년
바다이음 2단계 (산책로 등)						설계	인허가	시설공사	2034년
화이트바이오 환경복합연구단지		개발계획	실시계획	조성공사					2031년



3 투자유치전략

3.1 투자유치 프로세스

3.1.1 6단계 투자유치 로드맵

- ① 투자유치 컨셉 및 Long list 도출 → ② 투자유치 포인트 및 핵심유치 요인 도출
→ ③ 잠재적 수요자 니즈 파악 → ④ 맞춤형 전략 마련 및 홍보자료 작성 → ⑤ Short list 도출 및 기업/기관 매스 마케팅 → ⑥ 개별 밀착 마케팅 및 투자유치 실행

[투자유치 로드맵 수립 시 주요 고려사항]

완전성	투자가능성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랭킹 제공 소스 및 제안사 보유 DB적극 활용, 잠재적 투자자 List 완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 단계에서 기본적인 투자여력이나 아시아 투자 가능성 존재하는 기업 선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재적 List의 유형화 및 투자가능성 평가, 특구조성 전략 및 인센티브 마련 등 니즈 반영

3.1.2 주요 투자유치 접근 전략 및 프로세스

» 수요자 니즈 파악 및 해결(Solution) 방향

- 잠재적 투자대상 기업/기관은 규제완화 및 재정(자금)적 지원 니즈 보유
-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특구지정이나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특례 적용 지구지정 방식이 가장 효율적
-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R&D자금이나 장비투자 등과 관련된 다양한 보조금 지원 검토 가능
- 방안 도출 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인천시 적용가능한가?” “Target산업의 니즈에 적합한가?”,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가?”로써, 이러한 핵심 기준을 고려하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추진

[주요 해외국가별 자금지원 사례]

싱가포르	미국	아일랜드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조건 충족 기업 법인세 면제 17%세율 적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보조금 지급 주 정부 조세감면 인센티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최저 법인세율 적용(12.5%) R&D 세액공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구 R&D 혜택 신고제 → 임상 시험 Fast Track 등

» 투자유치 실행 세부 프로세스

- 투자유치 실행은 Sales Pitch 작성, 유망 잠재기업 발굴 및 컨택포인트 파악, 이메일 송부/컨퍼런스 콜, 대면미팅 순으로 진행

3.2 산업별 전략

3.2.1 반도체 산업

» 반도체 팹리스 기업

- (투자유치전략) 영종권역: 초격차 첨단신산업 플랫폼 사업지역 등
 - 영종권역은 반도체 관련 산업과 R&D 인프라, 인력 수급 용이성, 반도체의 주요 수출 수단인 공항이 인접하다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 이를 활용해 첨단신산업 플랫폼 사업지역 내 반도체 팹리스 기업, OSAT 및 OSAT 소재 기업, 반도체 Repair Center, 시스템 반도체 제조업체, 반도체 R&D 업체 유치 필요
- (산업육성 연계방향)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분야의 강점과 지능형 반도체 융합, 글로벌 기업 및 관련 분야 스타트업 유치를 통한 반도체 산업 기반을 확장하여 인천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동력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업종임
 - 산업 특화분야 집중: 반도체 후공정(OSAT) 및 지능형 반도체 분야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기반 마련
 - 글로벌화 기반 육성: 글로벌 반도체 앵커기업 유치 및 벨류체인 형성

[반도체 산업 : 권역 및 핵심사업 매칭]

구분		후보지역	투자유치 전략
권역	영종권역	● 초격차 첨단신산업 플랫폼, 물류	
	강화권역	● 그린바이오파운드리	
	송도권역	● R&D 집적화 단지	
주력 산업	반도체 팹리스 기업	● 영종권역: 초격차 첨단신산업 플랫폼 ● 송도권역: R&D 집적화단지 전반	● 목표시장 : AI,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 ● 지역대학 연계 우수인력 양성
	시스템 반도체 제조업체	● 영종권역: 초격차 첨단신산업 플랫폼 ● 남동국가산단	● 글로벌 기업 이전/신설 부지 확보 ● 세제 혜택, 행정절차 간소화 ● 소부장/패키징 기업연계 물류체계 구축
파생 사업	OSAT 및 OSAT 소재 기업	● 영종권역: 초격차 첨단신산업 플랫폼 ● 남동국가산단	● 기업 이전/신설 부지 확보 ● 세제 혜택, 행정절차 간소화
	반도체 Repair Center	● 영종권역: 초격차 첨단신산업 플랫폼	● 송도 및 영종권역 반도체 신규수요 수용 ● 관련 기업과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
	반도체 R&D 업체	● 송도권역: R&D 집적화단지 전반 ● 강화·옹진권역: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 글로벌 기업 이전/신설 부지 확보 ● 지역대학·연구소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3.2.2 바이오 산업

- (투자유치 전략) ①송도권역: 인천형 신산업 지식기반 플랫폼, 신항배후단지(부가가치물류단지), ②청라권역: RE100/CF100 클러스터, ③영종권역: 초격차 첨단 신산업 플랫폼, ④강화·옹진권역: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등
- 인천형 신산업 지식기반 플랫폼 : 송도권역에 다수 위치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와, 대학 및 병원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바이오 R&D 수행업체의 적극적 유치 필요
 - 송도권역 신항배후단지(부가가치물류단지) : 상대적으로 부지 임대료가 저렴한 인천 신항지역은 바이오 보관/패키징 전문업체를 유치하는 등 입지 맞춤형 업종 선정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
 - 청라권역 RE100/CF100 클러스터 : 인천 및 수도권 지역과의 연계된 교통으로 수소충전소 사업의 확장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유치 필요

[바이오 산업 : 권역 및 핵심사업 매칭]

구분		후보지역	투자유치 전략
권역	영종권역	• 초격차 첨단신산업 플랫폼 특화	
	강화권역	• 그린바이오 특화	
	송도권역	• 바이오 의약품 R&D 특화	
주력 산업	바이오 R&D	• 송도권역: 바이오 생산 클러스터 • 영종권역: 초격차 첨단신산업 플랫폼 • 강화·옹진권역: 그린바이오파운드리	• 목표시장 : 의약품 분석/응용 기술, 그린바이오 기술보유 R&D업체
	원료/중간재 공급 업체	• 송도권역: 바이오 생산 클러스터	•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입주자격 설정, 저렴한 임대료, 보조금 제공 등)
파생 사업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사업자	• 청라권역: 화이트바이오환경복합 연구단지	• 글로벌 물류 인프라와 연계하여 안정적인 수소충전소 수익구조 구축 및 보조금 제공 • 인천에서 시작, 수도권으로 확장 가능
	드론용 수소 공급업체	• 영종권역: 초격차 첨단신산업 플랫폼 • 청라권역: 화이트바이오환경복합 연구단지	• 목표시장 : B2C 드론용 수소 공급업체 수도권 전체로 확장 가능
	패키징/보관 전문 업체	• 송도권역: 바이오 생산 클러스터 • 영종권역: 초격차 첨단신산업 플랫폼	• 패키징·보관 대상 전문 서비스 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한 콜드체인 제공 •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입주자격 설정, 저렴한 임대료, 보조금 제공 등)

- 영종권역 초격차 첨단신산업 플랫폼 : 공항 인근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관/패키징 전문업체의 유치 필요
- 강화·옹진권역 그린바이오파운드리 : 인근에 수요처가 다수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지구에는 원료/중간재 공급업체의 유치 필요
- (산업육성 연계방향) 인천이 가진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면서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산·학·연 협력 모델 구축을 통해 신산업화를 촉진하며, 글로벌화 기반 확충을 통해 세계화를 유도함
- 산·학·연 협력모델 구축 : 인천 소재 바이오 기업(연구소 포함), 병원 및 대학을 중심으로 한 R&D 및 인력양성 기능 집적화
- 글로벌화 기반 육성 : 글로벌 바이오 앵커 기업 유치 및 벨류체인 형성

3.2.3 RE100 산업

- (투자유치 전략) 청라권역 RE100/CF100 클러스터 등
- 청라권역 RE100/CF100 클러스터 : 풍력, 수소, 바이오 가스 등 재생에너지 공급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존 화력발전소의 수소발전 전환, 수도권 매립지 등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RE100 산업클러스터 지역 내 태양광, 태양열 발전 사업자, 부품소재 기업, R&D 수행업체의 적극적 유치 필요

[RE100 산업 : 권역 및 핵심사업 매칭]

구분		후보지역	투자유치 전략
권역	영종·송도권역	• 친환경에너지 도입 및 활용	
	청라권역	• RE100/CF100 관련 연구/생산/부품 산업 특화	
주력 산업	태양광, 태양열 발전 사업자	• 청라권역: 화이트바이오환경복합 연구단지 • 송도권역: 항만배후단지	•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 제공 • 시설설치비용 지원 및 세제감면, 전용 배관망 구축을 위한 부지확보 • 인허가 지원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 청라권역: 화이트바이오환경복합 연구단지	• 태양광 발전 인허가 지원조례 제정 • 생산단지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파생 사업	태양광·열, 해상풍력 부품소재 기업	• 청라권역: 화이트바이오환경복합 연구단지	• 집적화를 위한 부지 제공 • 연구 및 생산시설 연계 배치
	태양광·열, 해상풍력 R&D 수행업체	• 영종권역: 초격차 첨단신산업 플랫폼 • 청라권역: 화이트바이오환경복합 연구단지	• 부생수소 충전부지 확보, 활용 생태계 구축 • 재정지원, 인센티브 지원



- (산업육성 연계방향) 청라권역의 RE100/CF100 클러스터는 풍력/수소/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나 관련 장비 업체 및 유통 업체 등을 유치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기반을 확충
 - 인천형 신재생에너지 제조·유통 : 인천이나 수도권 기업의 RE100/CF100 달성을 위한 산업클러스터로 조성
 -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협업 기반 조성 : 풍력/수소/바이오 가스 등의 신재생에너지 제조 및 유통 업체들이 집적되는 지역으로 발전

3.2.4 물류 산업

- (투자유치 전략) ①송도권역: 신항배후단지(부가가치물류단지), ②영종권역: 초격차 첨단신산업 플랫폼 등
 - 송도권역 신항배후단지(부가가치물류단지) 지역: 신항배후단지의 저렴한 임대료, 항만과의 접근성, 항만배후단지 사업자들과의 연계성을 활용하여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 스마트/자동화 물류장비 및 시스템 개발업체, 드론 배송 서비스 업체/드론 제작업체, 스마트물류센터 운영업체, 고부가가치 화물 보관/패키징 전문업체의 적극적 유치 필요
 - 영종권역 첨단신산업 플랫폼 : 충분한 특수 패키징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송도권역 글로벌 바이오산업 거점 지역 내 고부가가치 화물 보관/패키징 전문업체 유치 필요

[물류 산업 : 권역 및 핵심사업 매칭]

구분		후보지역	투자유치 전략
권역	송도권역	• 부가가치 물류, 드론배송 서비스 특화	
주력 산업	스마트/자동화 물류장비업체	• 송도권역: 부가가치 물류	• 목표시장 : 드론제작업체, 배송업체
	스마트물류 센터 운영업체	• 영종권역: 초격차 첨단신산업 플랫폼 시티 • 송도권역: 부가가치 물류	• 목표시장 : 미래형 물류센터 운영기업 유치 및 투자 홍보
파생 사업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	• 영종권역: 초격차 첨단신산업 플랫폼 시티 • 송도권역: 부가가치 물류	• 목표시장 : 아마존, 알리바바등 글로벌 기업 • BTS방식 등으로 맞춤형 인프라 제공
	드론 배송 서비스 업체 드론 제작업체	• 영종권역: 초격차 첨단신산업 플랫폼 시티 • 송도권역: 부가가치물류단지	• 부지 제공(공항물류단지, 항만배 후단지등) • 입주자격 설정, 저렴한 임대료, 보조금 제공
	부가가치 화물 보관/패키징 전문업체	• 송도권역: 부가가치물류단지	• 목표시장 : 특수화물 보관 및 패키징 업체 • 전략부지 제공(바이오/반도체 클러스터)

- (산업육성 연계방향) 공항과 항만을 연계한 부가가치 물류, 스마트 모빌리티, MRO 혁신 클러스터로의 도약
 - 고부가가치 물류 서비스 육성 : 항만, 공항 및 강화·옹진 등의 도서지역 여건을 활용한 Air & Sea 물류 서비스 제공
 - 글로벌화 기반 육성 : 글로벌 물류 관련 앵커기업 유치 및 벨류체인 형성

3.2.5 관광 산업

- (투자유치 전략) ①송도권역: GWC 조성사업 지역, ②영종권역: 용유지구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③강화·옹진권역: 해양치유지구
 - 송도권역 GWC 조성사업 : 저렴한 토지 제공이 가능하며 인천국제공항의 입지를 강조할 수 있는 송도권역 GWC 조성사업 지역에 대규모 컨벤션 운영사업자 유치
 - 영종권역 용유지구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 장기 임대, 매각가 할인 등 부지 투자비를 지원하고, 인허가 지원 등 부대사업 추진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고급호텔/리조트, 고급 캠핑장 운영업체, 대규모 컨벤션 운영사업자 유치 필요
 - 강화·옹진권역 해양치유지구 : 인천공항 입지를 강조하며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핵심 메디컬 관광병원사업자 유치 필요
- (산업육성 연계방향)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내 및 해외 관광객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문화관광 거점으로서의 육성
 - 국제관광 거점화: 인천공항 스타오버, 레이오버 대상 복합리조트 연계 관광 활성화
 - 해외 특화 관광객 육성: 지역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메디컬 관광객 유치

[관광 산업 : 권역 및 핵심사업 매칭]

구분		후보지역	투자유치 전략
권역	영종권역	• 복합해양레저관광 특화	
	강화·옹진권역	• 해양관광·치유산업특화	
	송도권역	• 해양레저산업 특화	
주력 산업	고급호텔 리조트 운영업체	• 영종권역: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 송도권역: 해양관광 클러스터	• 토지매입 및 부대사업 인허가 지원(장기 임대, 매각가분납 등)
	크루즈 선사	• 송도권역: 해양관광 클러스터	• 터미널 이용료 감면, 할인권 제공 • 크루즈 여행객 편의서비스제공
파생 사업	대규모 컨벤션 운영사업자	• 영종권역: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 토지매입 지원공항/항만 연계 컨벤션 지원
	해양관광 시설운영 사업체	• 영종권역: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 강화·옹진권역: 해양관광·해상교통 네트워크, 도서지역	• 토지 용도변경 인허가 지원 • 융자, 홍보마케팅 지원
	메디컬 관광 병원 사업자	• 강화·옹진권역: 해양치유지구, 그린바이오파운드리	• 토지 인허가 지원 • 관광자원화, 홍보마케팅 지원



3.2.6 수소에너지 산업

- (투자유치 전략) ①송도권역: 신항배후단지(부가가치물류단지), ②청라권역: RE100/CF100 클러스터
 - 송도권역 신항배후단지(부가가치물류단지): 항만 및 LNG 인수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송도권역 신항배후단지(부가가치물류단지)지역에 수소암모니아 수출입 사업자, 수소암모니아 인수기지 사업자 유치
 - 청라권역 RE100/CF100 클러스터: 수소 상용차 및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청라권역 RE100 산업클러스터 내 수소 연료전지 관련 부품 업체, 부생수소 공급업자, 수소 충전소 사업자의 적극적 유치 필요
- (산업육성 연계방향)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내 및 해외 관광객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문화관광 거점으로서의 육성
 - 산·학·연 협력모델: 수소 관련 기업, 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R&D 및 인력양성 기능 집적화
 - 수소산업 관련 사업자들의 협업 기반: 향후 수소에너지의 제조 및 유통 업체들이 집적되는 지역으로 발전

[수소에너지 산업: 권역 및 핵심사업 매칭]

구분		후보지역	투자유치 전략
권역	영종권역	• 수소자동차 테스트베드 특화	
	청라권역	• 연구/생산/부품산업 특화	
	송도권역	• LNG 수소 특화	
주력 산업	수소암모니아 수출입 사업자	• 청라권역: 화이트바이오 환경복합 연구단지 • 송도권역: 신항배후단지(부가가치물류단지)	•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 제공 및 인허가 지원 • 세제감면, 시설설치비용 지원 • 전용 배관망구축을 위한 부지확보
	수소암모니아 인수기지 사업자	• 송도권역: 신항배후단지(부가가치물류단지), 인천 신항	• 항만부지 사용료 감면 • 인프라 구축 지원
파생 사업	수소 연료전지 관련 부품업체	• 청라권역: 화이트바이오 환경복합 연구단지	• 집적화를 위한 부지제공 및 생산시설 연계 배치
	부생수소 공급업자	• 영종권역: 초격차 첨단산업 플랫폼	• 부생수소 충전부지 확보, 활용 생태계 구축
	수소충전소 사업자	• 청라권역: 화이트바이오환경복합 연구단지	• 재정지원, 인센티브 지원

3.3 산업별 투자유치 앵커산업 선정

3.3.1 방법 설정

- ◆ (기본방향) ‘제4장 마스터플랜(안)’에서 선정한 인천 특화산업(바이오, 반도체, UAM, MRO, 문화관광, RE100, 특화금융, 물류)에 대한 타겟 산업 선정절차 수행
- ◆ (평가의 룰) 타겟 산업 선정 후 8개 분야별로 유치해야 할 앵커산업 및 기업을 선정
 - 평가방법 : 5개 기준에 대해 각각 Low(1점), Middle(2점), High(3점)로 정량화하여 Step별 총합이 가장 높은 기업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 산업별 투자유치 앵커산업 및 기업 선정

- 세부 산업 선정 작업이 마무리된 후 산업별 투자유치가 필요한 앵커산업(시설)에 대한 선정과 더불어 해당 산업에서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한 선정 작업
- (Step 1) 앵커산업(시설) 선정기준 설정
 - 기준1(인천지역 역량) : 인천의 여건, 강점, 기회요인, 지역 내 파급효과 등을 측정하여 적합한 앵커산업(시설) 선정
 - 기준2(산업 경쟁력) : 해당 산업 내 핵심분야 또는 고부가가치 분야를 필터링하여 적합한 앵커산업(시설) 선정
 - 기준3(시 정책방향 부합성) :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와의 정합성을 평가하여 적합한 앵커산업(시설) 선정
- (Step 2) 앵커기업에 대한 선정기준 설정
 - 투자유치 기업 Long List 기반 앵커기업 선정작업 진행
 - 기준4(미래 성장성) : 앵커산업 선정에 사용된 세 가지 기준 외에 앵커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성장성과 잠재력을 측정하여 적합한 기업 선정
 - 기준5(기업 건전성) : 기업의 투자여력(재무비율, 유동성 지표, 운영성과, 향후사업계획 등)을 측정하여 적합한 앵커산업(시설) 선정

» 기업 Short List 작성 및 유치전략 수립

- (1단계) 기존 Long List에서 도출되었던 기업들에 대한 필터링(Filtering) 작업 수행 후 앵커기업들만 선정한 Short List 제시
- (2단계) Short List의 핵심 기업들을 대상으로 앵커 산업별 투자유치 Timeline을 제시하며, Timeline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구상
- (3단계) 인천시만의 각종 인센티브와 제도 개선안 등을 중심으로 앵커산업, 시설, 기업별 투자유치 전략 마련



3.3.2 투자유치 앵커기업 선정

가. 반도체 산업

» 앵커산업(시설) 선정

○ (앵커산업 선정: 3개) 반도체 팹리스 기업, 반도체 Repair Center, 시스템 반도체 제조업체

– 반도체 팹리스 기업 : 기존 메모리 반도체, AI·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 타겟 및 인천 내 대학과 반도체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인력 공급 및 협력

* 평가결과 : ‘(기준1)인천지역 역량’은 Middle, ‘(기준2)산업 경쟁력’은 High, ‘(기준3)시 정책방향 부합성’은 High로 가장 높은 점수인 8점을 받음

– 반도체 Repair Center : 반도체 수출에 지리적·가격적 유리하며 소부장 및 패키징 기업 근접 위치로 인한 공급망 및 value chain 효율화 및 안정화

* 평가결과 : ‘(기준1)인천지역 역량’은 High, ‘(기준2)산업 경쟁력’은 Middle, ‘(기준3)시 정책방향 부합성’은 Middle로 7점을 받음

– 시스템 반도체 제조업체 : 송도권역 및 첨단특화단지 내 전략부지 제공과 세제혜택 등이 필요하며, 인천 소재 대학, 연구원 등과의 산학협력이 용이함을 강조

* 평가결과 : ‘(기준1)인천지역 역량’은 Middle, ‘(기준2)산업 경쟁력’은 Middle, ‘(기준3)시 정책방향 부합성’은 High로 7점을 받음

» 앵커기업 선정

○ (Short List: 3개) 앵커기업 Long List를 대상으로 한 2차 Filtering 통과 기업은 반도체 팹리스 중 A기업과 B기업으로 5점을 받았으며, 시스템 반도체 제조업체 중에서는 D기업이 가장 높은 평가점수인 6점을 받아 Short List에 선정

– 반도체 Repair Center 기업인 C기업과 시스템반도체 제조업체인 E기업은 각각 4점을 얻었음

[반도체 : 앵커기업 분석]

구 분	반도체 팹리스 기업		반도체 Repair Center 기업	시스템 반도체 제조업체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	E기업
기준 4	High 3	High 3	Low 1	High 3	High 3
기준 5	Middle 2	Middle 2	High 3	High 3	Low 1
합 계	5(선정)	5(선정)	4	6(선정)	4

○ (기업 전전성) A기업과 B기업, D기업의 최근 5년(코로나 시기 제외)간 매출액 성장률은 각각 35%, 30%, 34%로 조사됨

－ 3사 유동비율 : 각각 284%, 286%, 328%로 안정적인 유동성 지표를 보임

[반도체 : 앵커기업 후보군(Short list)]

앵커산업/시설	Short list(예시)	선정이유
반도체 팹리스 기업	A기업, B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코로나 시기 제외) 매출액 성장률 분석결과 성장률이 각각 35%, 30%를 기록 • 유동비율 분석 결과 각각 284%, 286%로 안정적인 유동성 지표 보임
시스템 반도체 제조업체	D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코로나 시기 제외) 간 매출액 성장률 분석 결과 34%의 높은 성장률 기록 • 유동비율 분석 결과 328%로 안정적인 유동성 지표 보임

나. 바이오 산업

» 앵커산업(시설) 선정

○ (앵커산업 선정: 3개) 보관/패키징 전문업체, 원료/중간재 공급업체, 바이오 R&D 수행기업

－ 보관/패키징 전문업체 : 콜드체인이 필요한 바이오의약품 등 보관 및 패키징이 중요한 품목에 해당되며, 전문 서비스 제공 업체를 타겟팅 함

* 평가결과 : ‘(기준1)인천지역 역량’은 High, ‘(기준2)산업 경쟁력’은 Middle, ‘(기준3)시 정책방향 부합성’은 High로 8점을 받음

－ 원료/중간재 공급업체 : 인천항과 인천공항이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지적 장점을 고려하였음

* 평가결과 : ‘(기준1)인천지역 역량’은 High, ‘(기준2)산업 경쟁력’은 High, ‘(기준3)시 정책방향 부합성’은 Middle로 8점을 받음

－ 바이오 R&D 수행업체 : 의약품 분석 및 응용기술, 그린바이오 관련 기술을 보유한 R&D 업체를 목표로 하며, 바이오 클러스터 내 기업 및 인프라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성 및 사업기회 등을 강조하여야 함

* 평가결과 : ‘(기준1)인천지역 역량’은 High, ‘(기준2)산업 경쟁력’은 High, ‘(기준3)시 정책방향 부합성’은 Middle로 8점을 받음

» 앵커기업 선정

○ (Short List: 3개) 앵커기업 Long List를 대상으로 한 2차 Filtering 통과 기업은 바이오 R&D 수행업체인 J기업과 K기업이 가장 높은 평가인 6점을 받았으며, 원료/중간재 공급업체인 I기업이 5점을 받아 Short List로 선정



- 보관/패키징 전문기업인 F기업과 G기업은 각각 3점과 4점, 원료 중간재 공급업체인 H기업은 3점을 얻었음

[바이오 : 앵커기업 분석]

구 분	보관/패키징 전문업체		원료/중간재 공급업체		바이오 R&D 수행기업	
	F기업	G기업	H기업	I기업	J기업	K기업
기준 4	Low 1	Middle 2	Middle 2	Middle 2	High 3	High 3
기준 5	Middle 2	Middle 2	Low 1	High 3	High 3	High 3
합 계	3	4	3	5(선정)	6(선정)	6(선정)

- (기업 건전성) J기업, K기업과 I기업의 최근 5년(코로나 시기 제외)간 매출액 성장률은 각각 20%, 30%, 10%를 기록함

- 이 중 I기업의 유동비율은 328%로 안정적인 상황임

[바이오 : 앵커기업 후보군(Short list)]

앵커산업/시설	Short list(예시)	선정이유
바이오 R&D 수행업체	J기업, K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J기업의 매출액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연간 20% 성장 • K기업은 '22년 6월 설립된 후발주자로서 적극적인 투자 진행 중
원료 중간재 공급 업체	I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 간 매출액 성장률 분석 결과 연간 10%의 안정적인 성장률 기록 • I기업의 유동비율은 328%로 안정적인 지표를 보임

다. RE100 산업

» 앵커산업(시설) 선정

- (앵커산업 선정: 3개) 태양광·열 발전사업자,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태양광·열 해상풍력 부품소재기업
 - 태양광·열 발전사업자 : 태양광발전단지 등 신재생사업 부지 선점을 원하는 발전업체 타겟팅
 - * 평가결과 : '(기준1)인천지역 역량'은 Middle, '(기준2)산업 경쟁력'은 Middle, '(기준3)시 정책방향 부합성'은 High로 7점을 받음
 -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 서해안의 해상풍력 발전여건 및 입지조건 활용
 - * 평가결과 : '(기준1)인천지역 역량'은 High, '(기준2)산업 경쟁력'은 Middle, '(기준3)시 정책방향 부합성'은 High로 8점을 받음

- 태양광·열 해상풍력 부품소재기업 : 인천항, 인천공항 등 국제적 관문시설과 인접한 입지적 특성에 따른 수출입 운송비용 절감효과 기대 및 연관산업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 평가결과 : ‘(기준1)인천지역 역량’은 High, ‘(기준2)산업 경쟁력’은 High, ‘(기준3)시 정책방향 부합성’은 High로 9점을 받음

» 앵커기업 선정

○ (Short List: 3개) 앵커기업 Long List를 대상으로 한 2차 Filtering 통과 기업은 태양광·열 발전사업자인 M기업이 5점, 태양열 부품소재 기업인 P기업이 5점, Q기업이 최고점인 6점으로 Short List에 선정

- 태양광·열 발전사업자인 L기업,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인 N기업과 O기업은 모두 4점을 얻었음

[RE100 : 앵커기업 분석]

구 분	태양·열 발전사업자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태양광·열, 해상풍력 부품소재기업	
	L기업	M기업	N기업	O기업	P기업	Q기업
기준 4	Middle 2	High 3	Low 1	High 3	High 3	High 3
기준 5	Middle 2	Middle 2	High 3	Low 1	Middle 2	High 3
합 계	4	5(선정)	4	4	5(선정)	6(선정)

○ (기업 건전성) M기업, P기업과 Q기업의 최근 5년(코로나 시기 제외)간 매출액 성장률은 각각 14%, 56%, 22%를 기록함

- 3사 유동비율 : 각각 141%, 84%, 289%로 안정적인 유동성 지표를 보임

[RE100 : 앵커기업 후보군(Short list)]

앵커산업/시설	Short list(예시)	선정이유
태양광·열 발전사업자	M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업은 인허가 등의 요건을 고려할 때 해외업체의 단독 투자는 제한적 최근 5년간 높은 매출액 성장률은 14%를 보였으며, 관련 산업의 대규모 확대 예상 높은 유동비율은 141%로 안정적 재무구조 보유
태양광·열 부품소재기업	P기업, Q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5년간 매출액 성장률 분석 결과 각 56%, 22%의 성장률 기록 및 관련산업 대규모 확장 예상 유동비율을 분석한 결과 84%, 289%의 안정적 유동성을 보임



라. 물류 산업

» 앵커산업(시설) 선정

- (앵커산업 선정: 3개) 스마트·자동화 물류장비 업체, 스마트물류센터 운영업체, 스마트물류센터 시스템 개발업체
 - 스마트·자동화 물류장비 업체 : 공항화물터미널, 공항물류단지 및 항만배후단지 사업자 수요와 연계
 - * 평가결과 : ‘(기준1)인천지역 역량’은 High, ‘(기준2)산업 경쟁력’은 High, ‘(기준3)시 정책방향 부합성’은 Middle로 8점을 받음
 - 스마트물류센터 운영업체 : 스마트·자동화 장비를 갖춘 미래형 물류센터 운영사업자 타겟팅
 - * 평가결과 : ‘(기준1)인천지역 역량’은 High, ‘(기준2)산업 경쟁력’은 High, ‘(기준3)시 정책방향 부합성’은 High로 9점을 받음
 - 스마트물류센터 시스템 개발업체 : 특수화물 보관 및 패키징 업체 타겟팅
 - * 평가결과 : ‘(기준1)인천지역 역량’은 High, ‘(기준2)산업 경쟁력’은 High, ‘(기준3)시 정책방향 부합성’은 Middle로 8점을 받음

» 앵커기업 선정

- (Short List: 3개) 앵커기업 Long List를 대상으로 한 2차 Filtering 통과 기업은 스마트·자동화 물류장비 업체인 S기업, 스마트물류센터 운영업체인 U기업, 스마트물류센터 시스템 개발업체인 V기업가 모두 5점으로 Short List에 선정
 - 스마트물류센터 운영업체인 T기업은 3점, 스마트·자동화 물류장비 업체인 R기업과 스마트물류센터 시스템 개발업체인 W기업은 각각 4점을 얻었음

[물류 : 앵커기업 분석]

구 분	스마트·자동화 물류장비 업체		스마트물류센터 운영업체		스마트물류센터 시스템 개발업체	
	R기업	S기업	T기업	U기업	V기업	W기업
기준 4	Middle 2	High 3	Low 1	Middle 2	Middle 2	Middle 2
기준 5	Middle 2	Middle 2	Middle 2	High 3	High 3	Middle 2
합 계	4	5(선정)	3	5(선정)	5(선정)	4

○ (기업 건전성) S기업과 U기업의 최근 5년(코로나 시기 제외)간 매출액 성장률은 각각 46%, 15%를 기록함

－ 2사 유동비율 : 각각 272%, 164%로 안정적인 유동성 지표를 보임

[물류 : 앵커기업 후보군(Short list)]

앵커산업/시설	Short list(예시)	선정이유
스마트물류 장비업체	S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5년간 매출액 성장률 분석 결과 46%의 높은 성장률 기록 유동비율 분석 결과 272%로 안정적 유동성 지표 보임
스마트물류센터 운영업체	U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업특성 상 외국기업 유치 어려움 최근 5년간 매출액 성장률 분석 결과 15%의 안정적인 성장률 기록 유동비율 분석 결과 164%의 유동성 지표를 보임

마. 관광 산업

» 앵커산업(시설) 선정

○ (앵커산업 선정: 3개) 고급호텔·리조트, 고급캠핑장 운영업체, 크루즈 선사

－ 고급호텔·리조트 : 고급화 전략 측면에서 현재까지 인천시 내 운영시설이 없었던 고급호텔이나 리조트 업체를 타겟팅

* 평가결과 : ‘(기준1)인천지역 역량’은 High, ‘(기준2)산업 경쟁력’은 High, ‘(기준3)시 정책방향 부합성’은 High로 9점을 받음

－ 고급캠핑장 운영업체 : 지리적으로 국제관문인 인천공항이 근접하여 있다는 입지 여건을 활용해 해외 관광객의 소구력을 보유한 업체 타겟팅

* 평가결과 : ‘(기준1)인천지역 역량’은 Middle, ‘(기준2)산업 경쟁력’은 High, ‘(기준3)시 정책방향 부합성’은 Middle로 7점을 받음

[관광 : 앵커산업(시설) 분석]

구 분	고급호텔·리조트	고급캠핑장 운영업체	대형컨벤션 운영사업자	해양관광 운영사업자	크루즈 선사	메디컬 관광 병원 사업자
기준 1	High 3	Middle 2	Middle 2	Middle 2	High 3	Middle 2
기준 2	High 3	High 3	Middle 2	Middle 2	High 3	Middle 2
기준 3	High 3	Middle 2	Middle 2	Middle 2	Middle 2	Middle 2
합 계	9(선정)	7(선정)	6	6	8(선정)	6



- 크루즈 선사 : 국내 및 글로벌 크루즈 선사 중 인천항 취항빈도가 적은 기업을 타겟팅하며, 인천 내 관광시설 인프라와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평가결과 : ‘(기준1)인천지역 역량’은 High, ‘(기준2)산업 경쟁력’은 High, ‘(기준3)시 정책방향 부합성’은 Middle로 8점을 받음

» 앵커기업 선정

○ (Short List: 2개) 앵커기업 Long List를 대상으로 한 2차 Filtering 통과 기업은 고급캠핑장 운영업체 중 A업체와 크루즈 선사 중 C업체이며, 2개사 모두 6점으로 Short List에 선정

- 고급호텔·리조트의 X기업과 Y기업은 각각 3점과 4점, 고급캠핑장 운영업체 중 Z기업은 4점, 크루즈 선사 중 B업체는 3점을 얻었음

[관광 : 앵커기업 분석]

구 분	고급호텔·리조트		고급 캠핑장 운영업체		크루즈 선사	
	X기업	Y기업	Z기업	A업체	B업체	C업체
기준 4	Low 1	Middle 2	Middle 2	High 3	Low 1	High 3
기준 5	Middle 2	Middle 2	Middle 2	High 3	Middle 2	High 3
합 계	3	4	4	6(선정)	3	6(선정)

○ (기업 건전성) A업체와 C업체의 최근 5년(코로나 시기 제외)간 매출액 성장률은 각각 50%, 7%를 기록함

- 2사 유동비율 : 각각 283%, 253%로 안정적인 유동성 지표를 보임

[관광 : 앵커기업 후보군(Short list)]

앵커산업/시설	Short list(예시)	선정이유
고급 캠핑장 운영업체	A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매출액 성장률 분석 결과 50%의 높은 성장률 기록 • 유동비율 분석 결과 283%로 안정적인 유동성 지표 보임
크루즈 선사	C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매출액 성장률 분석 결과 7%의 성장률 기록, 국내 최대 크루즈 보유 • 유동비율 분석 결과 253%로 안정적인 유동성 지표 보임

바. 수소에너지 산업

» 앵커산업(시설) 선정

- (앵커산업 선정: 3개) 수소 암모니아 수출입 사업자, 수소 암모니아 인수기지 사업자, 수소충전소 사업자
 - 수소 암모니아 수출입 사업자 : 항만배후단지나 LNG 인수기지 내 신규시설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혜택 제공, 시설구축 비용지원 등을 통한 집적화 유도 및 시너지 효과 창출
 - * 평가결과 : ‘(기준1)인천지역 역량’은 High, ‘(기준2)산업 경쟁력’은 Middle, ‘(기준3)시 정책방향 부합성’은 Middle로 7점을 받음
 - 수소 암모니아 인수기지 사업자 : 기존의 LNG 인수기지과 신규시설 건설 시 필요로 하는 배관망 구축용 부지 확보, 인허가 지원 등 인천시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사항 제시
 - * 평가결과 : ‘(기준1)인천지역 역량’은 High, ‘(기준2)산업 경쟁력’은 High, ‘(기준3)시 정책방향 부합성’은 Middle로 8점을 받음
 - 수소충전소 사업자 : 충전소 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 보조금 및 수소연료 구입 지원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 제공
 - * 평가결과 : ‘(기준1)인천지역 역량’은 High, ‘(기준2)산업 경쟁력’은 High, ‘(기준3)시 정책방향 부합성’은 Middle로 8점을 받음

» 앵커기업 선정

- (분석과정) 수소에너지 앵커산업 중 1차 Filtering을 통과한 3개 앵커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Long List를 작성한 후, 이를 ‘Step 2’에서 설정한 ‘기준 4(미래 성장성)’과 ‘기준 5(기업 건전성)’을 적용하여 2차 Filtering 작업을 수행함
- (Short List: 2개) 앵커기업 Long List를 대상으로 한 2차 Filtering을 통과한 수소 암모니아 인수기지 사업자인 G업체가 5점, 수소 충전소 사업자인 I업체가 6점으로 Short List에 선정
 - 수소·암모니아 수출입 사업자인 D업체와 E업체는 각각 3점과 4점을, 수소·암모니아 인수기지 사업자인 F업체는 4점을, 수소충전소 사업자인 H업체는 4점을 얻었음

[수소에너지 : 앵커기업 분석]

구 분	수소 암모니아 수출입 사업자		수소 암모니아 인수기지 사업자		수소충전소 사업자	
	D업체	E업체	F업체	G업체	H업체	I업체
기준 4	Middle 2	Middle 2	Low 1	High 3	High 3	High 3
기준 5	Low 1	Middle 2	High 3	Middle 2	Low 1	High 3
합 계	3	4	4	5(선정)	4	6(선정)



○ (기업 건전성) G업체와 I업체의 최근 5년(코로나 시기 제외)간 매출액 성장률은 각각 10%, 48%를 기록함

– 2사 유동비율 : 각각 158%, 223%로 안정적인 유동성 지표를 보임

[수소에너지 : 앵커기업 후보군(Short list)]

앵커산업/시설	Short list(예시)	선정이유
수소 암모니아 사업자	G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매출액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10%의 성장률 기록 • 유동비율 분석 결과 158%로 안정적임
수소충전소 사업자	I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매출액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48%의 성장률 기록 • 유동비율 분석 결과 223%로 안정적임

4 제도개선 및 사업 활성화방안

4.1 법·제도

가. 문제점 도출

- (수도권 중복규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수도권에 위치한 입지로 인해 각종 수도권 규제를 적용받아 외국인 투자유치 어려움
- (확일적 규제)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이며 인천시에서도 저개발된 강화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확일적인 규제를 적용받아 발전 저해
- (지방분권 역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구현하려고 하지만 매립지, 항만 등 해양관련 사항들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배제되고 중앙정부에 의해 모든 계획, 사업들이 결정
- (권역별 관련법규) 그 외에 「항만법」,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평화경제특구법」 등 다양한 법·제도 관련 이슈가 있음

나. 개선방안

»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 범위 변경) 인구가 감소하는 강화·옹진권역을 수도권에서 제외
 - 강화·옹진권역을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여건 조성을 위해 수도권에서 제외 필요
 - 관련 사업 : ‘글로벌 K-그린바이오 특화도시’

» 경제자유구역법

- (핵심전략산업 추가지정) 반도체, 바이오, RE100, 특화금융 등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
 - 관련 사업 : 영종권역 ‘바이오·반도체·스마트물류 성장거점’, 강화·옹진권역 ‘글로벌 K-그린바이오 특화도시’, 청라권역 ‘청라금융클러스터’, ‘특화금융집적단지’
- (수도권 제외규정 삭제) 전용용지 공급, 조성토지 공급 등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제외 규정 삭제
 - 관련 사업 : 영종권역의 ‘바이오·반도체·스마트물류 성장거점’, 강화·옹진권역의 ‘글로벌 K-그린바이오 특화도시’



- (통합심의 도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변경 등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 등 타 법령에 의한 평가와 심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제도 도입
 - 「산업단지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심의 시, 교통·환경, 문화재, 에너지 등 심의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번에 결정하여 인허가 기간 단축
- (통합조정회의 도입)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의견조율을 위해 산업단지와 같은 ‘통합조정회의(가칭)’ 도입방안 검토 요망

» 항만법

- (매립지 소유권 취득) 준설토 매립으로 생성된 매립지에 대해 조성원가 이하로 지자체에 이전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국유재산법」에 따르지 않는 양여는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 법령에 「항만법」이 해당됨에 따라 「항만법」상 국유재산 매각 조항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지 소유권 확보 추진근거 마련
 - 조성원가 이하 매각은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복원 보조 및 준설토 매립이 행해지는 지자체와의 이익 공유 차원에서 접근
 - 관련 사업 : 영종권역의 ‘글로벌 에코-컬처파크’, ‘관광·부가가치물류 단지’, 송도 권역의 ‘바이오 생산 클러스터(확장)’, ‘부가가치물류단지(신항배후단지)’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 (지정권한 이양) 기회발전특구는 지정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여건을 보다 잘 알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지정권한을 이양함으로써 효과적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활성화 가능
 - 시·도별 지정물량 상한으로 무분별한 지정에 대한 우려 해소
 - 관련 사업 : 강화·웅진권역의 ‘글로벌 K-그린 바이오 특화도시’

» 평화경제특구법

- (입주기업 범위 완화) 남북교류협력 기업 및 해당 기업과 연관된 기업이 일정비율 이상만 입주하면 특구지정이 가능하도록 입주기업 범위 완화 요망
 - 관련 사업 : 강화·웅진권역의 ‘글로벌 K-그린 바이오 특화도시’

» 조망점 조례

- (조례 제정) 우수 조망경관에 대한 공공 개방 확대를 위해 민간 건축물의 최상층에 바다 조망점을 설치토록 유도하며, 필요시 용적률 추가 등 인센티브 제공
 - 조망점 조례 제정에 맞춰 향후 인천광역시 경관가이드라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등에 세부 내용 반영 필요

4.2 홍보방안

4.2.1 5단계 홍보전략

- (1단계 : 2024년 상반기) ‘Global Top10 City, INCHEON’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소통·홍보팀을 조직하여 홍보를 위한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함
 - － 대변인실, 글로벌도시국 협력을 통한 홍보부문 TF 구성·운영
 - － 홍보매체별, 사업별 홍보업무 분담 등
- (2단계 : 2024년 상반기) ‘Global Top10 City, INCHEON’ 프로젝트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브랜드 로고, 슬로건 등을 시민공모 방식을 통해 제작하여 도시 이미지 형성을 제고함
 - － 시민 공모전 개최, 市 도시브랜드 위원회 참여
- (3단계 : 2024년 하반기) ‘Global Top10 City, INCHEON’ 프로젝트의 핵심사업 등 2025년 본예산 반영 사업에 대한 집중 홍보를 위한 행정역량을 집중함
 - － 사업별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청회 등 개최, 대중매체 홍보 예산 집중 투입
- (4단계 : 2024년 하반기)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함
 - － 유튜브, SNS 등 쌍방 커뮤니케이션 강화
 - － 개방적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계획 보완
- (5단계 : 2025년부터 계속)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한 축제, 이벤트 개최를 통을 통한 시민 Boom-up을 도모함
 - － 관련 구·군 실과 협력을 통해 문화, 복지 및 경제, 환경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연계 사업개발 및 추진 도모
 - － 기 추진 중인 市 정책사업(영종~강화 평화대교, 제3연륙교 등)과 연계한 홍보체계 강화



[단계별 홍보전략]



4.2.2 홍보매체

» 방송매체 활용

- 방송매체(KBS, MBC 등)를 활용하여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홍보를 시행함
- 다큐, 생활정보 프로그램, 예능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흥미를 유도하며, 지역학회를 통한 국제세미나 개최, 로컬매거진, 로컬크리에이터 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이야기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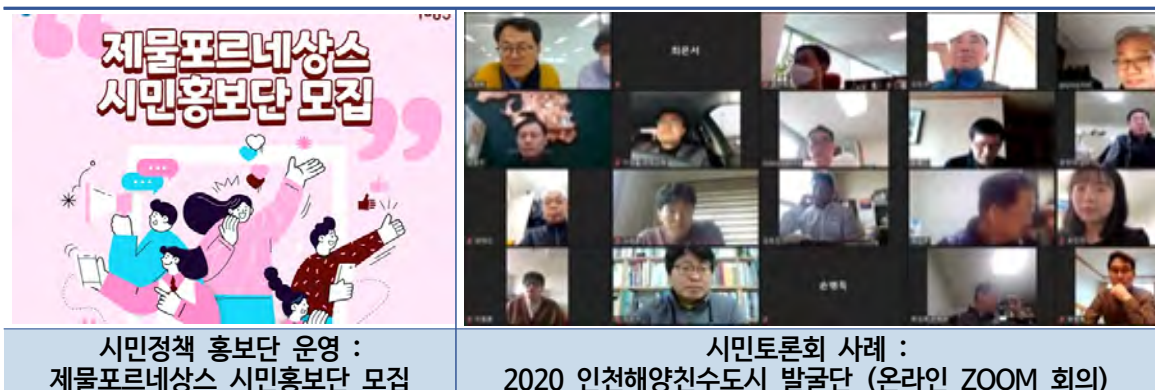
청년정책 다큐 (KBS)

인천형 출산장려 정책 방송 (KBS, 경인방송 등)

[방송매체 활용 정책홍보(사례)]

» 시민참여 플랫폼 활성화

- 시민홍보대사 선정 및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Global Top10 City, INCHEON'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를 제고함
-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토론회(ZOOM 프로그램 활용) 개최를 통한, 상시, 정기적 시민의견 수렴 플랫폼으로 특화함
- 과업완료 시점 시민 보고회 이후, 핵심 사업별, 권역별 시민토론회 개최를 통한 정책사업 시행의 상호성과 공공성 확보 범위를 다각화함
- 시민 여론조사 시행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 범위, 단계별 과제 등에 대한 정책수립권자 입장과 정책수혜자 입장을 비교·검토하고, 정책홍보 효과를 극대화함



시민정책 홍보단 운영 : 제물포르네상스 시민홍보단 모집

시민토론회 사례 : 2020 인천해양친수도시 발굴단 (온라인 ZOOM 회의)

[방송매체 활용 정책홍보 사례]

제 I 장

제 II 장

제 III 장

제 IV 장

제 V 장

» 도시 정체성 및 브랜드 강화

- ‘Global Top10 City, INCHEON’ 프로젝트의 정체성을 내포할 수 있는 브랜드 제작을 통해 정책 상징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함
- 브랜드의 지속적인 운영과 성장을 위해 정책 브랜드 관리를 市 도시브랜드위원회 운영 부서에 일임함으로써 도시브랜드와의 정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함



[로고 및 인천 도시브랜드 굿즈 제작(안)]

» 전문가 참여 정책토론회, 공론화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전문가 참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Global Top10 City, INCHEON’ 프로젝트의 비전과 목표, 전략, 핵심사업 등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를 제고함
- 전문가초청 간담회, 토론회, 집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글로벌 도시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변화와 혁신, 공감대 형성
- 학회·대학·연구소·전문가가 함께하는 아이디어 공모전, 정책 공론화플랫폼을 구축하며, 대학/원 대상 도시설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인천도시공사와 협업사업 추진)

» 온·오프라인 운영 및 홍보

- 뉴미디어 확산에 따른 유튜브 콘텐츠의 지속적 게시 및 유동인구 집중 지역 내 옥외 광고물(전광판, 현수막, 대중교통 등) 활용 정책홍보물을 노출시킴
- 대변인실 공보담당관실과 협력하여 인천시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내 정책홍보 카드뉴스, 웹툰 등을 주기적으로 게시함



[온라인 정책홍보자료 사례]



4.2.3 홍보비용 산정

- 2023년 기준 인천시 본청 일반회계의 일반 공공행정 예산 중 ‘홍보’ 관련 예산은 총 167억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 본 예산 중 대변인실의 공보담당관실, 홍보기획담당관실, 도시브랜드 담당관실의 예산은 총 188억원이 책정되었음
- 이를 바탕으로 ‘Global Top10 City, INCHEON’ 프로젝트의 홍보예산을 582백만원으로 산정함

[프로젝트 홍보비용 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주요 내역
방송매체	260	• 지상파TV·라디오·케이블TV 광고, 정책홍보 프로그램 제작 등
정책 브랜드	70	• 정책브랜드 개발, 브랜드런칭 이벤트, 홍보 기념품 제작
시민참여 플랫폼	92	• 시정홍보 간담회, 시민홍보단 운영, 홍보대사 운영, 여론조사
기타(온·오프라인)	160	• 온라인·오프라인 광고료, 배너광고료 • SNS 시정홍보 대행, 대행온라인
합계	582	

자료) 인천시 본청, 일반회계, 일반공공행정 분야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23년 기준) 참조하여 작성

4.3 사업추진체계

4.3.1 조직체계

가. 전담조직 구성

» 필요성

- (주변여건 변화) 전기자동차, 반도체, 바이오와 같이 급변하는 세계시장에서 정부 정책과 관련 법률의 변화에 발맞추어 인천의 주력산업 적극 육성 필요
 - 신설(변경)되는 법령·제도에 지방행정조직은 즉각적인 변화가 어려움
- (미래형 행정체계 개편) 인구감소, 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수요에 입체적 대응 필요
 - 인구이동 및 생활권에 맞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제물포구·영종구 신설) 추진
 - 정부는 국가를 대표하는 우주항공 전담조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우주항공청’을 설립(2024.05.) 하는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

» 유사사례 : 착안점 도출

- (사례검토) ①서울시: 도시공간을 “매력특별시 서울”로 탈바꿈하기 위해 ‘용산입체 도시담당관’, ‘세운활성화사업팀’, ‘철도지하화팀’ 신설 (2024년 7월 시행예정)
 - ☞ 사업 추진의 연속성확보 및 효율 극대화를 위해 핵심사업별 전담팀 조직
- ②부산시: 중앙부처와 연계한 “국제 비즈니스 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미래 중장기 계획은 ‘미래혁신부시장’이 담당하고 낙동강권역 미래 구상을 위한 전담조직 ‘낙동강미래기획단’ 신설(2024년 5월 입법예고)
 - ☞ 같은 2부시장 체제이지만 업무기능 배분·조정을 통해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군끼리 그룹핑 될 수 있도록 재분류

» 조직체계 조정방향 및 추진전략

- (전담팀 운영) 권역별 핵심전략·목표달성을 위해 권역별 전담팀 구성하고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팀 운영
 - 국가사업 및 국비보조사업의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안정적으로 국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 전담팀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내부 시스템 구축
 - 관련 계획별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인천시의 현안 및 사업의 관심도를 공유하고, 이후 국비지원사업 추진 시 국비확보 전담팀 운영을 통해 사업의 시기별·단계별로 맞춤형 업무 프로세스 관리
- (차별화 전략) 마스터플랜의 핵심사업과 연계사업에 대해 로드맵에 따른 세부추진 전략(투자유치, 국비확보 등)을 수립해 차별화·체계화된 사업 추진
 - 인천시의 뛰어난 항공 인프라를 활용하고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우주공간의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우주항공전담부서’ 신설

» 조직체계 조정(안)

- (전담조직 신설) 영종, 강화·옹진, 송도, 청라권역과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Global Top10 City, INCHEON’ 전담조직의 실행 조직으로 묶어 사업시행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글로벌 여건변화 반영) 정부의 정책기조와 미래 산업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주항공전담부서’를 운영하며, 기존 항공부서는 역할 확대 필요
 - 인천의 먹거리인 영종MRO단지 등 기존 항공산업을 지원·육성하고, 미래산업이자 정부시책인 우주 관련 민간기업 유치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확산
 - 미래교통수단인 UAM과 버티포트 등의 계획, 건설,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



- **(인천특성 반영)** 해양도시이자 많은 섬을 보유한 인천의 입지 및 어업, 관광 등 바다와 관련된 산업을 특화·진흥시킬 수 있는 전담조직 확대 필요(예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 **(경제자유구역 관리)** 국내 최대 경제자유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경제자유구역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경제자유구역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인천시 산하의 전담조직으로 전환 필요
 - 향후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글로벌기업 유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에 대한 존치요구 확대
- **(공공기관 지방이양)** 공항, 항만, 매립장 등을 관리하는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지방이양을 통해 관리대상지의 행정기관과 관리주체의 소속기관을 일원화하여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분권 이행
- **(북방교류 활성화)** 북한 및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북한과는 남북 교류, 중국과는 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 북한의 문화자원과 역사 등을 통해 교류의 계기를 만들고 인천과 북한과의 경제 협력 이니셔티브 초석 마련
 - 주 무역대상국인 중국 등과의 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인천 경제 활성화

나. 행정체계 구축

» 마스터플랜의 내부적 역할 강화

- **(체계적 계획지표 관리)** 인천시내 부문별 계획, 각종 지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관련 계획의 지표 등이 체계적 연계가 되도록 관리
 - 전담조직은 각종 계획지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담 운영팀을 구성하고 각종 계획 수립(변경수립) 시 담당부서와 협의체 구성
 - 도시기본계획 및 각종 법정계획*상 지표, 구상 등이 마스터플랜과 상충되지 않도록 계획수립 초기단계에 전담조직과 사전 협의
- * 환경보전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 **(계획간 연계성 확보)** 민간 또는 공공에서 사업추진 시 마스터플랜의 핵심사업, 사업화계획 등과 정합성 유지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협의 의무화 추진
 - 실무협의체 운영 :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시책이나 민간 개발사업이 마스터플랜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토

[정합성 확보방안]

구 분	주 요 내 용
수립 중인 행정계획	• 본 계획의 내용 반영 여부를 위원회 심의단계에서 검토하여 반영 유도
수립된 행정계획	• 인천시가 승인권을 행사하는 기본계획의 재수립 과정에서 본 계획 내용 반영 유도

» 하위 및 관련계획에 대한 지침적 역할 수행

- **(지침적 역할)** 마스터플랜은 비법정계획이나 정책적 연속성과 도시발전의 영향력을 고려해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등에 대한 방향, 지침, 가이드라인 제시 및 계획 내용 사전 조정
 - 도시기본계획 등 수립 및 변경 수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위원회 심의기준에 활용 및 상임기획단 사전검토 시 반영여부 검토
 - 개발계획 수립·협의 시 계획방침을 관련계획에 반영되도록 상호 수용과정 시행

다. 재정체계 구축

- **(중기지방재정계획 고려)** 마스터플랜에 담긴 시책 및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 각종 시책 및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매년도 예산계획 수립 시 예산반영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국고 보조비가 낮아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의 성격이나 재정 부담 능력에 따른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여 대안 모색
- **(평가·관리체계 강화)** 비용편익분석 등 지역차원의 과학적 방법을 통해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사업집행과정에서의 점검 및 사후평가체제 확립
 - 시 차원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진단하고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지역투자사업 평가기구 설립 등 추진
-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투자재원 배분,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기능 강화와 예산집행의 성과평가활동 강화 등 전략적·계획적인 재정운영 기조를 강화
 -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경직화 방지 등 사업의 전 단계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도입
- **(국비확보)**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에 대해 국가에서 수립하는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에 반영하여 국비 확보



- 국가사업 및 국비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며, 필요 시 TF팀 등 전담조직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함
- (민자유치) 잠재적 투자자 발굴, 마케팅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투자를 유도
- 개발사업의 종류 및 입지에 따른 잠재적 투자자를 발굴하며,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해외 투자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라. 거버넌스 구축

» 시의회 협력

- (의결기관 협력체계)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협력체계 구축
 - 지방의회는 예산 등의 의결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수요에 대해 최적의 결과 도출 가능
- (네트워킹 강화) 시의회와 인천시 간의 정보 공유와 사업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다양한 의사교환 체계를 활성화 함

» 대시민 협력

- (시민참여 유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도시발전을 위하여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시민참여 예산) 시책과 사업이 실제 예산 편성과정에서 반영되고, 그 과정을 시민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및 주민 참여방안 마련
- (시민 사후평가) 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계획수립 단계로부터 준공 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후 관리방안 마련하고 추후 마스터플랜 수립에 반영

» 시민위원회 구성

- (시민위원회 구성) ‘글로벌 톱텐 시티 시민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권역별 사업에 주민참여 유도 및 의견청취
 - 권역별로 거주하는 시민대표 10명씩을 선정해 ‘영종시민분과’, ‘강화·옹진시민분과’, ‘송도시민분과’, ‘청라시민분과’ 마련
 -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임명장 수여식 등의 행사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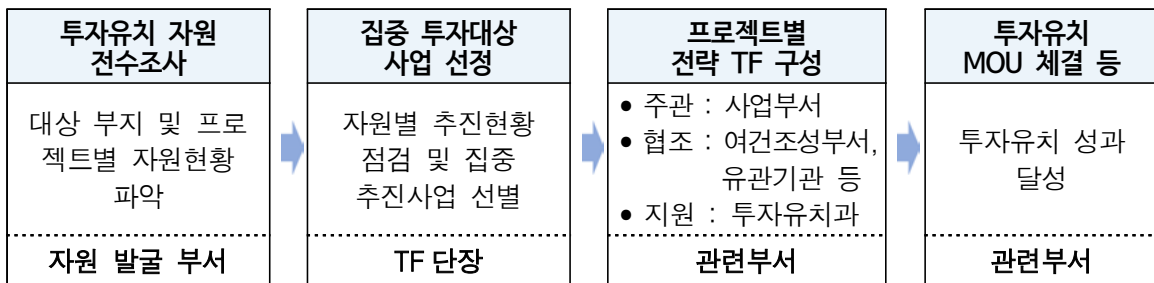
4.3.2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 TF구성 및 조직도

- (단장) 글로벌도시정부부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공동)
- (참여) 12개 실·국(기관), 총괄부서 투자유치과
 - 인천시(8개 실·국) : 미래산업국, 교통국, 해양항공국, 문화체육관광국, 글로벌도시국, 도시계획국,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경제청
 - 유관기관 : 인천연구원, 인천도시공사,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상공회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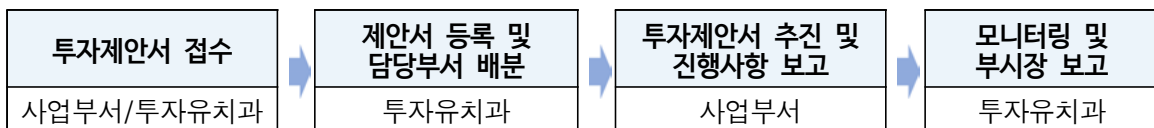
» 운영계획(안)

- (투자유치대상 자원관리 및 IR)
 - 대상 조사 : 투자유치 대상(예정)에 대한 세부현황과 프로젝트별 추진 현황 등 필요사항 조사
 - 협력체계 구축 : 조사부터 마케팅까지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유치, 인허가, 인센티브 지원 등에 대한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



- 투자대상 파악 및 홍보 : 장·단기별 또는 집중 투자대상을 선정하고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투자유치 홍보활동 및 투자설명회 개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창구 일원화) 투자유치 상담 및 민원업무에 대한 창구를 투자유치과로 일원화



- (투자자 발굴) 투자유치 부지 및 프로젝트에 따른 분야별 대상 업체 선정 후, 잠재적 투자자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
 - 투자유치TF팀을 중심으로 인천시 관련 실·국, 경제청, 상공회의소 등 투자유치 부서 및 기관이 상호 협조하여 업무 진행